

인천 정책로드맵 2040

매력적인 도시

08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08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연구총괄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황희정**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전문위원
	정원옥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연구참여	**성민정**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전임연구원
	지연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초빙연구원

※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 정책로드맵 2040

매력적인 도시

08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08.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1) 목표와 전략

- 개항도시 인천의 역사적 중요성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부족
  -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근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지역으로 당시의 근대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다수 남아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결과 문화관광 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행사 부족
  - 인천은 수도권 내 주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에 비해 문화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나 행사도 부족하여 시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인천의 정체성과 매력을 대내외로 확산시킬 기회가 부족함
- 문화관광지로서 경쟁력 약화
  - 인천시는 다양한 형태의 역사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수도권 주민을 유인할 문화관광 집객 시설이 부족하며 역사문화관광지로서 차별화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부족함
- 행정구역 개편 대응 및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
  - 2026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의 일부를 포함한 제물포구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기존 공공청사 건물 등의 활용방안을 선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인천을 국제적인 문화·경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 전략의 추진 필요
- 인천시의 역사문화, 문화예술, 문화관광의 현재 여건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과 전략 마련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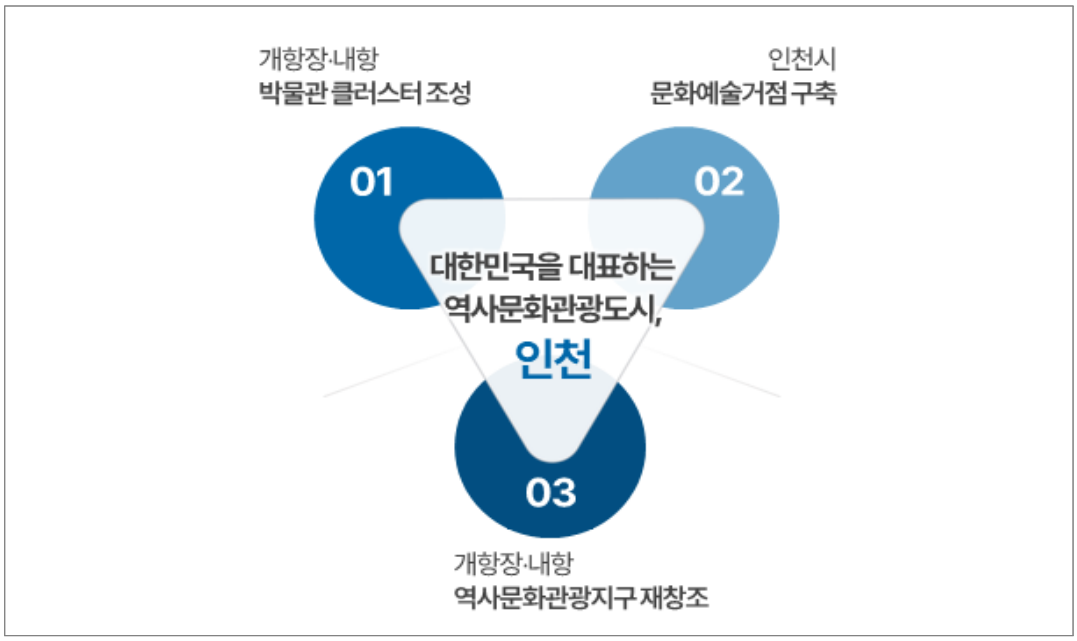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 인천시에 역사문화거점, 문화예술거점, 문화산업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이 활성화된 인천시의 미래상을 추구함
*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시에 부족한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민과 방문객의 역사문화관광 향유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전략체계와 실천과제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3대 전략(①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②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 ③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과 15개 실천과제를 설정함

〔전략체계〕



〔전략별 실천과제〕

전략	실천과제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①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클러스터 브랜드 구축
	②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
	③	개항 콘텐츠 차별화 및 산업 활성화
	④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네트워크 구축
	⑤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	⑥	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 및 명소화
	⑦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
	⑧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⑨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⑩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⑪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⑫	자유공원 근대역사 상징공원화
	⑬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
	⑭	(가칭) 제물포 바다공원 정비
	⑮	인천 대표축제 육성

실천과제 ①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클러스터 브랜드 구축

* 개항장 일대 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 개항도시로서 위상 부족
* 수도권 주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천의 역사성을 알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개항도시로서 이미지와 입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근대문화유산 보유지로서의 공신력을 대내외에 알려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의 제도적, 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 2024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1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추진
- 인천광역시와 국가유산청 간 협약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최초 지정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인천 개항장의 상징적 의미 부각
- 동법 제35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에 따른 활용계획 수립·추진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사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군산은 지역 내 밀집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 이 사업의 일환으로 근대역사박물관 및 인근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전시장 등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운영하는 **'박물관벨트화지역'** 조성
-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군산 관광의 중심축 역할 수행

추진단계

-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클러스터 브랜드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구축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국가유산청과 MOU 체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1호 지정 • 초기 브랜드 홍보 캠페인 전개 •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적용	• 근현대 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브랜드 확립을 위한 콘텐츠 개발 •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대한민국 대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서 위상 확보 • 브랜드 확장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지속 가능한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기대효과

-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으로 인해 주요 관광지로 부상
- 국가적·국제적 인지도 강화 : 국제적인 역사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인천 개항장의 위상 제고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체계적 관리 : 개항장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교육적 자원으로서 가치 증대 : 역사적 인식과 문화유산 보존 의식 강화 및 정체성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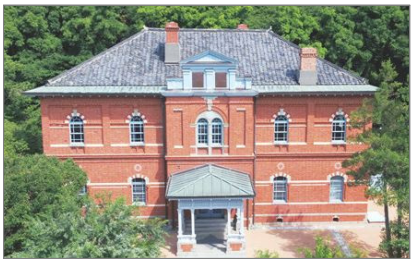
실천과제 ②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 설립

* 개항장 일대 개항 관련 박물관이 있으나 전국적·국제적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앵커 박물관 부재
* 개항장의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다른 개항도시들(부산, 군산, 목포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콘텐츠 면에서 압도적인 앵커 박물관 필요
* 앵커 박물관은 인근 소규모 박물관과 전시관의 콘텐츠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스토리텔링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개항장 일대의 문화적 통일성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주요 내용

- 2026년 제물포구청의 신설에 따라 유휴공간이 될 **중구청사**(국가등록문화재 제249호, 구 인천부청사)를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으로 재생
- 개항도시박물관은 개항 관련 역사자료 전시·체험관과 (가칭)개항도시아카이브센터, 인천근현대문화예술박물관(미술, 음악, 영화 등)으로 구성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즐거움 제공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국립 또는 시립 개항도시박물관'으로 설립 추진

〔개항도시 관련 근대 박물관 사례〕



목포근대역사관 1관

- ➔ 목포근대역사관 : 목포 일본영사관 건물을 활용한 역사관으로, 목포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나 개항 콘텐츠가 부족함
- ➔ 부산근현대역사관 :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로,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를 활용한 본관과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을 활용한 별관이 있음

추진단계

-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입지 확정,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중구청사 리모델링 계획 구체화 • 박물관 콘텐츠 연구 및 유물 수집	• 개항도시박물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 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유물 수집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국내외 프로모션 및 교류 확대 • 정기적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 운영 및 콘텐츠 지속 관리

기대효과

- 시너지 효과 창출 : 국립해양박물관, 교육박물관(남부교육지원청 부지 건립 예정) 등과 연계하여 인천 해양 및 개항 콘텐츠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국가대표 개항도시로서 위상 확보 : 인천 개항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외부 관광객의 유입 증대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항도시로서 위상 강화

실천과제 ③ 개항 콘텐츠 차별화 및 산업 활성화

* 개항장 관련 콘텐츠가 충분히 연구되거나 집적되어 있지 못해 자료 수집 및 효율적 활용이 미흡
* 개항 관련 각종 자료와 콘텐츠의 지속적 수집·축적·연구·활용을 통해 다른 개항도시와는 차별화된 콘텐츠 파워를 갖춤으로써 국가대표 개항도시로서의 위상 확립 필요
* 개항 관련 문화자원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차별성 있는 볼거리와 실감 나는 콘텐츠 구축

주요 내용

- 개항도시박물관과 연계된 가칭 '개항도시아카이브센터'를 **중구의회 청사**에 설립하여 개항 관련 각종 문헌, 이미지, 자료, 구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함으로써 인천 개항장만의 독특한 콘텐츠 강화
- 개항 관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 기업 및 전시기획사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혁신하고, 인천 개항장을 단순한 역사적 관광지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창의적 산업 허브로 발전
-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개항도시 관련 콘텐츠의 집적, 연구, 교육 플랫폼으로서 확고한 차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 참여를 촉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항도시로서 문화적 저변 확대

〔개항도시 디지털 콘텐츠 사례〕



국립무형유산원 디지털 체험관

→ 부산항 영상 복원 : 사진·필름의 디지털 복원 및 일제강점기 부산항 모습을 3D로 영상화

→ 국립무형유산원 :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무형유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공연, 전시, 교육 관련 자료, 학술조사 연구 자료, 기록화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생산·수집·보존·관리하고 전시·체험에 활용

추진단계

- 개항 콘텐츠 집성 및 차별화 관련 산업 활성화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개항도시아카이브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 기초 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 관련 전문가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	• 개항도시아카이브센터 개관 •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전시 기획 • 인천문화예술아카이브 연계 활용 활성화	• 개항도시아카이브센터 중심의 산업거점 구축 • 글로벌 개항기 콘텐츠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 : 개항콘텐츠와 연계된 산업의 발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관람객 유인 및 관광지로서 성장 :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와 차별화된 볼거리로 관람객 유인 효과 극대화
- 차별화된 콘텐츠 파워 확보 : 하드웨어와 콘텐츠 파워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개항도시로서 문화적 토대 구축 및 인천 개항장의 국가적·국제적 위상 제고

실천과제 ④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네트워크 구축

* 개항장 일대에는 민간 및 공공 박물관과 전시관이 산재해 있으며, 이들 간 자원 및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박물관별 전시 테마 및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방문객의 흥미와 참여도 저하
* 개항장 일대 박물관의 종합 안내, 공동 홍보,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박물관 클러스터 전체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며 방문객에게 보다 풍부한 경험 제공 필요

주요 내용

- (가칭) '개항장박물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①통합적 관리와 협력 강화, ②공동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③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 운영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①운영협의회 구성원 선정, ②사무국 설립 및 운영(인천중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앵커 박물관 조직을 활용해 별도 신설 없이 운영), ③정기회의 및 의사결정 구조 확립
- 운영협의회의 주요 역할 및 기능으로는 ①공동 프로그램 및 전시 기획, ②홍보 및 마케팅, ③재정 관리 및 지원, ④인력 및 자원 교류 등 추진

〔박물관 공동 운영 사례〕



수도 로마 박물관 시스템

➔ 로마 박물관 시스템은 ①재원의 효율적 운영, ②문화유산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20개의 로마 시립 박물관을 통합·운영

➔ 박물관의 독립적 경영은 보장하지만, 박물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은 분리해서 비영리 법인을 활용해 문화관광 활동 및 서비스 관리, 이벤트 및 전시회 운영 등 진행

추진단계

-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가칭)인천광역시 개항장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개항장박물관운영협의회 구성 준비 • 공동 홍보 및 안내 시스템 기획	• 개항장박물관운영협의회 구성 및 시범 운영 •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플랫폼 구축 • 인천개항장문화유산야행 확대	• 개항장문화유산야행의 근대문화유산축제로 격상 • 특별 협력기획전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 지속 가능 운영 네트워크 확장

기대효과

- 방문객 유치 및 만족도 증가 : 박물관 및 전시관의 공동 홍보 및 안내로 개항장 방문객의 주목도를 높이고 개별 박물관의 이용률 제고
-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 안정성 강화 : 자원과 정보의 공유,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박물관 간 운영 효율성 높일 수 있으며, 공동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 확보 가능
- 통합 브랜드 이미지 구축 : 통합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박물관 클러스터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실천과제 ⑤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

*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일대의 가로는 상업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으나 무질서한 주차와 혼잡한 교통 상황으로 인해 관광지로서의 쾌적함 부족
* 개항장 일대가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박물관과 미술관, 근대 건축물과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들이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 제공 필요

주요 내용

- 개항장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의 가로 환경 개선, 상업 및 문화시설 정비, 교통·주차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종합적 계획 수립
- 법적 기반 강화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에 가로 정비와 상권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개항장 박물관 클러스터 사업에 조응하도록 개정해 법적·제도적 추진기반 강화
- 주차문제 해결 및 보행자 친화적 환경 조성, 가로 경관 개선 및 일관된 디자인 적용, 특화 상점가 및 문화공간 조성, 상인과 주민 참여 유도

〔특화가로 조성 사례〕



대만 가오슝 보얼예술특구

➔ 가오슝 보얼예술특구 : 가오슝항의 제3선착장 내 위치하며, 가오슝 최대의 문화 관광지로서 옛 창고건물 등을 문화적으로 재생함

➔ 바닷가 항구 주변으로 예술가들의 레지던스 시설이 있으며 주변에 다양한 입체 조형물들과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 전시관, 극장, 박물관, 쇼핑센터 등이 입지

추진단계

- 개항장 특화가로 재생 및 문화지구 활성화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계획 수립 • 기존 가로 환경 정비 및 기반시설 개선 • 주민 및 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개항장 특화가로 맞춤형 상품 개발 • 특화가로 시범 운영 및 마케팅 전략 실행 • 공공예술 및 문화콘텐츠 활용	• 개항장 특화가로 상권 활성화 • 특화가로의 국제적 홍보 및 확장 • 지속 가능한 특화가로 운영 체계 구축

기대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 : 특화가로 조성으로 인해 개항장 일대의 상권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상업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 촉진
- 쾌적한 관광 환경과 관광객 유입 증가 : 가로 정비와 경관 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일관된 관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항장 일대의 매력 극대화
- 개항장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 : 가로 디자인과 일관된 테마의 적용으로 개항장 일대의 장소성 확립

실천과제 ⑥ 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 및 명소화

* 역사성과 장소성으로 볼 때 중구 개항장 일대는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거점이라고 할 만하나, 문화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인천의 중심적 문화예술거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 향유 기능이 집적되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시민들의 향유 및 소비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예술거점의 조성 필요

주요 내용

- 아트플랫폼 확장 및 재구성 : 개항장 내 유휴공간 및 역사성을 가진 장소와 건축자산을 추가 매입·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 레지던시, 공방, 갤러리, 아트숍 등을 유치·입주시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 조성 : 인천시의 공예명장 및 신진공예작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홍보·체험할 수 있는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을 조성하여 공예문화산업과 관광상품 연계 활성화
- 월미도 예술공원과의 연계 운영 : 확장된 아트플랫폼과 월미도 예술공원을 연계하여 섬·해양지역 연계형 예술 프로젝트 및 예술제 개최

〔문화예술거점 및 공예품전시판매장 사례〕



대만 화산1914 문화창의산업원구

- 화산1914 문화창의산업원구는 1914년에 세워진 대만 최대 양조장을 2005년에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사례
- 극장, 전시관, 공방, 문화상품 판매시설, 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시, 공연예술, 포럼·강의, 역사행사,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브랜드 행사 등 진행

추진단계

- 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 및 명소화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아트플랫폼 확장을 위한 현지조사 및 연구 • 주민 및 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기본계획 수립	• 아트플랫폼 확장 및 문화공간 조성 •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 조성 및 운영 • 월미도 예술공원 연계 프로젝트 본격화	• 아트플랫폼 및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속화 • 월미도 예술공원 연계 강화 •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의 안정화

기대효과

- 문화예술의 창작·향유·관광 선순환 구축 : 아트플랫폼의 확장을 통해 건축물 및 장소성을 복원하고, 예술인들의 상주를 촉진하여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 관광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공예문화산업의 발전 및 관광객 유입 :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을 통해 인천 공예문화산업의 거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소비를 촉진

실천과제 ⑦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

* 동구 지역은 쇠퇴한 산업지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방직, 일진전기** 등 기능을 멈춘 주요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복합단지 조성 필요
* 산업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복합단지 조성은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구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 가능

주요 내용

- 산업유산 보존 및 전시 : 일진전기와 동일방직의 주요 유산을 복원·보존하기 위한 전시관과 박물관을 조성하되, 산업화 과정에서 역사적 의미를 해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복합문화공간 조성 : 기존의 산업유산을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 전시·공연·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
-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방문객들이 직접 산업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 체험을 결합한 관광콘텐츠 제공

〔산업유산 재생〕



부산 F1963

- F1963 :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폐산업시설인 철강선 제조기업 고려제강의 옛 수영공장을 재생해 조성된 복합문화시설
- 기업이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 및 협력하여 조성된 시설로, 국·시비 60억2천만 원, 민간자본 34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
- 문화시설, 상업시설, 야외공간 등 구성

추진단계

-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기업 참여 기획 및 협약 체결(MOU체결, 기업 역할 명시) • 산업유산 가치 평가 및 마스터플랜 수립 • 부지 선정 및 예산 확보 • 유물 수집 및 콘텐츠 연구	• 복합문화공간 설계 및 건축 착공 •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복합문화공간 완공 및 개관 • 지속적 발전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정기적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동일방직과 일진전기의 참여를 통해 기업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CSR) 강화
- 문화적 가치 확산 : 동구 지역 산업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 관광 자원화 및 글로벌화 : 지역 주요 관광명소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실천과제 ⑧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 부평구 신촌 일대는 과거 미군 부대가 위치해 다수의 대중음악클럽이 형성되었던 지역으로 대중음악자원과 역사성이 풍부하나 현재 음악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해 생산-재생산의 한계를 지님
* 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앵커 시설로 **부평국가산업단지, 캠프마켓** 부지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시민음악대학을 설립하고,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과 기업을 단계적으로 구축 및 유치

주요 내용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 국가적 수준의 대중음악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부평에 설립하여 대중음악의 연구와 교육, 체험, 관광 활성화
- 시민음악대학 설립 : 음악대학이 없는 인천시에 학제 시스템이 아닌 열린 대학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
-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 캠프마켓에 조성된 인천음악창작소를 중심으로 음악산업 기업, 관련 기관들이 캠프마켓 인근 부평국가산업단지 등에 집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립 문화 관련 자료원 사례〕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의 영화 및 영상 자료를 수집·보존·연구·보급하는 문체부 산하 국립기관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내 위치

→ 영화 자료 수집 및 보존, 영화 복원, 연구 및 출판, 영화 상영 및 교육, 영화제 개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등 제공

추진단계

-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 및 계획 수립 • 시민음악대학 설립 준비 •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단지와 협력 통한 유휴공간 확보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부지 선정 및 확보, 조성 및 운영 • 시민음악대학 설립 및 운영 •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형성(음악산업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확장 및 전시·관광 활성화 • 시민음악대학 교육과정 확장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기대효과

- 부평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활성화 : 제조업 중심 원도심을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복합문화산업지구로 체질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
- 한국 대중음악의 위상 제고 : 한국 대중음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인식 제고에 기여
-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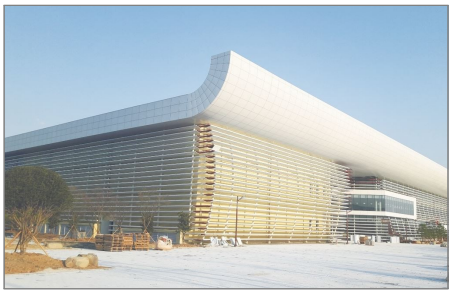
실천과제 ⑨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부터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해온 주요 시설로 2025년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어 대체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매립지의 활용방안을 생태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며 시민들에게 생태환경교육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주요 내용

-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 생태체험 학습장, 야생화식물원, 생태문화도서관, 생태미술관, 음악당,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한 '수도권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 TF팀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 수도권 매립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를 수도권 시민의 생태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TF 구성
- 생태문화복합공간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 다양한 생태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육과 체험 기회 제공

〔생태문화복합공간 사례〕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2019년에 설립한 복합교육문화시설로 생태문화체험학습, 생태인문도서관 등 운영
- 다목적홀, 공연장, 회의실, 콘코스홀, 생태인문도서관, 체험관, 편의시설, 주차시설로 구성
- 생태문화공감전시회 및 교육과정 연계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추진단계

-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한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TF 구성 및 타당성 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 부지 선정 및 협약 체결 •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 예산 확보, 공모 통한 설계안 선정	• 생태문화복합공간 주요 시설 설립 •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준비 •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확립 • 장기적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생태문화예술 관련 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대효과

- 수도권 시민의 생태문화예술 향유 거점 마련 :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생태문화예술 향유 거점을 조성하여 여가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 문화기반시설 확충 통한 지역 활성화 : 서구·검단·청라 등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격차 완화에 기여

실천과제 ⑩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

* 강화도는 한강 이남의 유일한 고려 도읍지로서 고려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나 고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보존·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활용할 박물관이 부재
* 삼국시대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왕조의 수도역할을 했던 지역은 인천 강화를 포함해 서울, 경주, 공주, 부여로, 이중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박물관이 없는 곳은 강화도가 유일
* 최근 강화군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 타당성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인천시가 중앙정부 및 강화군과 협력하여 국립고려박물관 설립 추진 필요

주요 내용

- 국립고려박물관 설립 : 고려 역사문화의 체계적 보존·전시·연구를 위한 국립고려박물관 설립
- 현장형 박물관 조성 : 강화도 **고려 궁지** 인근에 박물관을 설립하여 현장과 연계하여 전시
- 테마형 박물관 운영 : '대몽항쟁'을 특화 주제로 한 테마형 박물관으로 조성하여, 디지털 매체와 실감형 매체를 통해 방문객에게 고려 문화유산의 생생한 체험 기회 제공

〔테마형·현장형 국립박물관 사례〕



국립익산박물관

-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전시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에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개관 운영
- '미륵사지' 등 인근 유적과 연계한 박물관으로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유적지와 연계해 건립할 경우 현장형 박물관의 사례가 될 것임
- 익산백제실, 미륵사지실, 역사문화실, 기획전시실, 문화상품점 등 구성, 한국문화공간상 수상

추진단계

- 고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조성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박물관 설립 TF 구성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설립 부지 선정 및 확보 • 국내외 설계 공모 및 선정 • 국비 및 지방비 등 예산 확보	• 박물관 건축 착공 • 디지털 및 실감형 콘텐츠 개발 • 박물관 운영조직 구성 및 시스템(유물 관리, 전시 운영, 방문객 관리 등) 구축	• 박물관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 • 강화도 유적지(고려 궁지, 선원사지 등) 연계 관광코스 개발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대효과

- 고려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 고려 문화유산의 보존·전시·활용을 통해 인지도 확산
-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 브랜드화 :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전쟁박물관, 국립고려박물관 연계 박물관 투어로 관광인구 증대 및 강화도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자 '박물관 섬'으로 브랜드화
-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 : 동아시아 및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고려 역사 조망 및 국제적 학술 교류와 협력 촉진

실천과제 ⑪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 개항장권은 1883년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성장한 인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가치가 집적된 지역
* 과거 개항장권은 인천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현재는 인기 관광지 10위권 내 위치하지 못하는 상황
* 개항의 역사를 품은 상징적 공간, 자유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근대역사도시 장소성 구현 방식을 재설계하여 역사문화 테마의 공연문화예술산업 육성 및 역사문화도시 위상 확보

주요 내용

- (성격) 역사문화 이야기 통합 관리 및 콘텐츠화 기능의 스토리텔링형 공연문화예술센터 조성
- (역할) 라이브 스토리텔링·음악·무용·연극 등의 콘텐츠 개발 및 개항장·내항 축제이벤트 개최
- (기능) 스토리텔링+시각예술+공연문화예술산업 육성·생태계 조성 기능 전담
  - 주요 기능 : 인재 양성+창작 지원+공연·전시+유통 지원 ※ 대표축제 육성사업 연계
  ※ 일년내내 소규모 축제이벤트를 개최한다는 측면에서 IFC(Incheon Festival Center)로 명명
  ※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 및 유치'와 연계한 공간 조성 검토
  ※ '개항 콘텐츠 차별화 및 산업 활성화' 연계
- 개항장·내항 일대, 섬·해양 지역을 아우르는 국제 공연예술제 개최 및 동아시아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거점 기능으로 단계적 확장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센터 사례〕



→ 2006년 개관한 스토리텔링센터는 스코틀랜드의 구술 전통에 기반한 도시 이야기 창작 허브

→ 스토리텔링, 음악, 무용 등의 스코틀랜드 전통 공연에 대한 창작협업 전시와 워크숍, 멘토링 기능

→ 매년 10월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을 주최하며,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스토리텔링 생산-유통-소비 생태계 구축

추진단계

- 축제·공연형 콘텐츠 시범 운영 → 이야기센터 설립 → 이야기센터 본격 운영으로 구성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인천 문화관광 전문조직 내 이야기센터 시범 설치 • 공연형 콘텐츠 및 인천 대표축제 시범 개최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 부지 확보 및 공간 조성 • 조례 제정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및 조직체계 구성 • 이야기센터 시범 운영 • 공연형 콘텐츠 기획·개최 • 인재 양성 및 창작 지원	• 이야기센터 본격 운영 • 대표축제 개최

기대효과

-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의 상징성 제고 및 도시의 문화적 역량 축적

실천과제 ⑫ 자유공원 근대역사 상징공원화

* 1888년 조성된 자유공원은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라는 공원사적 의의와 한국의 근대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
* 자유공원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새로운 시설·콘텐츠 도입이 다소 어려우며, 공원의 상징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자유공원 상징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근대역사가 시작된 개항장의 역사문화적 가치 형상화·제고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근대역사문화가 집약된 자유공원의 상징성에 기반, 자유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전환
- 개항장권의 근대역사와 자유 테마를 전달하는 휴식·교육 목적의 역사공원으로 재구성

※ 도시공원법 제15조 3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 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개항장권 주요 역사·유물 재현 및 스토리 기반 실감형 전시공간화

※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대표자 대회가 개최된 역사를 디지털 재현

- (실외) 스토리맵 전자지도 + AR 기술 활용 스트리트 뮤지엄
- (실내) 미디어아트 + 디스커버리 메타버스 등 융합

- 자유공원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형 경관요소 설치 및 전망공간 확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사례〕



➔ 동대문 일대는 과거 한양도성이 축성되어 있었으나, 도시의 확장과 일본의 문화재 멸실·훼손으로 훼철

➔ 공원은 전통 한국 주거공간(마당과 뒷마당, 마당과 정원)을 모티브로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 연계

- 주요 시설 : 한양도성 및 이간수문, 야외유구전시장,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이간수문전시장, 갤러리문, 야외공연장 등

추진단계

- 도시공원 변경계획 수립·심의 → 예산 확보·리모델링 → 랜드마크화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주제공원화 위한 계획 수립 • 도시공원 변경계획 수립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예산 확보 및 공간 리모델링 • 공간 정비 및 건축물 조성 • 식재 및 휴게공간 조성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인천 대표 축제 육성 등과 연계한 상징공원 활용

기대효과

- 근대역사 상징성에 기반하여 개항장 일대의 문화관광 맥락 전환 및 지역의 의미·가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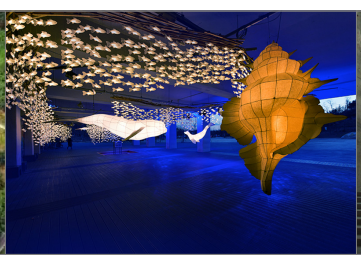
실천과제 ⑬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

* 월미공원은 과거 군부대였던 월미산 지역을 2001년 인천시에서 매입하여 조성한 근린공원으로, 월미전통정원, 전망대, 월미성, 한국이민사박물관, 다목적운동장 등으로 구성
* 월미도는 개항장권·연안부두권과의 지리적 이격·연결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 관광수요가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
* 개항장·월미도 일대에서 추진되는 문화예술적 시도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고, 역사기억 복원 테마의 예술형 메모리얼 파크 조성

주요 내용

- 월미공원을 예술 테마 문화공원으로 전환하여 섬·바다를 아우르는 국제예술 거점공간화
  - 월미산이 보유한 자연적 특성과 해양경관적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자연과 예술, 건축이 조화된 공간으로 조성
- 미술관을 핵심 시설로 조성하여 야외공간과 실내공간(미술관 등)을 균형적으로 활용
- 랜드마크형 미술관 및 예술공원 국제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세계적 예술가·건축가가 디자인하는 대표 랜드마크공간화
  - 미술관은 지형과 자연채광을 활용한 전시공간으로 구현하고, 미술관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화
-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월미산(예 : 녹색해안 부지) 이전 및 국립화 추진
- 아트플랫폼 등 주변 지역의 문화예술적 시도를 실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서울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일본 나오시마 지중미술관

추진단계

- 도시공원 변경계획 수립·심의 → 예산 확보·리모델링 → 랜드마크화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평화예술산 조성방향 설정 • 근린공원 → 문화공원 변경	• 평화예술산 조성 위한 국제현상 설계 공모·선정 • 평화예술산 및 미술관 조성	• 인천 대표축제 육성사업과 연계한 축제 개최 • 국제 섬 예술제 개최 • 문화예술 이벤트 추진

기대효과

- 인천의 섬·해양성에 대한 문화예술적 설계로, 월미도 일대 공간 활용방식 전환

실천과제 ⑭ (가칭) 제물포 바다공원 정비

*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 관광을 통한 해양지역 재도약 및 도시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역점 프로젝트로 추진 중
*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효과를 개항장·월미도 일대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형 공원을 조성하여 개항장·내항·월미도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지로 육성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바다' 테마 체계적 관리

주요 내용

- 제물포 바다공원은 시민 일상 속 30분 바다생활권, 인천의 도시·사람·문화·라이프스타일을 알리는 글로벌 쇼케이스로 컨셉화
- 시민 아이디어 공모, 청년층 디자인캠프, 전문가 워크숍·스케치 등 시민 의견 수렴
- 제물포 바다공원 현상설계공모를 추진하여 공간 및 시설 조성 방향 구체화·설계
- 공원은 시민·관광객·예술가가 모여서 창조하는 광장으로 구성
  - 친수지구 : 오션뷰 전망대 인공 스트리트 비치, 녹지공간, 피크닉공간, 산책로 등으로 조성
  - 레스토랑카페지구 : 레스토랑·카페 지구, 상권과 연계한 비설치형 식음 서비스 제공방식 도입
  - 문화예술지구 : 제물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제물포의 상징성 시각화
  - 축제이벤트지구 : 계절성·야간 경관 활용, 문화기획가 대상 소규모 문화행사 기획 공모·운영

〔호주 브리즈번 사우스 뱅크 수변지구〕



추진단계

-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계획 수립 → 바다공원 정비 순으로 추진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청년층 디자인캠프 •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스케치 등	• 바다공원 현상설계 공모 • 바다공원 조성계획 완료 -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연계	• 부지 정비 • 시설 조성 • 바다공원 개장 등

기대효과

- 내항 일대를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

실천과제 ⑮ 인천 대표축제 육성

* 에든버러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도시브랜딩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표축제 개최
* 제물포 일대에 대한 통합적 브랜딩 전략은 다소 부족하며,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축제는 부재
* 인천을 상징하는 역사 테마의 주제화된 공연문화예술축제 육성 제안

주요 내용

- (축제명) 축제의 명칭은 '가정'과 '만약'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형 축제의 특성을 담아'IF(Incheon Festival)'로 설정
- (축제 아이덴티티) 인천의 역사 이야기를 전시·전달하는 스토리텔링형 축제
  - (주제성) 인천의 역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매년 세부 주제 선정
  - (장소성) 내항 1·8부두를 메인공간으로, 내항·개항장권 전역의 실내외 공간 활용
- (축제 콘텐츠) 스토리텔링에서 공연예술까지 융합하여 대중성·수요 대응성 확보
- (총감독제·협력프로젝트제) IFC는 전문 축제감독 영입, 민관협력형 콘텐츠 기획·운영
- 축제 조직은 점진적으로 인천축제를 총괄하는 엄브렐러형(Umbrella) 축제로 성장
-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근대역사 트리엔날레 개최 및 섬·해양 테마 확장

〔대표축제 육성 방향〕



추진단계

- 대표축제(IF) 시범 개최 → 조직(IFC) 설립 → 인천 대표축제 개최 및 기존 축제 통합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내용	• 스토리텔링 축제 시범 개최 • 공사·재단 내 전담팀 성격의 축제 조직위 시범 설치 • 조직 설립 타당성 검토	• IFC(Incheon Festival Center) 설립 • 총감독 및 공연문화예술+시각예술 인재 영입	• 공공·민간 대상 축제 콘텐츠 공모·선정 • IF 개최 및 소규모 축제 연계 • 개항장 일대 소규모 공연시각예술 축제이벤트 개최

기대효과

- 인천 대표축제(IF)를 활용한 글로벌 도시 브랜딩 및 도시인프라 개선 계기 마련

목차

인천 정책로드맵
2040 매력적인 도시

1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구상
1. 배경 및 목적 ····· 3
2. 동향 및 여건 ····· 9
3. 목표 및 전략 ····· 18

2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1. 박물관·전시관 현황 ····· 23
2. 박물관 관련 정책 여건 ····· 30
3.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 34
4. 실천과제 ····· 39

3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
1. 문화기반시설 현황 ····· 87
2. 문화기반시설 관련 정책 여건 ····· 91
3. 문화예술거점 구축 필요성 ····· 97
4. 실천과제 ····· 100

4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1.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 현황 ····· 153
2. 개항장·내항 관광행태 ····· 158
3.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필요성 ····· 161
4. 실천과제 ····· 164

5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을 위한 제언
1. 연구 결과의 종합 ····· 197
2. 단계별 추진방안 ····· 199
3. 정책제언 ····· 204
4. 연구의 한계 ····· 210

참고문헌 ····· 213

표목차

1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구상

[표 1-1]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 ····· 6
[표 1-2]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SWOT 분석 ····· 17

2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표 2-1] 인천시 전체 박물관 현황 ····· 24
[표 2-2] 개항장·내항 일대 박물관·전시관 현황 ····· 25
[표 2-3] 인천광역시 박물관 1개 관당 평균 운영 지표 ····· 27
[표 2-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내용 ····· 30
[표 2-5]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관련 주요 내용 ····· 31
[표 2-6] 인천시 공립박물관 활성화 추진계획 ····· 33
[표 2-7]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 중 공립박물관 관련 사업 ····· 33
[표 2-8]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중 문화·관광 르네상스 기본구상 ····· 36
[표 2-9]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 38
[표 2-10]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 39
[표 2-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41

3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

[표 3-1]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 ····· 88
[표 3-2] 인천광역시 군·구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 89
[표 3-3] 「문화예술진흥법」 주요 조항 ····· 91
[표 3-4] 인천광역시 문화기반시설 관련 조례 ····· 92
[표 3-5]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 93
[표 3-6]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 중 '지역소멸을 막는 문화' 추진과제 ····· 94
[표 3-7]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중 문화·관광 르네상스 비전 체계도 ····· 95
[표 3-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 중 문화시설 관련 사업 ····· 96
[표 3-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지원사업 개요 ····· 98
[표 3-10]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 99
[표 3-11] 관련 정책 동향 ····· 122
[표 3-12] 인천시 지역별 등록예술인 현황(2024.11. 기준) ····· 123
[표 3-13] 부평구 분야별 등록예술인 현황(2024.11. 기준) ····· 123

표목차

4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표 4-1] 개항장·내항 주요 역사문화관광 자원 ····· 154
[표 4-2] 개항장·내항 전시관람시설 현황 ····· 155
[표 4-3] 개항장·내항 관광 프로그램 및 축제 ····· 157
[표 4-4] 빅데이터로 본 인천시 주요 관광지(2022.7~2024.6) ····· 158
[표 4-5] 2024년 상반기 외지인의 중구(영종도 제외)·동구 소비 규모 비교 ····· 159
[표 4-6] 개항장·내항 일대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를 위한 실천과제 ····· 163
[표 4-7] 축제 발전단계별 특성 ····· 188
[표 4-8] 축제 총감독 영입(안) ····· 190

5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을 위한 제언

[표 5-1]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전략' 단계별 추진방안 ····· 199
[표 5-2] 2025년 우선 추진과제 ····· 200
[표 5-3] 민간 참여 및 협력 필요 과제 ····· 202

그림목차

1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구상

〔그림 1-1〕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전략체계 ····· 19

2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그림 2-1〕 전국 박물관 수 및 인구 백만 명당 박물관 수 ····· 23
〔그림 2-2〕 개항장·내항 일대 박물관·전시관 현황 ····· 26
〔그림 2-3〕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 36
〔그림 2-4〕 문화·관광 르네상스 기본구상도 ····· 37
〔그림 2-5〕 군산·목포·부산의 근현대박물관 ····· 49
〔그림 2-6〕 인천광역시 중구청사 배치도 ····· 51
〔그림 2-7〕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 설립 입지(안) ····· 61
〔그림 2-8〕 (가칭)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설립 입지(안) ····· 68
〔그림 2-9〕 개항장 특화가로 입지(안) ····· 84

3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

〔그림 3-1〕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및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 ····· 87
〔그림 3-2〕 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안) ····· 108
〔그림 3-3〕 동일방직과 일진전기 공장 전경 ····· 109
〔그림 3-4〕 『2040 인천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중 문화·관광계획 기본방향 ····· 110
〔그림 3-5〕 『2040 인천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중 문화예술 복합공간 위치도 ····· 111
〔그림 3-6〕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 입지(안) ····· 121
〔그림 3-7〕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입지(안) ····· 132
〔그림 3-8〕 수도권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안) ····· 140
〔그림 3-9〕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안) ····· 149

4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그림 4-1〕 개항장·내항 주요 역사관광자원 및 전시관람시설 분포 ····· 156
〔그림 4-2〕 축제 전담조직 구성(안) ····· 165
〔그림 4-3〕 인천 대표축제 개최 대상지 ····· 187
〔그림 4-4〕 축제 전담조직 구성(안) ····· 189
〔그림 4-5〕 축제 콘텐츠 기획 구조 ····· 191

5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을 위한 제언

〔그림 5-1〕 개항장·내항 중심 역사문화관광도시 공간 구상(안) ····· 201

01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구상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01

역사문화관광도시[1] 인천 구상

1.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부족

- 개항도시 인천의 역사적 중요성 :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근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지역으로 당시의 근대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다수 남아 있음
  - 인천시는 1883년 제물포항의 개항으로 인해 근대 국제도시로 급속히 변모했으며, 근대 건축물이 밀집한 역사공간으로서 독특한 정체성을 보유함
  - 그러나 지역의 역사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결과, 문화관광 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관광지로서 경쟁력 약화 : 인천시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들이 개별적이고 분산되어 있어 전체적인 문화관광지로서 경쟁력이 약함
  - 특히, 인천 개항장은 수도권 내에서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거나 홍보하지 못해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음

1) 본 연구에서 '역사문화관광도시'란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광을 촉진하는 도시를 의미함(UNESCO, 2011)

❖ 국내외적 인지도와 관광자원 활용성의 한계

- 해외 타 개항도시와 비교 : 인천 개항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인지도와 관광자원의 활용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일본의 요코하마, 중국의 상하이와 같은 다른 동아시아의 개항도시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지로 자리 잡았으며, 역사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개발되어 있으나, 인천 개항장은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홍보가 부족하여 국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 요코하마 : 요코하마는 1859년 개항 이후 일본 근대화의 중심지로 발전했으며, 서양식 건축물과 외국인 거주지 등이 조성되면서 일본 내 주요 국제 무역항으로 자리 잡음. '미나토미라이21'과 같은 현대적 관광명소와 역사적 자원이 결합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중국 상하이 : 상하이는 1842년 개항 후 서양 열강의 조계지로 발전하면서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도시로 성장함. 와이탄과 프랑스 조계지 등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잡음. 상하이의 이러한 성공은 인천이 개항장의 역사적 유산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국내 타 개항도시와 비교 : 국내의 다른 개항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도 인천의 관광자원 활용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함. 부산, 군산, 목포와 같은 국내 주요 개항도시들은 각각의 특색을 살려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음

  - 부산 : 부산은 인천과 함께 대표적인 개항도시로,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옴. 특히, 부산의 광복동, 초량동 일대는 근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이에 비해 인천 개항장은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 미흡하여 부산과의 경쟁에서 뒤처짐

  - 군산 : 군산은 근대 역사와 관련된 건축물과 장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 여행마을'과 같은 독특한 관광 브랜드를 구축함. 군산의 이러한 노력은 인천 개항장이 단순히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독특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로 삼을 수 있음. 그러나 인천은 군산에 비해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화와 체계적 보존이 부족한 상태임

  - 목포 : 목포는 근대 건축물과 항구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목포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체험형 관광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반면, 인천 개항장은 이러한 체계적인 공간 활용과 관광 자원화에 있어서 목포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 홍보 및 전략 부재 : 인천 개항장은 개항기의 역사적 자원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이를 매력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함. 이는 개항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현재까지 진행된 여러 문화관광 사업들이 일관된 전략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이에 따른 효과가 미미함

❖ 행정구역 개편과 기존 청사 공간 활용

- 제물포구 신설 대응 : 202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의 일부를 포함한 제물포구를 신설할 예정임. 이로 인해 기존의 중구청사와 같은 공공건물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공간들의 활용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이러한 공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문화적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공간 활용 필요 : 특히 중구청사와 같은 공공공간을 앵커 박물관화하고, 일대의 작은 박물관과 연계해 박물관 클러스터로 전환함으로써, 개항장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 이는 개항장 일대의 문화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됨. 이러한 전략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연계

- 인천시 장기계획과 연계성 강화 :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글로벌 톱텐 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과 같은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 계획들은 인천을 국제적 수준의 문화·경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글로벌 톱텐 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특히, 인천의 역사적 자산을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인천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행사 부족

- 거점 문화시설의 부족 : 인천시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함. 특히, 인천시는 전국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도시로, 이로 인해 대규모 미술 전시회나 국제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는 인천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 『202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인천에는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이 없으며, 2023년 6월에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제외하면 여전히 국립문화기반시설과 수준 높은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여건임(문화체육관광부, 2023.1.1. 기준)

  - 2024년 10월 현재 시립미술관이 없으며 미추홀구 학익동에 인천뮤지엄파크를 2028년까지 조성할 예정임

  - 전국 17개 시도 중 문화기반시설 수는 12위, 인구 백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14위임

〔표 1-1〕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

(단위 : 개)

구분	문화기반시설 현황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	구분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
전국 총계	3,248	63.14	경기	609	44.81
서울	449	47.62	강원	246	160.10
부산	143	43.10	충북	142	89.02
대구	95	40.19	충남	193	90.91
인천	127	42.80	전북	191	107.93
광주	78	54.51	전남	244	134.24
대전	61	42.18	경북	232	89.21
울산	46	41.42	경남	235	71.64
세종	26	67.78	제주	131	193.1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예술행사의 부족 : 인천은 수도권 내 주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에 비해 문화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나 행사도 부족하여 시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인천의 정체성과 매력을 대내외로 확산시킬 기회도 부족함

  - 이는 인천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문화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화적 빈곤은 인천 개항장 일대의 관광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재도약

-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전략 수립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임. 개항장의 역사적 자원과 문화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내외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역사적 가치 극대화 : 인천 개항장 일대는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황임. 본 연구는 이러한 자원을 극대화하여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항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이를 위해 개항장의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차별화된 역사문화관광콘텐츠 개발

- 문화공간 확장 :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개항장 일대의 기존 문화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개항장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함. 이 클러스터는 역사적 콘텐츠와 현대적 문화 활동을 결합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것임
- 개항도시 차별화 전략 : 인천 개항장은 대한민국의 다른 개항도시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개항장의 고유한 역사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예를 들어, 개항기 주요 사건을 재현한 역사극, 개항장의 생활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글로벌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쟁력 강화

- 미래 문화 자산 전환 : 인천 개항장의 역사적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미래의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인천시는 국제적 수준의 문화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해야 함
- 국제 관광도시로의 발전 : 장기적으로 인천 개항장을 아시아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관광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도록 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을 것임

3) 연구의 범위 및 체계

❖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관광 관련 동향을 검토하고, 내외부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함
-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도출하고, 분야별 실천과제를 제안함

■ 공간적 범위

- 중구 개항장·내항 일원을 포함하여 서구, 동구, 부평구, 강화군을 대상으로 함
- 중구 개항장·내항 일원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의 거점으로 육성하되, 그 외 지역은 자산과 특성을 고려해 서구는 생태문화, 동구는 산업문화, 부평구는 문화산업, 강화군은 역사문화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중구 개항장·내항 일원은 근현대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으나, 인지도와 활용도가 미흡하고 관광집중도도 저하되어 대응이 필요함
  - 서구, 동구, 강화군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인천 내 문화 격차가 큰 지역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거점을 구축하여 문화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평구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장기간 추진해온 성과를 계승하고,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연구의 체계

■ 본 연구는 동향 및 여건 진단, 목표와 전략 도출, 분야별 실천과제 제안과 정책제언으로 구성됨

- 동향 및 여건 진단 :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관광 분야의 대외적 동향과 인천지역의 내부 여건을 토대로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목표와 전략 도출 : 대내외적 여건 분석을 토대로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관광 분야의 3대 전략을 도출함
- 분야별 실천과제 제안 :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관광 분야 3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5개 실천과제를 제안함
- 정책제언 :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단계별 추진방안과 중점 추진과제, 민간협력 과제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함. 개별 실천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과 연구의 한계점도 제시함

2. 동향 및 여건

1) 동향과 전망

(1) 문화유산 분야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중요성 강화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 부각 : 최근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 법률은 20세기 이후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
- 근현대문화유산의 법적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 : 이 법에 따라, 인천 개항장과 같은 근현대문화유산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보존과 관리가 강화될 예정임.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재평가될 것임. 법률에 명시된 보호 조치들은 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전략 다각화

-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예정임. 예를 들어, AR(증강현실) 및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유산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될 것임. 이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역사 체험을 제공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유산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데 기여할 것임
- 근현대문화유산 연계 관광 자원화 : 근현대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 자원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인천 개항장 일대의 근대 건축물과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 탐방 코스가 개발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임.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용 활성화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함.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유산 보존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문화유산야행과 같은 지역 축제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유산의 가치를 체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임

(2) 문화예술 분야

- 정부는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매력 있는 문화자산으로 내일을 여는 K-컬처, 지역과 사회를 품격있게 연결하는 K-컬처, 세계시민과 연대하는 K-컬처 등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문화 균형 발전 및 K-컬처 확산을 위한 정책사업이 다각도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과 과제

- 지역 문화도시 육성 : 균형 잡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도시를 지정·육성하여 전국 각지에서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 속에서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러한 문화도시 육성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문화집적공간과 문화지구 조성 : 각 지역에 문화집적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것임. 이러한 공간들은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이 교류하며 창작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것임.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더욱 풍부해지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국가 문화 인프라의 지역 이전 및 설립 :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문화 인프라의 지역 이전과 새로운 문화시설 설립이 추진될 것임. 이러한 인프라는 지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고품질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임

❖ K-컬처의 글로벌 확장과 지역문화 연계

- K-아트의 세계화 : 한국의 문화예술, 특히 K-아트는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확장될 것임. 정부는 K-아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K-공연 확장을 도모할 계획임. 이를 통해 한국의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예술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것임
- 지역문화와 K-컬처의 연계 강화 : K-콘텐츠의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임. 정부는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임.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과 K-컬처의 글로벌 확장을 연계하여 지역문화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인 K-컬처 팬덤과 연계를 통해 문화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것임

-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정부는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문화예술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 디지털 콘텐츠 강화 :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강화할 계획임
  -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전시, 디지털 공연,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과 같은 첨단 기술을 문화예술 분야에 접목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창작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임
- 스마트 예술 환경 조성 :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 방식에 혁신을 가져오고자 함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에게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지역 문화예술의 어려움과 정책적 대응

- 지역 문화예술의 어려움 : 지역 소멸 대응 정책과 자치·분권 강화 환경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 특히, 지역 간 문화적 격차가 지속되면서 지방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큼.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과 함께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이 중요함.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3) 문화관광 분야

❖ 글로벌 관광 회복과 지역 특화 관광 전략

- 국제 관광시장 회복 : UNWTO와 UN 관광바로미터에 따르면 2024년 국제 관광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대비 2% 성장할 것으로 보임.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86억 명의 국제 관광객이 여행을 재개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의 88% 수준으로 회복된 것임. 관광 수익 또한 1.6조 달러로 2019년 1.7조 달러의 95%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UNWTO, UN Tourism Barometer). 이러한 글로벌 관광시장의 회복은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전과 기회 : 2023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관광 회복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느린 편임.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관광객 회복률이 저조함. 이 지역은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보다 차별화된 관광 전략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이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한 특화된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관광 트렌드의 다변화와 초개인화된 관광 경험

- 관광 수요의 초개인화와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최신 관광 트렌드는 초개인화 현상과 인구 구조 변화, 나노화된 여행 경험, 관광의 일상화 확대, 지역 고유성에 기반한 로컬 관광의 진화 등으로 요약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이에 따라 미래의 관광 트렌드는 전통적인 대규모 단체 관광에서 벗어나 관광객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초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임. 관광업계는 소규모 맞춤형 투어, 지역 특화 체험 프로그램, 개인화된 관광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
- 디지털 기술과 지역관광의 융합 : 디지털 전환은 지역관광의 융합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예를 들어, AR(증강현실) 및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적 장소와 문화유산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음.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특히 젊은 세대와 디지털 친화적인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임. 또한,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형 여행 가이드, 예약 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관광 편의성 향상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지역관광의 글로벌화와 K-컬처 연계

- K-콘텐츠와 문화상품의 성장 : 국내외에서 K-콘텐츠와 관련된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 인기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K-드라마 촬영지 투어, K-팝 콘서트와 연계된 관광 상품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음
- K-컬쳐와 지역관광의 연계 강화 : K-컬처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역관광과 융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K-팝, K-드라마, K-영화 등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을 지역문화와 결합하여 개발할 수 있음. 이러한 융합은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정부는 〈제6차 관광진흥계획(2023~2027)〉에서 'K-컬처와 함께 하는 관광매력국가'를 비전으로 4대 전략(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이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과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과 환경 보호

-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의 발전 : 미래의 관광산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지역관광 자원 개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예를 들어,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한 관광 코스 개발,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한 관광객 수 제한, 지역사회와 협력한 환경 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능함. 이러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관광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지역주민들이 관광자원 보호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 지역 생산품을 활용한 로컬푸드 관광, 지역 예술가와 협력한 문화행사 등이 가능함. 이러한 협력 모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2) SWOT 분석

(1) 내부 환경 분석

❖ 강점(Strengths)

- 풍부한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 보유 : 인천은 개항 이후 다양한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강점임. 이러한 자원은 일본, 청나라 등과 연계된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독특한 매력을 제공함
- 특정 지역에 문화자원 집중 : 중구 차이나타운, 월미도, 내항 등 주요 문화자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관광객 유치와 관리가 용이함. 이는 관광객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개항도시로서 역사적 정체성 : 인천은 개항 이후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독특한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정체성은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임

❖ 약점(Weaknesses)

- 문화관광 인프라 노후화 및 부족 : 많은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부족하여 관광객의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개항장과 내항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여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시설 운영 및 협력체계 미비 : 각 시설 간 운영 및 활용에 있어 협력체계가 부족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이는 관광객 유치와 자원의 최적화된 활용을 방해하는 요소임
- 문화유산 및 문화 인프라 분포의 불균형 : 문화유산과 문화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큼. 이는 인천시 전체의 균형 잡힌 문화관광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

(2) 외부 환경 분석

❖ 기회(Opportunities)

- 국가 문화유산 제도 개편 :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기존의 문화유산 제도가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인천시의 문화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

- 중앙정부의 문화관광 촉진 정책 : 중앙정부의 관광거점 도시 조성 및 문화지구 지정 정책과 연계하여 인천의 문화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큼. 이는 지역 중심의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임
- 인천시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동력 확보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같은 역점사업의 추진으로 문화관광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짐

❖ 위협(Threats)

- 문화관광산업의 회복 지연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침체되었던 문화관광산업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인천시의 문화관광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타 지자체와의 경쟁 심화 : 목포, 군산 등 유사한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도시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 이는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 요인임
-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연계 부족 : 인천시의 문화관광 개발 사업이 중앙정부의 지역 문화발전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움. 이는 인천시의 문화관광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임

(3) 대내외 여건 종합

❖ SO 전략 : 강점을 활용하여 외부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

- 근현대 역사·문화자원 활용 지역 브랜드 강화 : 인천의 풍부한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함. 중앙정부의 관광거점 도시 조성 및 문화지구 지정 정책을 활용하여, 인천의 고유한 역사적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체험을 제공함
- 국가 문화유산 제도 개편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강화 : 국가유산 체계로의 문화유산 제도 개편을 활용하여 인천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강화함. 이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시 역점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 활성화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같은 시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의 근현대 역사적 자원을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활성화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함.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 발전시킴

❖ ST 전략 : 강점을 활용하여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

-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 인천의 독특한 역사적 자산을 예술적 창작물로 재해석하여 경쟁 도시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함
-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인천의 문화자원이 집중된 중구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함
- 문화유산 기반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 수립 :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타 도시와 차별화된 관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관광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함

❖ WO 전략 : 약점을 보완하여 외부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 강화 : 인천의 부족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중앙정부의 문화관광 촉진 정책과 연계하여 확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강화함. 특히, 개항장과 내항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관광객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함
- 시설 운영 및 협력체계 강화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중앙정부의 관광거점 도시 조성 정책을 활용하여, 인천의 문화관광 시설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 이를 통해 인천의 관광객 유치력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문화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 및 지역문화 격차 완화 : 중앙정부의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인천 내 문화유산과 문화시설의 분포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문화 격차를 완화함.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인천 전체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 WT 전략 : 약점을 최소화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외부 경쟁 대응 :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완하고, 지역 예술가와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함
- 문화관광 인프라 집중 투자와 운영 효율성 강화 : 인천의 특정 지역에 집중된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함
-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인천시의 문화관광 개발 사업이 중앙정부의 지역 문화발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을 확보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함

〔표 1-2〕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SWOT 분석

외부요인 / 내부요인	O(기회)	T(위협)
	• 국가 문화유산 제도 개편 • 중앙정부의 문화관광 촉진 정책 • 인천시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동력 확보	• 문화관광산업의 회복 지연 • 타 지자체와의 경쟁 심화 •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연계 부족
S(강점)	**SO 전략 추진방향**	**ST 전략 추진방향**
• 풍부한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 보유 • 개항장·내항 지역에 문화자원 집중 • 개항도시로서 역사적 정체성	• 근현대 역사문화자원 활용 지역 브랜드 강화 • 국가 문화유산 제도 개편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강화 • 시 역점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 활성화	•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 통한 경쟁력 강화 • 문화유산 기반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 수립
W(약점)	**WO 전략 추진방향**	**WT 전략 추진방향**
• 문화관광 인프라 노후화 및 부족 • 시설 운영 및 협력체계 미비 •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분포의 불균형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통한 관광객 유치 강화 • 시설 운영 및 협력체계 강화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문화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 및 지역문화 격차 완화	•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외부 경쟁 대응 • 문화관광 인프라 집중 투자와 운영 효율성 강화 •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3. 목표 및 전략

1) 목표

❖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을 조성하는 것임
  - 장기적으로 인천시에 역사문화거점, 문화예술거점, 문화산업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항도시로서 대표성을 강화하며 문화관광이 활성화되는 인천시의 미래상을 추구함
-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수립함 : ①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② 인천시 문화예술 중심지 조성, ③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 전략 ①과 ③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밀집한 개항장·내항을 중심으로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 ②는 지역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둠

2) 전략체계

❖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 인천시의 고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정체성 및 도시 브랜딩 강화
  - 대한민국 대표 개항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전략을 마련하여 수도권 내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재구축함

❖ 인천시 문화예술 거점 구축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 자산을 활용한 문화거점 구축 및 문화여가 활성화
  -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천의 문화 중심지로서의 장소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문화여가 활동을 활성화함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 자산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주요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시킴

❖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 개항장·내항 일대의 역사문화관광 거점 기능 강화 및 인천의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프로젝트 견인
  - 개항장과 내항 지역의 기존 시설과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연결·네트워킹하여 역사문화 융합 관광지구를 조성함

-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매력을 극대화하여 개항장과 내항 지역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인천을 구축함

〔그림 1-1〕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전략체계



전략 1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실천과제 1-1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클러스터 브랜드 구축
실천과제 1-2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
실천과제 1-3	개항 콘텐츠 차별화 및 산업 활성화
실천과제 1-4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실천과제 1-5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

전략 2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

실천과제 2-1	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 및 명소화
실천과제 2-2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
실천과제 2-3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실천과제 2-4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실천과제 2-5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

전략 3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실천과제 3-1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실천과제 3-2	자유공원 근대역사 상징공원화
실천과제 3-3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
실천과제 3-4	(가칭) 제물포 바다공원 정비
실천과제 3-5	인천 대표축제 육성

02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02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1. 박물관·전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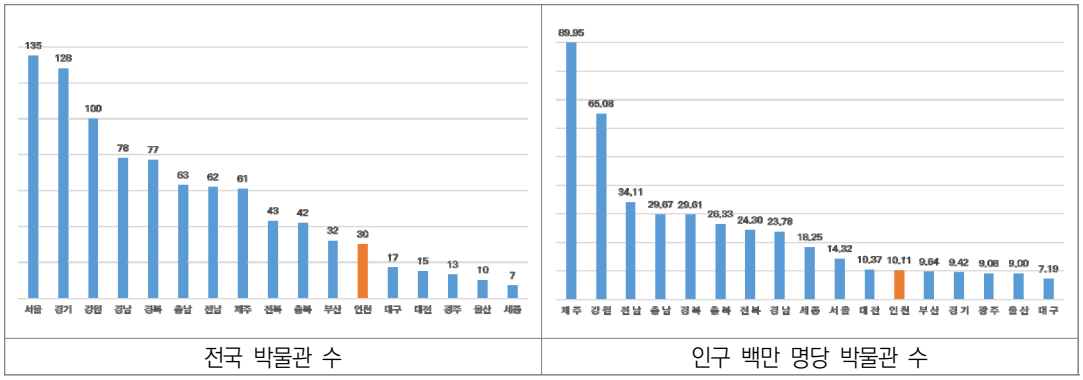
1) 개항장·내항 일대 박물관 현황

- 인천시의 박물관 수는 30개, 인구 백만 명당 박물관 수는 10.11개임(문화체육관광부, 2023.12.)

  - 인천시의 박물관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중하위권이며, 인구 백만 명당 박물관 수로 비교했을 때는 12번째로 중하위권에 위치하며, 인천의 인구 백만 명당 박물관 수(10.11개)는 수도권 평균 11.28개, 전국 평균 17.75개에 비해 적음

〔그림 2-1〕 전국 박물관 수 및 인구 백만 명당 박물관 수

(단위 : 개)



전국 박물관 수 | 인구 백만 명당 박물관 수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3.12.) 참고하여 연구자 재정리

■ 인천의 박물관을 살펴보면 공립박물관 16개, 사립박물관 13개, 대학박물관 1개가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23.12.)

■ 군·구별로 살펴보면 중구가 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추홀구·강화군 4개, 남동구·연수구 3개 등의 순이며, 옹진군은 박물관이 없음

- 국공립, 사립박물관 모두 중구에 가장 많은 박물관이 위치함
- 대학박물관 1개는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박물관임

〔표 2-1〕 인천시 전체 박물관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국공립	사립	대학
인천시	30	16	13	1
중구	9	5	4	-
동구	1	1	-	-
미추홀구	4	-	3	1
연수구	3	2	1	-
남동구	3	1	2	-
부평구	2	1	1	-
계양구	2	1	1	-
서구	2	2	-	-
강화군	4	3	1	-
옹진군	-	-	-	-

※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2023년 6월 개관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인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3.12.) 참고하여 연구자 재정리

■ 인천 중구 개항장과 내항 일대는 다양한 박물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음. 인천개항박물관, 짜장면박물관, 한국근대문학관 등 8개 이상의 박물관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공립박물관임

- 인천개항박물관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옛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 건물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위탁 운영 중임[2)]
- 짜장면박물관 : 옛 공화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국내 최초의 짜장 테마박물관으로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위탁 운영 중임
- 한국근대문학관 : 근대 개항기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으며, 「문학진흥법」에 따른 등록 문학관으로, 인천문화재단이 소유 및 운영 중임

2) 인천개항박물관은 단층 규모의 작은 박물관으로 개항기 역사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며, 콘텐츠도 단순 사진, 엽서, 우표, 서책 정도인데다 타 박물관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한국이민사박물관 :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인천시민들과 해외동포가 함께 뜻을 모아서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으로, 인천시가 운영 중임
- 인천학생6.25참전관 : 1951년 6월 7일 공립 6년제 인천상업중학교(현 인천고등학교) 학생으로 자원입대하여 참전한 이경종의 아들 이규원이 세운 6.25전쟁 참전 역사 기록관임
- 재미난 박물관 : 2005년에 개관한 체험 중심의 사립박물관으로서, 전 세계에서 수집한 과학제품(완구)들을 통해 놀면서 배우는 체험학습공간임
- 초연다구박물관 : 1932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 개관한 사립박물관으로 다도문화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임
- 혜명단청박물관 : 단청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사립박물관으로 2009년에 개관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인 정성길 관장의 소장물을 전시함

■ 중구 개항장에 소재한 전시관 중에서 개항장, 내항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전시를 기획·운영하는 곳으로는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대불호텔전시관, 중구생활사전시관 등이 있음

- 근대건축전시관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일본 제18 국립은행 인천지점 건물로 근대 건축물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며,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위탁 운영 중임
- 대불호텔전시관 : 서양식 호텔이었던 대불호텔 터에 조성된 전시관으로, 1관은 대불호텔전시관, 제2관은 중구생활사전시관으로 조성했으며,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함
- 제물포구락부 :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외국인 거주자들의 사교와 교류를 위해 설립된 한국 최초의 외국인 사교클럽 중 하나로, 현재는 인천시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 인천시민애집 : 일본인 사업가의 저택이었으나, 1965년 인천시가 매입하여 한옥으로 개축한 후 1967년부터 2001년까지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하고, 2001년부터 인천역사자료관으로 운영하다가 2021년에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함

〔표 2-2〕 개항장·내항 일대 박물관·전시관 현황

(단위 : 개)

구분		박물관·전시관	
박물관	공립 (4)	인천개항박물관	짜장면박물관
		한국근대문학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사립 (4)	인천학생6.25참전관	재미난 박물관
		초연다구박물관	혜명단청박물관
기타 전시관		근대건축전시관	대불호텔전시관
		중구생활사전시관	제물포구락부

〔그림 2-2〕 개항장·내항 일대 박물관·전시관 현황


인천개항박물관

짜장면박물관

한국근대문학관



한국이민사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재미난박물관


초연다구박물관



해명단청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


대불호텔전시관


중구생활사전시관


제물포구락부


인천화교역사관


한중문화관


인천시민애집

주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2024년 12월에 정식 개관 예정

2) 개항장·내항 일대 박물관 운영 현황

❖ 박물관 운영 지표 저조

- 인천시의 박물관 운영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인천시의 박물관 1관당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등이 수도권 및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음. 특히 연 관람인원이 수도권과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음

  - 직원 수, 학예직원 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지표 모두 수도권 및 전국 평균보다 낮음. 그중에서도 소장자료와 연 관람인원은 수도권과 전국 평균에 절반 이하에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연 관람인원이 수도권과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소장자료 부족 및 매력적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원인일 수 있음

〔표 2-3〕 인천광역시 박물관 1개 관당 평균 운영 지표

(단위 : 명, 점)

구분		인천시	수도권	전국
박물관	직원 수(명)	6.33	15.48	11.69
	학예직원 수(명)	3.07	5.72	3.86
	소장자료(점)	7,644	21,065	15,973
	연 관람인원(명)	38,990	78,007	68,16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3.12.)

❖ 박물관 산재 및 앵커 시설 부족

- 인천은 최대 개항장을 형성한 국가대표급 개항장 도시이지만, 인천 개항장·내항 일대에는 공립 및 사립박물관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전시장 등이 산재해 있음

  - 개항장·내항 일대에는 8개 박물관 외 인천화교역사관, 한중문화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등 전시관, 기념관 등이 있음

- 근대 건축물 및 개항 관련 크고 작은 박물관이 산재하고 있으나 전국·국제적 관심을 끌 만한 앵커 박물관이 부재함

  - 군산, 목포, 부산 등 다른 개항도시와 차별화되며, 개항장의 상징적 건물이나 개항기 특성을 살린 앵커 박물관 설립이 필요함

❖ 인천만의 차별화된 킬러콘텐츠 확보 필요

- 인천의 개항은 한국의 근대화와 국제화의 출발점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옴. 개항장·내항 일대의 8개 박물관은 각각의 주제를 통해 인천의 개항이 일제 침탈과 근대화, 다문화적 교류, 문학과 예술의 발전 등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조명함
  - 인천은 전략적 위치, 최초의 개항지로서의 역사적 중요성, 외국인의 정착과 다문화 교류, 경제적 발전, 발달된 교통 인프라, 문화적 교류 등의 강점을 지님
- 인천 개항장과 내항 일대는 중요한 문화관광지이지만 박물관과 전시관은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임
- 개항도시 인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방문객을 유도할 킬러콘텐츠 확보가 필요함
  - 개항 관련 콘텐츠의 수집·연구 등을 통해 차별화된 킬러콘텐츠 확보가 필요함
- 킬러콘텐츠 확보로 인천이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 개항도시임을 공고히 하고, 그 이미지와 입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인 박물관 운영 전략 수립 필요

- 개항장·내항 일대에는 공립박물관 4개, 사립박물관 4개가 있으며, 각 박물관은 특정 주제를 통해 인천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있음
  - 역사문화 콘텐츠 : 인천개항박물관과 인천학생6.25참전관은 인천 개항, 한국전쟁 등 근현대 역사적 전환기에서 주요 사건을 조망할 수 있음
  - 문학 콘텐츠 : 한국근대문학관은 한국 근대문학의 발전과정과 주요 작품을 통해 근대문학사를 탐구할 수 있음
  - 다문화(다양성) 콘텐츠 : 짜장면박물관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중국 음식 문화, 해외 이주·이민 역사 등 다른 문화와의 교류와 융합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인천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음
  - 문화예술 콘텐츠 : 초연다구박물관과 혜명단청박물관은 전통 차 문화와 단청 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의 보존과 계승을 살펴볼 수 있음
  - 교육 콘텐츠 : 재미난박물관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과 수학을 배우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을 통해 인천이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중심지임을 알 수 있고, 개항장·내항 일대의 박물관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종합적 전략 없이 각각의 콘텐츠로 박물관이 운영 중이어서 박물관의 문화관광 집객을 위해 문화체험 및 관광과 연계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운영체계 및 제도 마련을 통한 협업과 연계 강화 필요

- 인천 개항장 일원에 산재한 박물관·전시관 등 문화유산시설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중구문화재단, 관세청 등 다양한 관리·운영자가 각각 운영하고 있어 협력체계가 부재하고 콘텐츠 중복이 심함
  - (인천시)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신흥동 옛 시장관사, 옛 소금창고 부지 일원 가옥, 인천우체국, 개항살롱, 인천아트플랫폼 등
  - (인천도시공사) 이음1977, 근대문화재생사업 2호 및 3호 주택
  - (중구) 인천개항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 대불호텔전시관, 한중문화관, 짜장면박물관
  - 이 중 중구청 관할 박물관·전시관 5개관(개항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 한중문화관, 짜장면박물관, 대불호텔전시관)이 통합관람권을 운영함. 짜장면박물관의 경우 누들플랫폼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진행, 특별기획전 연계 행사 개최 등 중구청·인천중구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그 외 운영체계가 다른 박물관, 사립박물관 간에는 정보 공유가 부재하고 프로그램 등 협력체계가 부재함
- 더 많은 관람객의 유인 및 박물관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중구 개항장·내항 일대 박물관의 클러스터 운영 전략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함

2. 박물관 관련 정책 여건

1) 법률 및 조례

❖ 법률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임

-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음(제33조)
-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제44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제50~제54조)

〔표 2-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내용

구분	내용
정의 (제2조)	• 근현대문화유산 –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 – (근현대동산유산)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 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 등록문화유산을 주변 지역과 함께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예비문화유산 :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
근현대 문화유산지구 (제33조~제3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지역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제50조~제54조)	•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지원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주민사업, 활동 지원 •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지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24.7.17. 검색)

❖ 조례 :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인천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천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조례 제6920호)를 제정함
  -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문화향유 확대, 문화 복지 서비스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등 재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 해당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과 관련한 지원 사항, 유휴공간의 활용,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표 2-5〕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인·단체"라 함은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해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육성 및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 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허용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유휴공간 활용)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기준)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형식 중심의 사업 완성도 3. 당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구 및 활용능력 4. 당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의 경비보조)	시장은 다음 각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전시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전시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보안시설, 작품보존시설 등 시설 개·보수관련 경비 4. 법 제23조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24.7.17. 검색)

2) 정책 및 사업

❖ 중앙정부 정책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 박물관·미술관과 관련하여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 생활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 부각, 사회·정책 환경에 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 필요성 대두 등으로 인해 박물관·미술관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종합적인 발전정책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문화체육관광부, 2019.6.24.)
-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가까이 찾는, 내실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함(문화체육관광부, 2019.6.24.)
  -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을 비전으로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6개 핵심과제로 구성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박물관·미술관계 현장 간담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문화체육관광부, 2024.6.20.)

❖ 중앙정부 사업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시설 건립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난립 및 건립 후 운영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함
  - 평가지표는 전시와 교육, 수집, 연구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 5개 범주, 14개 지표, 18개 세부 지표로 구성됨
-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2년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 실 시 결과, 140개 우수 공립박물관을 선정함. 인천시 관내 평가 대상 14개 공립박물관 중 인천의 우수 인증기관은 7개뿐임(문화체육관광부, 2023.3.14.)
  - 인천시 관내 우수 인증기관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86.8점, 부평역사박물관 82.5점, 한국이민사박물관 82.0점, 녹청자박물관 81.4점, 한국근대문학관 80.1점, 검단선사박물관 77.9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72.2점 7개소임(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2023.7.)
  - 절대평가 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적용한 평가인증에서 짜장면박물관을 비롯한 인천의 공립박물관 7곳은 점수 미달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함

❖ 인천시 정책 : 인천광역시 공립박물관 활성화 종합계획

- 2023년 7월, 인천시 신규 시정혁신과제로 「공립박물관 운영 효율화 제고」가 선정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공립박물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함
- 주요 내용은 인천시 공립박물관 협의체 구축, 학예사 워크숍 실시, 군·구 공립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 인천 공립박물관 평가 실시, 인천 공립박물관 활성화 정책연구 등임

〔표 2-6〕 인천시 공립박물관 활성화 추진계획

구분	내용
인천시 공립박물관 협의체 구축	• 구성 : 인천시립박물관장, 관내 공립박물관장 등 15명 • 협의체 협의사항 – 시립, 군·구립 박물관 간 협력사업 추진(예 : 협업전시, 교육 프로그램) – 공립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예 : 정기 만족도 조사 등) – 2025년 문체부 평가인증제 대비 컨설팅 진행(3년 주기, '22년 기실시)
군·구 공립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	• 사업대상 : 관내 군·구 공립박물관 11개 관 중 선정 • 지원금액 : 100,000천 원 이내 • 지원분야 :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박물관 구축, 실감형 콘텐츠 및 체험존 제작 등
인천 공립박물관 활성화 정책 연구	• 박물관 현황 조사·분석 : 인력, 시설, 입지특성, 전시·교육사업, 소장품 등 • 인천형 박물관 평가인증제도 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제도 제안 • 인천시 공립박물관 중장기 활성화 정책 수립 ⇒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2024~2028) 수립 시, 연구결과 반영 • 공립박물관 협의체 구성 및 교류협력 방안 마련

출처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2023.7.)

❖ 인천시 사업 :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

-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관내 공립박물관 활성화를 통해 박물관 문화서비스를 향상하고 시민 문화향유 수요와 기대에 충족하고자 함

〔표 2-7〕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 중 공립박물관 관련 사업

전략	세부사업	사업예산
시민 공감형 문화유산 관리 추진	3 인천시 공립박물관 활성화 □ 추진계획/내용 • (기간) 2024.1.~2024.12. • (사업내용) –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구역 조성 지원을 통한 활성화 지원 – 인천형 평가인증제 시범운영으로 운영 내실화 및 경쟁력 제고 – 인천 공립박물관 활성화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박물관 진흥계획 수립 □ 추진일정 • 인천시 박물관(공·사립·대학) 진흥 시행계획 수립(2024. 5) • 평가인증제 시범 운영 및 군·구 지원사업 추진 완료(2024. 12)	200백만 원 (시비 100, 군·구비 100)

출처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2023.12.)

3.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박물관과 미술관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인천시 역시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근현대문화유산 활용방안 수립 필요

- 인천시는 개항장 일대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므로, 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2024년 9월에 시행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만의 특화된 근현대문화유산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인천 개항장 일대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야 함.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필요함
  -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조례·계획과 연계한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방안 수립 필요

-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립박물관 활성화 종합계획」은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인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공립박물관 활성화 종합계획」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존 박물관, 문화자원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수립함으로써 수도권 최대, 국제적 개항도시로서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구도심 및 내항의 활성화를 이끌 거점 시설의 집적 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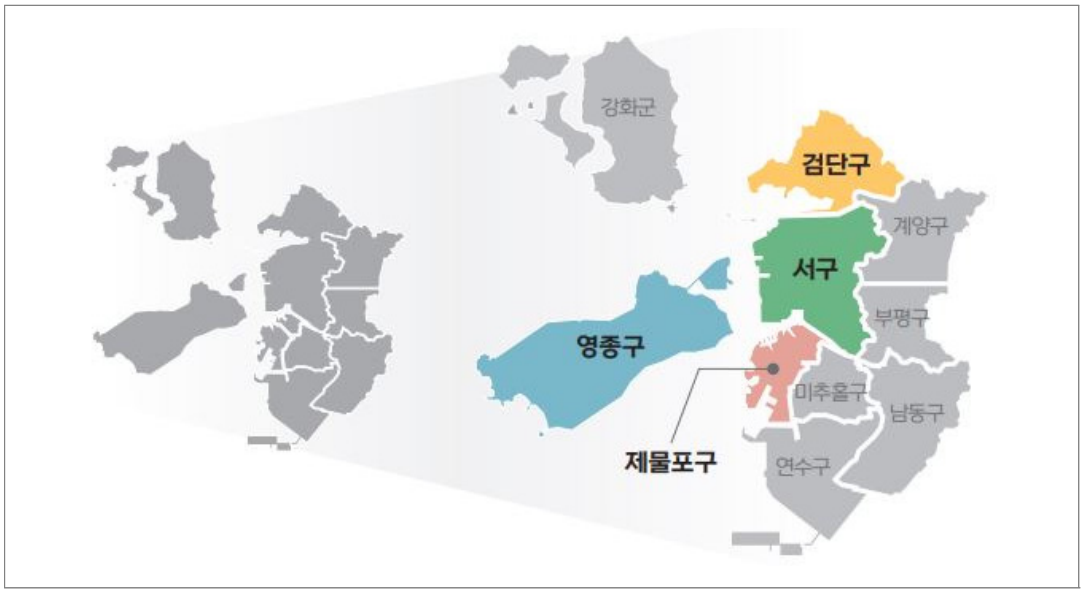
❖ 박물관 질적 성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높은 수준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이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 기준을 향상시키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 인천시 개항장·내항 일대 공립박물관 4개소 중 우수 인증기관은 한국이민사박물관, 한국근대문학관 2개소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살펴보면 인천시 박물관의 경우, 모든 지표가 수도권 및 전국 평균보다 낮음
- 공립박물관의 예산·인력 확대 및 질적 수준을 높일 시스템 마련 등 박물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박물관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및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자원과 스토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앵커 박물관 부재, 박물관의 산재 등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하며 공동협력 체계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응 필요

-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될 예정임. 이로 인해 중구청사의 대안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므로, 이 공간을 활용하여 개항장·내항 일대의 박물관을 통합 운영·연계하는 앵커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1995년부터 이어져 온 2군(郡)·8구(區)의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9구로 개편될 예정임
  - 2024년 1월에 인천 행정구역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중구에서 영종구가 분리되고 서구에서 검단구가 독립하며, 중구와 동구가 합하여 제물포구가 신설됨. 이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구청사의 새로운 용도를 모색해야 함

〔그림 2-3〕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출처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혁신과(2023.9.10.)

❖ 인천시 장기계획 연계 필요

■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등의 장기계획을 추진 중임. 개항장 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은 이러한 계획들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인천 내항(옛 제물포) 및 주변 원도심 지역이 문화·관광·휴식·산업의 융합도시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대 르네상스 목표(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 중 '문화·관광 르네상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8〕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중 문화·관광 르네상스 기본구상

비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출항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제물포		
목표	글로벌 문화·관광 앵커시설 확충	시민에게 열린 친수 문화·관광 기반 구축	역사·문화자원 연계 및 휴양·문화시설 확충
사업	• **오큘러스타워** • **K-ube** • **상상플랫폼**	• **워터프론트** – 바다공원 – 해상 스카이워크 – 센트럴파크 – 3색비치 • **레저공간** – 제물포 레일파크 – 마리나인시티	• **지역문화** – 제물포웨이브 – 바다e지 • **테마관광** – 홀로포트인월미 – 풀문프로젝트 – 미디어아트 • **유휴부지** – 제물포 레일파크 – 루나테일리조트

출처 : 인천광역시(2023.12.).

- 문화·관광 르네상스 기본구상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랜드마크 앵커시설과 관광시설(오큘러스타워, K-ube, 상상플랫폼, 루나테일리조트 등)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인프라 조성사업이 핵심임
- 문화·관광 르네상스 추진사업은 개별 사업 단위로만 계획되고 통합 브랜딩이 미흡하며, 제물포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 간 연계 및 콘텐츠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존에 개항장·내항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시설 및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적인 도시의 브랜드를 구축하며, 시설 자원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풍부하게 채울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그림 2-4〕 문화·관광 르네상스 기본구상도



출처 : 인천광역시(2023.12.).

쟁점 및 이슈

＊중복된 콘텐츠와 노후화 문제

- 문제 : 개항장 일대의 박물관들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가 중복되어 있으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방문객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개항장 지역의 문화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박물관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 이슈 : 콘텐츠의 차별화와 시설 현대화가 시급함. 박물관들이 각기 다른 역사적·문화적 주제를 다루고,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설 개선을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해야 함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응

- 문제 :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중구청사와 같은 공공공간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공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자원이 낭비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이슈 : 기존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박물관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구청사와 같은 공간을 개항도시의 역사적 의미를 살린 박물관으로 재편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개항도시로서의 차별화 전략 필요

- 문제 : 인천 개항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지만, 다른 개항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함. 현재의 문화적 콘텐츠와 관광 자원만으로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슈 : 인천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개항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개항장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또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른 개항도시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개항장 문화지구 재구성과 확장 필요성

- 문제 : 개항장 일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화지구 범위와 구성이 한정적임. 이는 개항장의 역사적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 이슈 : 개항문화지구의 확장과 재구성을 통해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개항장이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문화지구 내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방문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표 2-9〕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실천과제 1-1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클러스터 브랜드 구축
실천과제 1-2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
실천과제 1-3	개항 콘텐츠 차별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
실천과제 1-4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실천과제 1-5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

4. 실천과제

1)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클러스터 브랜드 구축

❖ 필요성

■ 근대 개항도시 이미지 부족 대응

- 인천 개항장의 낮은 인지도 : 인천 개항장은 한국 근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국제 교류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인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전국적인 인지도 측면에서 군산, 목포, 부산 등 다른 개항도시에 비해 낮은 편임. 많은 국민들이 인천을 단순히 대도시, 산업단지, 공항, 항만의 도시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근대 개항도시로서의 역사적 중요성은 잘 알려지지 않음

  • 군산시는 일제강점기 역사의 현장을 보수·복원하여 기억의 '공간'으로 재조명하여 전시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함

  • 이어서 군산시는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는 장미동 일원의 내항 역사문화공간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청이 지원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에도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208억 원을 포함해 총 416억 원 규모로 후속 사업을 추진함(건축공간연구원, 2024.10.17. 검색)

〔표 2-10〕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구분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세부사업명(기간)	
1단계 사업 (2009~2013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건립(2009~2011)	근대문화벨트화 조성(2009~2011)
	근대역사경관 조성(2009~2013)	근대문화재 매입 정비(2008~2011)
	진포해양테마공원(2007~2010)	마을미술프로젝트(2010)
	군산탁류거리(2011~2012)	원도심 자전거 도로 개설(2011~2012)
2단계 사업 (2014년~2019년)	군산항역 복원(2014~2015)	내항 폐철도 활용 기차 테마(2014~2015)
	근대역사 체험공간(2권역)(2014~2019)	원도심 테마거리(2014~2015)
	원도심지역 근대 건축물 정비(2014~2019)	

출처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2024.8.13. 검색) 참조하여 연구자 재정리

  • 목포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비·도비·시비를 매칭해 총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 일대에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임

  • 부산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재생하여 부산근현대역사관 등 문화공간을 조성함

  •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천 개항장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주민들조차 인천

개항장의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인천의 역사적 자산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거나, 관련 콘텐츠가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임

- 역사적 자원의 분산 및 통합적 관리 부재 : 개항장 일대에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으나, 이들 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이 부족하여 종합적인 역사 이미지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개별 박물관과 전시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역사적 자원 간의 시너지 효과가 미미함
  - 이러한 분산된 자원 관리로 인해, 방문객이 개항장의 전체적인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접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브랜드 이미지와 전략 부재 : 인천 개항장을 대표하는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와 전략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에게 일관된 역사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각 박물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개항장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이 부재함
  - 이는 방문객의 관심과 재방문 의욕을 저하시키며 인천 개항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지구로 자리 잡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대한민국 1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필요

-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 증대 : 인천 개항장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국제적 교류의 시작을 상징하는 장소임. 인천 개항을 계기로 다양한 서구 문물과 문화가 유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음.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천 개항장의 문화유산은 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넘어 국가적 유산으로서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출발점인 인천 개항장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음
- 법적·제도적 기반 확보 :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따라 인천 개항장을 대한민국 1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로써 인천 개항장이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가 MOU를 체결함으로써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공식화하고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2-11〕「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의 (제2조)	•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 · 예술적 · 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 - 나. 근현대동산유산 :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 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 등록문화유산을 주변 지역과 함께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예비문화유산 :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
기본원칙 (제3조)	•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를 유지·계승할 것 2.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근현대 문화유산지구 (제33조~제3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 등 지원 -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지역
예비문화유산 (제44조~제49조)	• 예비문화유산 도입 -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에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지원에 대한 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24.9.15. 검색)

- 공신력 확보 및 상징성 강화 : 인천 개항장을 대한민국 1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지역과 국가 차원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됨

  •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서의 지정은 인천 개항장이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이를 통해 인천 개항장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재인식시키고, 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지원체계 마련 : 법적 지정과 더불어 인천시와 기초지자체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와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동법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추진

-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을 근거로 인천 개항장 지역을 '대한민국 1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함. 이는 인천 개항장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이 근대문화유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지정 절차를 통해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고, 국내외에서 역사·문화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강화함. 이 지정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가능해짐

■ 국가유산청과 MOU 체결 및 협약

- 인천광역시와 국가유산청 간 협약(MOU)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공식화하고 공신력을 높임. 협약 내용에는 근대문화유산의 관리 및 운영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됨. 이를 통해 인천 개항장의 상징적 의미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관광지로서의 매력도를 증대시킴. 특히, 국가적 공인을 통해 인천 개항장의 문화유산 지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 법률 제35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천 개항장 일대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함. 이 계획은 문화유산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천 개항장이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함.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전시콘텐츠와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이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체감하도록 함. 민간과 공공 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킴

■ 인천시와 중앙정부 간 협력 강화

- 인천시는 국가유산청과의 협력 외에도 중앙정부의 문화유산 관리 및 지역 균형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과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함. 이를 통해 국비 및 지방비 매칭펀드를 활용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한 사업 지속성을 보장함.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함

❖ 추진단계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클러스터 브랜드 구축	• 국가유산청과 MOU 체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1호 지정 • 초기 브랜드 홍보 캠페인 전개 •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적용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브랜드 확립을 위한 콘텐츠 개발 •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대한민국 대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서 위상 확보 • 브랜드 확장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지속 가능한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 단기(2025~2026년) : 브랜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초기 인지도 확보

- 국가유산청과 MOU 체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1호 지정

  • 사업내용 : 대한민국 1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간 MOU 체결

  • 추진방안 :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가유산청과 협력하여 근현대문화유산지구 1호 지정을 추진

- 초기 브랜드 홍보 캠페인 전개

  • 사업내용 : 인천 개항장이 대한민국 대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서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홍보 캠페인 전개

  • 추진방안 : SNS, 주요 포털 사이트, 지역 미디어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 대한민국 1호 지정을 기념한 특별 이벤트 및 행사 개최

-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적용

  • 사업내용 : 인천 개항장을 상징하는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포함한 브랜드 개발

  • 추진방안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성과 현대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적용, 각종 홍보물, 웹사이트, 간판 등에 통일된 디자인 적용

■ 중기(2027~2030년) :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및 브랜드 확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사업내용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법적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방안 : 법령에 따른 활용계획 수립 완료, 인천시와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브랜드 확립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사업내용 : 박물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와 연계한 상품화 추진

• 추진방안 : 박물관 전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 개항장 특화 기념품, 지역 특산품 등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개, 박물관 통합 패스 강화

-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사업내용 : 브랜드의 국내외 인지도 확립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추진방안 : 국제 관광 박람회 참가, 해외 주요 매체와 협력한 홍보 활동 전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및 안내 책자 제공

■ 장기(2031~2040년) : 대한민국 대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위상 확립 및 지속 가능성 강화

- 대한민국 대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서 위상 확보

• 사업내용 : 인천 개항장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 전개

• 추진방안 :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례행사 개최, 국내외 학술대회 및 포럼 개최를 통한 학술적 기반 강화

- 브랜드 확장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사업내용 : 인천 개항장의 브랜드를 확장해 새로운 콘텐츠와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

• 추진방안 : AR/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상품 기획 및 운영

- 지속 가능한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추진방안 : 정기적인 브랜드 평가와 업데이트, 새로운 문화 트렌드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지속적인 브랜드 혁신 추진

❖ 법제도·추진체계

■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법적 근거 :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을 근거로 추진함. 이 법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인천 개항장 일대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음

- 시행령 및 세부 규정 : 해당 법률의 시행령이 제정된 후, 시행령 조항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따라 추진전략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함. 특히, 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함

■ 지원 조례 제정 및 추진조직 구성

- 지원 조례 제정 :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함. 이 조례는 인천 개항장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함. 조례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활용계획 수립,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함

- 추진조직 구성 : 조례 제정을 통해 (가칭) 인천개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함. 이 조직은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청, 관련 기초자치단체, 문화유산 전문가, 지역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 운영 관리, 문화행사 기획 등을 총괄함

■ 협력 및 관리체계 구축

- 협력체계 : 국가유산청, 인천광역시, 관련 기초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과 활용계획 수립을 원활하게 추진함. 또한, 지역주민, 상인회, 문화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함

- 관리체계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 관리체계는 문화유산 보존,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관리, 운영조직 관리,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등을 포함함.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 예산 및 재정 지원 체계

- 국비 및 시비·구비 확보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과 활용을 위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를 통해 확보함. 국가유산청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인천광역시는 시비를 통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중구(추후 제물포구)의 예산도 확보하여 활용함. 특히, 법률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함

- 민간 투자 유치 : 공공 예산 외에도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을 지원함. 민간 기업과의 협력으로 박물관, 문화시설, 관광 인프라 등의 투자와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 기대효과

- 인천의 역사·문화적 위상 강화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통해 인천은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게 됨. 이는 개항도시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역사문화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함

  -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인천의 역사적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며,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여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촉진함

-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여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들이 재방문할 가능성을 높임

  - 인천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특화된 콘텐츠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이를 통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임.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특히, 문화산업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체계적 유산 보존 및 활용

  - 법적 기반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통해, 인천 개항장의 역사적 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됨. 이를 통해 유물 보존과 문화유산의 교육적 가치가 확대되고, 디지털 전시 기술을 통한 다양한 전시 방식이 관람객의 참여형 경험을 제공하여 역사적 이해도를 높임

- 글로벌 학술교류 및 연구 거점 강화

  - 인천이 국가 공인 1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면 동아시아 및 세계사적 관점에서 국제 학술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연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인천이 동북아 역사문화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국제적 연구 및 교육 허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시민 자긍심 증대

  - 박물관 클러스터는 인천시민들에게 역사적 자부심을 심어주고 시민들이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를 통해 다양한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함

❖ 관련 사례

※ 전라북도 군산시 :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박물관벨트화지역

- 군산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항구도시로, 당시의 근대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음. 군산시는 이러한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근대문화벨트화지역'과 '근대역사경관지역'을 조성함
- 근대문화벨트화지역 : 근대역사박물관 건립, 군산항역 복원, 폐철도 활용 기차 테마, 예술창작공간 조성(조선은행, 일본제18은행) 등
- 근대역사경관지역 : 근대역사 체험공간, 경관로, 탁류길, 자전거도로, 테마거리 등 조성, 원도심 지역 근대건축물 정비
- 박물관벨트화지역은 근대문화벨트화사업을 통해 조선은행, 일본 제18은행, 미즈상사, 대한통운창고 등 5개의 근대 건축물을 원형 복원하고, 내부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대문화 테마거리로 조성함
- 군산근대박물관 및 박물관벨트화지역 시설은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박물관관리과에서 통합 운영함. 박물관 외 8개 시설의 통합운영을 통해 군산 관광의 중심축 역할을 함
- 군산의 사례는 인천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로, 법적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시스템과 관광 자원화가 핵심임



군산 박물관벨트화지역

출처 : 군산문화관광 홈페이지(2024.8.20. 검색)

※ 일본 요코하마 : 미나토미라이21 지구

- 개요 :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개항도시 중 하나로, 요코하마시 니시구와 니카구에 만들어진 계획도시인 미나토미라이21(みなとみらい21, MinatoMirai21) 지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요코하마의 역사적 개항지와 근대 산업유산을 재해석하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정비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임. 이 지구는 요코하마의 근대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도시기능과 문화시설을 결합한 복합 문화관광지로 발전함
- 역사적 배경 : 1859년 개항 이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폭격 등의 전쟁 후유증과 미군 주둔으로 도시 재정비의 기회를 갖지 못함. 이후 수도 도쿄의 거대화로 인해 도쿄로의 도시기능 집중, 상업적 기반 약화, 베드타운화, 조선소·창고·부두로 인한 도시 양분, 도심부와 인접한 항만 지역의 항만 기능 쇠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6대 사업'을 발표함. 그중 '도심부 강화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이 제안됨
- 법적 기반 : 요코하마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아래 도시계획법과 역사적 건축물 보존법 등을 활용하여 미나토미라이21 지구를 개발함.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구역의 지속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조성 기본협정'과 '미나토미라이21 거리(가로)조성 기본협정'이 제정되었고, 도시경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추진조직 :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공공부문이 기반시설 건설을, 민간부문이 각각의 건물 건설을 담당하고 개발을 주도하는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이 양자 간을 조정하고, 민간 부문에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현재는 사단법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이 역할을 계승하여 지역 매니지먼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 활용 방식 : 미나토미라이21 지구는 근대 건축물과 현대적 랜드마크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관광객들에게 요코하마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회의장, 쇼핑몰, 예술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함
- 유사성 :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지구는 인천 개항장과 유사하게 역사적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도시브랜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가나가와 현립 역사박물관,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 요코하마 미술관, 미쓰비시 미나토미라이 기술관, 가나가와 예술극장, 요코하마 랜드마크타워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밀집함
- 시사점 : 요코하마의 사례는 인천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조성할 때 역사와 현대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줌. 특히,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결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효과적임을 시사함



1980년 사업 착수 전 모습



미나토미라이21 지구 전경



아카렌가(붉은벽돌) 창고



아카렌가(붉은벽돌) 창고 내부 모습

출처 : みなとみらい エリアマネジメント 홈페이지(2024.8.26. 검색); 横濱市 홈페이지(2024.8.26. 검색); みなとみらい21 홈페이지(2024.8.28. 검색)

2)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

❖ 필요성

■ 개항 관련 앵커 박물관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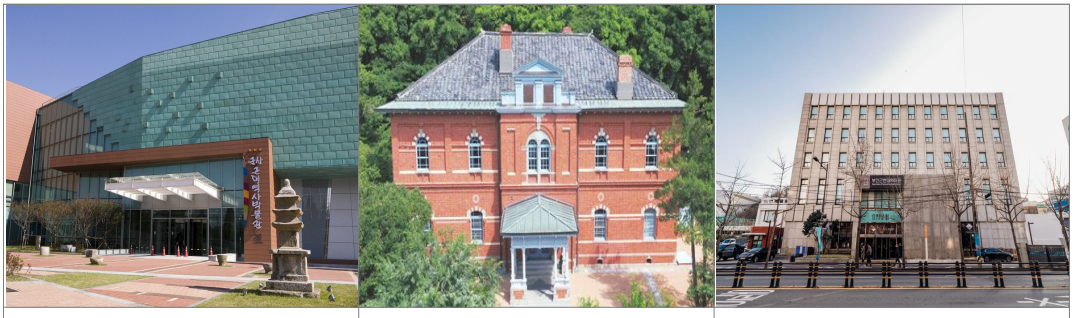
- 인천 개항장 일대에는 다양한 개항 관련 역사유산이 존재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보존하는 앵커 박물관이 부족함. 군산, 목포, 부산 등과 같은 타 개항도시에 비해 상징적인 인천의 개항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박물관 설립이 필요함

  • 군산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앵커시설로 하여 근산근대미술관, 군산근대건축관이 밀집한 박물관벨트화지역을 운영하고 있음. 박물관벨트화지역은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약 15,000㎡ 지역으로 근대산업유산인 (구)조선은행 군산지점(現 군산근대건축관), (구)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現 군산근대미술관), (구)군산세관 본관건물(現 호남관세박물관) 등이 소재함

  • 목포시에는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구 일본영사관(국가사적 제289호)이었던 1관과 조선농민 수탈기관이자 식민정책 선봉기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라남도 기념물 제174호)인 2관으로 이루어진 목포근대역사관이 있음. 목포근대역사관 1관은 조선시대 수군 진영이었던 목포진의 역사로 시작하여 근대역사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2관은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일제침략사와 독립운동 사료를 전시함

  • 부산시는 지역 근현대사 보존 및 원도심 문화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부산근대역사관(옛 동양척식회사 부산지점/부산미국문화원)을 통합해 '부산근현대역사관'을 개관함. 부산근현대역사관은 본관과 별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본관은 복합문화공간, 별관은 인문학 거점 공간으로 구성함

〔그림 2-5〕 군산·목포·부산의 근현대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목포근대역사관 1관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출처 : 군산문화관광 홈페이지(2024.8.20. 검색); 대한민국역사박물관(2024.10.14.), 부산근현대역사관 홈페이지(2024.6.24. 검색)

■ 국제적 경쟁력 확보 필요

- 인천은 대한민국의 대표 개항도시로서 19세기 말 개항 이후 서양과의 교류를 본격화한 역사적 현장이며, 이러한 개항의 역사적 의미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임. 하지만 현재 인천 개항장의 국제적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항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세계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의 설립이 필수적임. 이 박물관은 인천이 단순한 국내 관광지가 아닌, 아시아와 서구 문명 간 역사적 교류의 중심지임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임
-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전시 기획, 실감형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통해 국제 관람객을 위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야 함. 이를 통해 글로벌 관람객을 유치하고, 국제적 행사나 학술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인천을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음. 특히, 국제 교류의 중심지였던 개항장의 특성을 반영한 다국어 서비스 및 외국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공인 박물관의 필요성

- 국가적으로 공인된 박물관 설립은 인천 개항장의 역사적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임. 개항도시 박물관이 국가의 공식 지원을 받음으로써 인천의 문화유산은 국가적 보호를 받게 되고 그 가치는 더욱 인정받을 수 있음
- 국가대표급 박물관을 통해 인천 개항장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그리고 당시의 국제적 배경을 다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이 인천의 역사적 역할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콘텐츠는 교육적 가치가 높아, 국내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역사 교과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가 공인 박물관은 또한 인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의 문화적 자산을 학문적·교육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 이와 더불어 국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글로벌 전시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을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이러한 박물관 설립은 단순히 전시를 넘어 국민들에게 국가적 자부심을 심어주고, 인천 개항장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주요 내용

■ 중구청사 활용 개항도시박물관 설립

- 2026년 제물포구청 신설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중구청사(국가등록문화재 제249호, 구 인천부청사)[3]를 리모델링하여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으로 재편함
- 개항과 관련된 전시 및 체험공간, 자료 아카이브 및 연구, 콘텐츠 개발 기능을 지닌 (가칭)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인천근현대문화예술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로 구성함

〔그림 2-6〕 인천광역시 중구청사 배치도



출처 : 인천 중구 공식블로그(2024.10.14. 검색)

- 인천근현대문화예술박물관은 인천을 배경으로 한 미술, 영화, 문학, 음악, 대중가요 등을 콘텐츠로 하여 인천의 근현대역사와 함께 문화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박물관임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국립 또는 시립 개항도시 박물관'으로 설립 추진
- 인천을 비롯한 부산, 목포, 군산, 원산 등 국내 5개 개항도시와 함께 요코하마, 톈진 등 아시아 개항도시 관련 콘텐츠를 총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확고한 위상을 갖춤

■ 전시 및 콘텐츠 구성

- 개항도시박물관은 개항 관련 전시물, 체험형 콘텐츠,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는 공간을 마련함. 또한, 개항기 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실감 나는 역사 체험을 제공함

3) 현 시점에서 중구청사 공간을 인천시가 확보하지 않았고, 2026년에 즉시 제물포구청이 신설되어 중구청이 이전할지 불확실하므로, 제물포구 신설 및 행정 기능 이전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부지 확보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대상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개항장 지역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른 부지를 고려한 대체 계획을 준비함

- 개항도시박물관은 인천 개항장의 역사적 중요성을 담은 전시물과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개항기의 역사적 사건과 그 시대적 배경을 생생하게 전달함. 개항 시기를 상징하는 각종 유물, 문서, 사진 자료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과 국제적 교류의 흔적을 담은 다양한 전시물도 포함함. 이를 통해 관람객이 개항기의 인천이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체험형 콘텐츠로는 AR/VR 기술을 활용한 가상 역사 투어와 실감형 전시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당시 개항장의 모습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함. 전통적인 전시와는 다른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역사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가상으로 개항기 인천항의 풍경을 돌아보고, 당시의 국제적 교류 과정을 실시간으로 재현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실감 나는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박물관은 교육 및 연구 기능도 강화하여 개항기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학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전시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 또한, 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역사적 지식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학문적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박물관 클러스터와 연계

- 개항도시박물관은 중구청 인근 근대 개항기 건축물,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박물관 클러스터의 앵커시설 역할을 하며, 지역 전체의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둠. 이를 바탕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 개항도시박물관은 인천 중구청 인근에 위치한 근대 개항기 건축물 및 다양한 박물관과 연계하여 박물관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 특히, 짜장면박물관, 인천개항박물관, 한국근대문학관 등 인근의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개별 박물관들이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인천 개항기의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도록 함. 이를 통해 박물관 간 협력 전시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며, 관람객이 지역의 전체 문화유산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람 동선을 제공함
- 박물관 클러스터 내에서 개항도시박물관은 앵커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각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총괄하는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함. 개항장의 역사적 건축물과 박물관 사이의 문화적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해당 유산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함. 이를 위해 박물관 주변 지역을 '근대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역사적 건물들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함

- 또한, 박물관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클러스터 내 박물관들과 협력하여 주기적인 특별전시, 역사 투어 프로그램, 야외 전시 및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둠

❖ 추진단계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	•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중구청사 리모델링 계획 구체화 • 박물관 콘텐츠 연구 및 유물 수집	•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 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유물 정리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개항도시박물관 개관	• 국내외 프로모션 및 교류 확대 • 정기적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 운영 및 콘텐츠 지속 관리

■ 단기(2025~2026년) : 박물관 설립의 기초 기반 마련 및 계획 수립

-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내용 :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향후 개항도시박물관을 포함한 개항장 문화지구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 단계부터 '국립 또는 시립 개항도시박물관'으로 설립 추진

  • 추진방안 : 전문 기관 및 학계와 협력하여 타당성 조사 연구 수행, 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상 비용 및 재정 지원 방안 모색

- 중구청사 리모델링 계획 구체화

  • 사업내용 : 2026년 제물포구청 신설에 따라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구청사를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추진방안 : 건축사 및 역사 전문가와 협력하여 리모델링 설계안 마련, 중구청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며 현대적 박물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 박물관 콘텐츠 연구 및 유물 수집

  • 사업내용 : 박물관의 핵심 콘텐츠 구성을 위한 연구와 유물 수집 활동 시작

  • 추진방안 : 국내외 개항도시와 관련된 유물·자료 수집 계획 수립, 학술적 연구와 현지답사를 통해 콘텐츠의 역사적·문화적 타당성 확보

■ 중기(2027~2030년) : 박물관 설립 및 콘텐츠 구축

-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 사업내용 : 중구청사를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내부 공사 진행

  • 추진방안 :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역사적 건축물의 외관 보존 및 박물관 기능 강화, 전시 공간 및 아카이브센터 조성, 관람객 동선 최적화를 위한 인테리어 디자인 적용

- 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유물 정리

  • 사업내용 : 박물관 전시콘텐츠와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수집된 유물의 정리 및 전시 준비

  • 추진방안 : 전시 기획 전문가와 협력하여 콘텐츠의 시각적 효과와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시 구성, 수집 유물의 보존 상태 점검 및 전시 계획 수립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사업내용 :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추진방안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박물관 홍보 캠페인, 국내외 박물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 추진, 박물관 개관 기념 이벤트 기획, 개항장 박물관 패스 사업 강화

■ 장기(2031~2040년) : 국가대표급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및 지속적 발전

- 국내외 프로모션 및 교류 확대

  • 사업내용 : 국가대표급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국내외 홍보와 교류 활동 확대

  • 추진방안 : 국제박물관협회(ICOM) 등과 협력하여 박물관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프로모션 진행, 해외 개항도시박물관과의 정기적 교류 및 공동 전시 기획

- 정기적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박물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안 : 개항장 문화유산야행 등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연계한 정기적 전시와 이벤트 개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가유산청·인천시·제물포구(현 중구) 공동 주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표 행사 개최

- 박물관 운영 및 콘텐츠 지속 관리

  • 사업내용 : 박물관의 장기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및 콘텐츠 지속적 업데이트

  • 추진방안 : 운영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시대 흐름에 맞는 콘텐츠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신규 콘텐츠 개발

❖ 법제도·추진체계

■ 법적 기반 마련

-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함. 이 법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개항도시박물관의 설립 또한 이 법에 근거하여 추진함
- 해당 법률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방안을 명시하고 있어, 인천 개항장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국민과 국제 관람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이를 통해 개항도시박물관 운영의 기준, 관리 책임, 유산 활용 방안이 명확히 규정되며,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운영이 가능함

■ 추진조직 구성

- 인천광역시 내에 개항장 박물관 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함. 추진단은 인천시, 인천 중구, 인천문화재단, 국가유산청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하며, 법적·행정적 지원을 전담함. 또한, 유관기관 및 지역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박물관 설립 과정을 추진함
- 추진단은 박물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예산 확보, 공사 진행을 조율하며, 박물관 운영 초기에는 실무적 지원과 더불어 프로그램 기획,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클러스터 내 다른 박물관들과의 연계 사업 및 문화유산 보호·활용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내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함

■ 관련 조례 제정

- 개항도시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와 중구(제물포구)를 비롯한 관련 기초자치단체가 박물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 조례는 박물관 설립 절차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천시와 국가유산청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함
- 조례에는 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인력 배치, 시설 관리 등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하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박물관 운영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함.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자율적인 박물관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기대효과

■ 시너지 효과 창출

-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은 국립해양박물관, 교육박물관(남부교육지원청 부지 건립 예정) 등 인천 내 주요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해양 및 개항 관련 콘텐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이러한 연계는 인천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박물관 클러스터 내 다양한 소규모 박물관들과도 협력하여 인천의 역사, 문화예술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임
- 박물관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천의 역사적 가치가 극대화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 국가대표 개항도시로서의 위상 확보

- 개항도시박물관은 인천 개항장을 상징하는 핵심 랜드마크로서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크게 증대시킬 것임. 이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인천의 근대사와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널리 알리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이를 통해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항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 문화관광 활성화

- 개항도시박물관은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 자리 잡아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임
- 관광객들은 개항장의 역사적 배경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교육 및 연구 활성화

- 개항도시박물관은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개항기 역사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임. 박물관은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학술 세미나를 통해 인천의 근대사에 대한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와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임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인천의 역사적 중요성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또한, 인천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문화유산 보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관련 사례

※ 국내 개항도시의 근대 관련 박물관 및 서울공예박물관

- 국내 개항도시인 목포, 부산, 군산 등은 근대 건축물을 활용하여 도시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근대 관련 박물관을 건립함



목포근대역사1관 전경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부산근현대역사관



서울공예박물관

구분	내용
목포근대역사1관	• 목포 일본영사관 건물 활용하여 개관. 1900년 12월에 완공된 건물로 영사관, 목포이사청, 목포부청사 등으로 활용되었다가 해방 후 목포시청, 목포시립도서관, 목포문화원으로 활용 • 목포의 근대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나 개항 콘텐츠 부족
부산근현대 역사관	• 부산의 근현대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로, 부산의 정체성을 알리는 역사관으로서의 역할 • 별관은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건물 활용하여 2003년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개관, 2021년 6월 휴관 후 2023년 3월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으로 재개관 •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 활용하여 2024년 1월 부산 근현대역사관 본관 개관
서울공예박물관	• 옛 풍문여고 건물과 부지를 활용하고 리모델링 하여 서울공예박물관으로 개관 • 전시관, 시민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카페 등의 시설로 활용(사진은 박물관 전경 및 도서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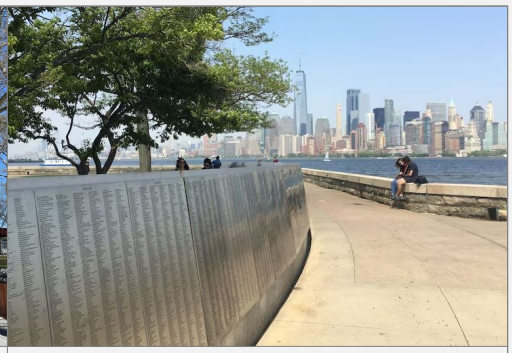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2024.4.10. 검색); 부산시청 홈페이지(2024.6.24. 검색); 서울공예박물관 연구자 직접 촬영

※ 미국 뉴욕의 국립이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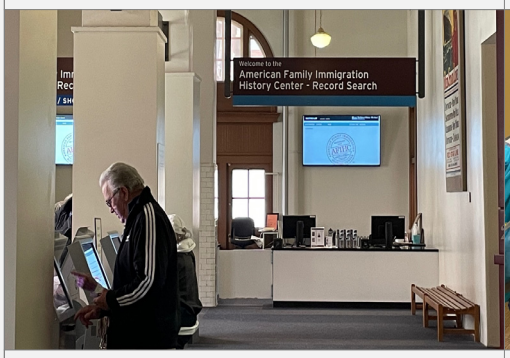
- 미국은 1892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던 이민자들이 입국심사를 받던 곳인 엘리스 섬(Ellis Island)의 이민자 이주 등록기관을 개조하여 국립이민박물관(Ellis Island National Museum of Immigration)으로 조성함. 해당 건물은 1965년에 국보로 지정됨



국립이민박물관 전경



박물관 외부 명예의 벽(Wall of Honor)



1층 미국가족이민사센터



2층 오디오가이드 활용 스토리텔링 전시

구분	내용
1층 가족사센터 (Family History Center)	• 약 6,500만 개의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도 및 이민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음. 승객의 이름, 나이, 도착 날짜, 선박 이름, 국적, 생년월일, 직업, 마지막 해외 거주지, 최종 목적지 등 확인 가능 • 엘리스 섬 이민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한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함. 승객, 가족, 이민국 공무원, 군인, 억류자 및 전직 섬 직원 등 2,000건의 인터뷰를 기록함. 이러한 기록은 온라인 및 3층 밥 호프 기념 도서관(Bob Hope Memorial Library)에서 확인 가능
2~3층 전시공간	• 2층 : 1892~1924년까지 미국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던 엘리스섬의 이민자 등록기관의 역사 및 이민자 관련 스토리텔링형 전시 • 3층 : 이민자들의 소장품 전시공간, 밥 호프 기념 도서관, 엘리스섬 연대기 전시관
명예의 벽 (Wall of Honor)	• 높이 1.5m 길이 200m의 원형으로 세워져 있으며 약 50만 명의 이민자 이름이 개인과 가족 단위로 새겨져 있음. 1993년 이전 이민자와 1993~1995년 이민자, 1995~1998년 이민자 등 세 그룹으로 구분되며, 엘리스 아일랜드 재단이 일정한 기금을 받고 원하는 이민자들의 이름을 새겨줌. 키오스크에서도 명예의 벽에 새겨진 이름을 찾아볼 수 있음

출처 : 연구자 직접 촬영(2024.4.16.)

※ 체험형 생활사박물관 주택박물관(Tenement Museum)

-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주택박물관은 5층 주택으로 이루어져 19세기 이민자들의 실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체험형 이민사 및 생활사박물관임



주택박물관 전경



연대별·주제별 프로그램



이민자 거주공간



가이드 투어

구분	내용
개요	• 차이나타운과 리틀 이탈리아가 인접해 있는 로어 이스트(Lower East)는 가난한 노동계층 이민자들이 정착해 살던 곳으로, 186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전 세계 20개국에서 몰려든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함. 그러나 1930년대에 건물이 유휴공간이 된 이후 1988년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온 덕택에 20세기 초반의 생활상을 간직하게 됨 • 1988년 루스 아브람과 아니타 제이콥슨이 로어 이스트사이드 주택박물관을 세웠고, 당시의 생활용품을 배치해 두어 이민자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함 • 박물관의 개별 관람은 불가능하고 가이드 그룹투어만 가능하며, 가이드 투어는 주제별로 1시간~1시간 반 정도 소요됨 • 그룹투어 외에도 북토크, 학술토론, 커뮤니티 행사 등의 프로그램과 학생 대상 학교 방문 프로그램, VR 체험, 미국 이민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가족사/개인사 관련 아카이빙, 디지털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시사점	• (거주공간과 실존인물을 스토리텔링한 체험형 이민사 박물관) 1930년대 이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온 이민자 공동주택을 보존하고, 후손이 기증한 유물과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가구를 배치한 후, 역사적 기록(부동산 문서, 거주자 관련 문서, 사진 등)을 토대로 당시 이주자들의 생활사를 유추하는 체험형 교육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함 • 단순 기록물 전시와 달리, 방문자가 주제별로 시대와 공간을 선택하여 가이드와 함께 공간을 방문하고 공간에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몰입형 교육과 체험이 가능함

출처 : 연구자 직접 촬영(2024.4.16.)

❖ 추진입지

■ 중구청사 활용을 통한 개항도시박물관 설립

- 202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사의 본관, 별관, 월디관, 중구의회 건물,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등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야 함. 이러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개항도시박물관 : 중구청사 본관 및 별관은 개항도시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개항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을 전시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요 전시공간으로 재구성함. 월디관은 다목적홀로 활용하여, 박물관의 주요 행사, 강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함

  • (가칭)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 중구청 어린이집 공간은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로 개조하여, 인천 개항장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보관,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함. 이 센터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와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가칭) 인천근현대문화예술박물관 : 박물관의 또 다른 핵심 공간으로, 중구의회 건물을 활용해 인천의 근현대 문화와 예술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관을 설립함. 이 박물관은 인천의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근현대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의 발전을 도모함

■ 타당성 조사 및 최종 위치 확정

- 타당성 조사 : 박물관 설립의 최적 위치와 설계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이 조사는 공간의 역사적 가치, 접근성, 관광객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구청사 본청, 별관, 월디관, 중구의회 건물,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등의 공간이 박물관 설립에 적합한지를 검토함

- 최종 위치 확정 및 리모델링 추진 :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위치가 확정되면, 설계 및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함. 이 과정에서 박물관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현대적 편의시설과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함

■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개항도시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연구와 교육, 문화행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함. 이를 통해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공간으로 자리 잡음

〔그림 2-7〕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 설립 입지(안)



3) 개항 콘텐츠 차별화 및 산업 활성화

❖ 필요성

■ 콘텐츠 집적 및 활용의 부족

- 인천 개항장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와 콘텐츠는 아직 체계적으로 집적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및 활용의 기회도 부족한 상황임. 개항기의 중요한 자료들이 제대로 수집되고 보존되지 않으면 인천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부족은 개항도시로서의 인천 정체성 강화에 한계를 초래하고 타 도시와의 차별성 부각도 어렵게 함. 따라서 개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및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연구하여 인천의 개항기 역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 필요성

-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항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개항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개항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해야 함. 개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지속적 수집 및 축적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연구해야 함

- 특히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 역사 체험, 3D 복원을 통한 개항 당시의 모습 재현, 실감형 디지털 전시 등을 통해 인천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이처럼 차별화된 콘텐츠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인천 개항장의 독창적인 매력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유관 산업 활성화와 연계 필요

- 개항 콘텐츠의 차별화는 단순히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함. 개항과 관련된 콘텐츠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3D 복원 기술을 활용한 가상 체험 콘텐츠 개발, 역사적 재현을 바탕으로 한 영화나 게임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함

- 특히, 관광·문화 산업과의 연계는 박물관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수적임. 체험형 콘텐츠와 관광 상품 개발,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강화 등은 관광객들의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주요 내용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설립

- 개항도시박물관과 연계하여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를 설립하고, 시민 문화유산 기증 캠페인 등을 통해 개항 관련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함. 개항 관련 콘텐츠를 집적하여 연구자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등 학술연구와 디지털 자료 제공 서비스를 활성화함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는 개항 관련 문헌, 이미지, 유물,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해 온라인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자, 학생, 일반 대중이 개항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카이브센터는 개항도시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지원하며, 정기적인 연구 발표회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함. 또한,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킴
-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아카이브센터는 개항기 시대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에게 실감 나는 역사 체험을 제공함. 예를 들어, 디지털 복원을 통해 개항장 거리를 걷는 체험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3D 홀로그램 및 디지털 복원 기술 활용

- AI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개항 관련 콘텐츠의 3D 홀로그램을 구축하고, 증강현실(AR)을 활용하여 실감 나는 개항장 거리의 디지털 복원을 실현함. 이를 통해 개항기 시대의 역사적 공간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기업 및 전시 기획자들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콘텐츠 혁신과 자생력을 확보함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연구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에서는 개항도시와 관련된 콘텐츠를 연구하고 축적함과 동시에 인천뿐만 아니라 한국 및 동아시아 개항도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깊이를 더함. 또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항도시로서 시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문화적 기반을 확장함

■ 문화산업 연계 및 클러스터 형성

-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3D 복원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천을 첨단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클러스터로 발전시킴. 특히, 관련 기업과 전시 기획자들이 인천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적인 콘텐츠 혁신과 자생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

❖ 추진단계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개항 콘텐츠 차별화와 산업 활성화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 기초 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 관련 전문가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개관 •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전시 기획 • 인천 문화예술아카이브 연계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중심의 산업 거점 구축 • 글로벌 개항기 콘텐츠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 단기(2025~2026년)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 사업내용 : 개항도시박물관과 연계된 아카이브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방안 : 기본계획에 아카이브센터 운영 방안, 관련 산업 유치 및 활성화 전략, 지원체계 등을 포함
- 기초 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 사업내용 : 개항기와 관련된 문헌, 이미지, 자료, 박물 등의 수집 및 디지털화
  - 추진방안 : 대학, 연구기관, 역사 전문가와 협력하여 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관련 전문가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개항기 콘텐츠와 관련된 연구자, 전시 기획자, 디지털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 추진방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 중기(2027~2030년)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개관 및 콘텐츠 산업화 추진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개관
  - 사업내용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의 정식 개관 및 운영 시작
  - 추진방안 : 개항도시박물관 설립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서 아카이브센터 개관, 콘텐츠 수집 및 전시 기획 추진
-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전시 기획
  - 사업내용 : 3D 디지털 복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반의 개항기 콘텐츠 개발 및 전시 기획
  - 추진방안 : 전문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감형 전시콘텐츠 제작
- 인천 문화예술아카이브 연계
  - 사업내용 : 인천 문화예술아카이브(인천문화재단)와 연계하여 개항기 콘텐츠의 수집 및 보존
  - 추진방안 : 인천근현대문화예술박물관 콘텐츠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 장기(2031~2040년)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중심의 산업 거점화 및 글로벌화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중심의 산업 거점 구축
  - 사업내용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거점 조성
  - 추진방안 :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활용 전시기술업체 유치 및 관련 산업 기반 조성

- 글로벌 개항기 콘텐츠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동아시아 개항도시와의 콘텐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안 : 개항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국제 포럼 개최 및 공동 전시 프로젝트 추진
-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 개항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 추진방안 : 콘텐츠 혁신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제도·추진체계

■ 법적 기반 마련

-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설립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추진함. 이 법률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를 통해 인천 개항장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유지·관리될 수 있음
- 법적 기반을 통해 아카이브센터 설립 및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함. 디지털 아카이브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디지털화된 자료와 콘텐츠는 연구자와 일반 대중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됨. 이를 통해 인천 개항장과 관련된 자료들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교육·연구·관광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추진조직 구성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및 콘텐츠산업팀이 중심이 되어 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추진조직을 구성함. 이 조직은 콘텐츠 수집, 디지털화, 산업 연계 등 개항 콘텐츠의 차별화와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됨. 특히, 지역 내 창의적이고 기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모색함
- 추진조직은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다학제적 팀으로 구성하며, 역사 콘텐츠 전문가, 디지털 아카이브 전문가, IT 기술 전문가, 관광산업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인천 개항장 관련 자료 수집, 디지털 콘텐츠 제작, 3D 복원 작업 등을 추진함. 해당 조직은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여 지역 기업들이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함

■ 관련 조례 제정

-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개항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여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확보함. 이 조례는 개항기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3D 복원사업과 같은 현대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함
- 조례에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3D 복원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함

❖ 기대효과

■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 개항 관련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여 인천의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 및 전시 기획자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속적인 콘텐츠 혁신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인천이 콘텐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차별화된 콘텐츠 파워 확보

-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천 개항장은 다른 개항도시와 차별화된 강력한 콘텐츠 파워를 확보할 수 있음
- 이는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국가적·국제적으로 인천 개항장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관람객 유인 및 관광지로서 성장

-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와 차별화된 볼거리는 관람객 유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임
- 이를 통해 인천 개항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로 성장하며,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국가대표 개항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 인천 개항장은 개항 콘텐츠의 집성 및 차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항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될 것임
- 이는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인천이 국가적·국제적 문화유산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관련 사례

※ 국립무형유산원 디지털 아카이브와 부산 영상 복원 사례

- 국립무형유산원 디지털 아카이브 및 실감형 콘텐츠 활용 전시·체험 : 국립무형유산원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무형유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공연, 전시, 교육 관련 자료, 학술조사 연구 자료, 기록화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생산·수집·보존·관리하고 전시·체험에 활용
- 개항장 부산항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컬러 복원하여 영상화(콘텐츠 진흥원, KBS)
- 중국 산둥성 지난시의 산둥박물관은 전통 유물 전시 외에도 최신 디지털 기술과 관람객 참여형 전시 기법을 도입하여 현대적인 박물관으로 변모함.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체험존 등을 활용해 전시물을 스토리텔링화하고 관람객이 유물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함



국립무형유산원 상설전시실1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일제강점기 부산우편국의 복원 모습



산둥박물관 미디어전시관

출처 :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2024.8.23. 검색); KBS부산(2024.2.27.); 연구자 직접 촬영(2024.10.22.)

❖ 추진입지

■ (가칭)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는 202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중구청사 부지 내에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중구의회 건물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함. 이 건물은 독립적인 출입구와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별도의 박물관 또는 아카이브 기능을 갖춘 문화시설로 활용하기에 적합함. 향후 건물의 위치와 크기, 접근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위치를 확정하도록 함

- 설계 및 리모델링 계획 :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는 기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 공간을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구 시설, 자료 보관소, 교육 및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개항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연구자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함.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개항장 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림 2-8〕 (가칭) 개항도시 아카이브센터 설립 입지(안)



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2024.8.14. 검색)



4)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네트워크 구축

❖ 필요성

■ 개항장 일대 박물관 협력체계 부족

- 현재 인천 개항장 일대에는 다양한 민간 및 공공 박물관과 전시관이 산재해 있지만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부재하여 각 박물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 결과, 공동 프로그램이나 통합된 홍보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박물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방문객 유치 전략 또한 통합되지 않아 각 기관의 운영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이러한 협력 부재는 박물관 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개별적으로 관람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함

■ 정보 공유와 공동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

- 개별 박물관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유사한 테마의 프로그램들이 각자 운영됨에 따라 콘텐츠 중복이 발생하며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또한 제한적임.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박물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간 통합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박물관 간 차별화된 콘텐츠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음. 박물관 간 협력으로 공동 전시나 통합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통합된 티켓팅 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람객들이 여러 박물관을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이러한 전략을 통해 박물관 각각의 개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전체의 박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킬 수 있음

■ 박물관 클러스터로서의 위상 제고

- 박물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천 개항장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개항도시 박물관 클러스터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통합된 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박물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 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인천 개항장의 역사적 가치를 더 강력하게 부각시킬 수 있음
- 박물관 클러스터의 형성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인천의 역사적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방문객들이 한 번에 여러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는 클러스터형 관광 모델을 도입하거나 다양한 문화행사 및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가칭) '개항장 박물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개항장 일대의 다양한 박물관과 전시관들이 참여하는 (가칭) '개항장 박물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 공유, 공동 프로그램 운영, 공동 홍보 전략 수립 등을 진행함. 이를 통해 박물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다 일관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함
  -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운영협의회를 통해 공동 전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함. 특히,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이 각 박물관의 위치와 프로그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각 박물관의 방문율을 증가시킴
  -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야행 프로그램 확장 : 현재 운영 중인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야행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운영협의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 특별 전시회, 공동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 이를 통해 야간 관광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
- 운영협의회 사무국 지정 및 예산 지원 : 운영협의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국을 지정하여 운영의 중심을 마련함. 사무국은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각 박물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함
  - 사무국 지정 방안 : 별도의 사무국을 신설하지 않고 인천중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또는 앵커 박물관 조직을 활용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 프로젝트 예산 지원 : 사무국과 운영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 특히,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디지털 플랫폼 운영, 야간 프로그램 확장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여 운영협의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함
- 홍보 및 방문객 유치 전략 강화 : 운영협의회를 통해 개항장 박물관 클러스터의 통합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들이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 방문객들이 한 곳에서 모든 박물관의 정보를 얻고, 효율적으로 방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함
  - 공동 방문객 유치 전략 개발 : 박물관 간의 협력으로 공동 방문객 유치 전략을 개발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 패키지 투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함.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추진단계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네트워크 구축	• (가칭) 인천광역시 개항장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개항장 박물관 운영협의회 구성 준비 • 공동 홍보 및 안내 시스템 기획	• 개항장 박물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시범 운영 •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플랫폼 구축 • 인천개항장문화유산야행 확대	• 개항장문화유산야행 축제의 근대문화유산축제로 격상 • 특별 협력기획전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지속 가능한 운영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확장

■ 단기(2025~2026년) : 법적 기반 마련 및 운영협의회 구성 준비

- (가칭) 인천광역시 개항장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사업내용 : 개항장 내 박물관들의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추진방안 : 관련 법령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박물관 클러스터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후 사업 진행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구체화함

- 개항장 박물관 운영협의회 구성 준비

  • 사업내용 : 개별 박물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준비

  • 추진방안 : 참여 박물관 리스트업 및 운영협의회 참여 의향 조사를 진행하고, 협의회의 역할과 구성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기관 및 박물관들과 협의를 진행함. 정기회의 체계, 협력방식, 예산 운용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협력체계의 기초를 확립함

- 공동 홍보 및 안내 시스템 기획

  • 사업내용 : 개항장 일대 박물관들의 공동 홍보 및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획

  • 추진방안 : 박물관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각 박물관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 플랫폼의 기본 설계를 수립하고, 모바일 앱 개발 계획과 관련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함. 각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방문객의 편의성을 증대함

■ 중기(2027~2030년) : 운영협의회 구성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 개항장 박물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시범 운영

  • 사업내용 : 운영협의회 정식 구성 및 시범 사업 운영

  • 추진방안 : 협의회 사무국을 인천중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또는 앵커 박물관 조직을 활용하여 지정하고, 운영협의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공동 목표와 협력방안을 논의함. 공동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박물관 간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함

-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 개항장 박물관들 간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 홍보 플랫폼 구축

  • 추진방안 : 통합 모바일 앱 출시 및 박물관 간 공동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함. AR/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홍보 플랫폼을 통해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와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임

- 인천개항장문화유산야행 확대

  • 사업내용 : 인천개항장문화유산야행을 운영협의회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

  • 추진방안 : 야행 기간 중 공동 특별전,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추가로 기획하고, 야간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박물관 방문을 활성화함. 이를 통해 개항장 지역의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장기(2031~2040년) : 클러스터의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 격상 및 국제적 위상 확보

- 개항장문화유산야행 축제의 근대문화유산축제로 격상

  • 사업내용 : 개항장 야행 축제를 한국의 대표적 근대문화유산축제로 격상

  • 추진방안 : 개항도시박물관 개관과 연계하여 야행 축제를 대규모 문화유산 축제로 확대하고, 국제적인 초청 프로그램 및 전시 기획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함. 이를 통해 인천이 국제적 역사·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 특별 협력기획전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박물관 클러스터 내 박물관들과 연계한 특별 협력기획전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안 : 해외 근대 박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공동 기획전 및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외 관람객과의 소통을 강화함. 이를 통해 박물관 클러스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기반을 조성함

- 지속 가능한 운영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확장

  • 사업내용 :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확장 및 발전 방향 모색

  • 추진방안 : 운영협의회가 주도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박물관 및 관련 기관의 클러스터 참여를 확대함.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및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여 박물관 클러스터의 활동을 글로벌화하고 국내외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임

❖ 법제도·추진체계

■ 법적 기반 마련

-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인천 개항장 일대 박물관 클러스터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를 위해, 「(가칭) 개항장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되, 박물관 클러스터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 '개항장 박물관 운영협의회'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박물관 간의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이 협의회는 박물관들의 통합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박물관 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함

- 통합 운영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박물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박물관 클러스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립함

■ 추진조직 구성

- '(가칭) 개항장 박물관 운영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현 중구), 그리고 각 박물관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박물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클러스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이 협의회는 각 박물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 운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홍보, 예산 배분 등을 관리함으로써 박물관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함

- 협의회는 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며, 공동 전시, 공동 홍보, 연계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함. 또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박물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클러스터 전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일관된 운영 전략을 수립함

- 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통합적 관리와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각 박물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 개발과 통합된 홍보 전략을 통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박물관 클러스터가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박물관 및 전시관의 공동 홍보 및 안내로 인한 방문객 관심 증대

- 박물관과 전시관의 공동 홍보 및 안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천 개항장 일대의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적 매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음. 개별 박물관이 단독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통합된 홍보 전략을 통해 박물관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
- 공동 홍보 및 안내 시스템을 통해 박물관 간의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어 개별 박물관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방문객들의 박물관 탐방 경로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관람객의 유입률이 증가하고 각 박물관의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박물관 클러스터의 이미지 개선 및 콘텐츠 전문화

-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특별 전시회를 통해 각 박물관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콘텐츠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각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협력하여 테마별 특별전시를 기획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공동 노력은 인천 개항장 일대가 대한민국 대표 개항도시 박물관 클러스터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전문화된 콘텐츠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방문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운영 노하우 축적과 외부 경쟁력 강화

- 개별 박물관들이 경험하는 홍보와 운영의 어려움을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개선하고 협력 기반의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음. 박물관 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는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됨
- 이러한 운영 노하우 축적은 외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더욱 주목받는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임. 국제적인 문화 교류 및 협력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박물관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통합된 홍보와 공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체류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방문객이 박물관 클러스터를 한 번에 탐방할 수 있는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숙박, 식사, 쇼핑 등의 소비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박물관 간 협력 증진과 문화적 자산 확대

- 박물관 간의 협력체계가 강화됨으로써 콘텐츠와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적 자산이 확대될 것임. 각 박물관이 보유한 역사적 자료나 예술 작품을 공유하여 통합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학술적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이러한 협력체계는 박물관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개항장 일대를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채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천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임

❖ 관련 사례

※ 군산 박물관 공동 안내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 / 이탈리아 로마 박물관 시스템

- 군산시는 군산 근대역사 및 개항장 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의 공동 홍보 및 안내해설 등을 위한 근대문화유산투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임
- 이탈리아 로마는 2009년에 로마의 문화유산과 관광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법인 로마 박물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박물관과 시청이 관할하는 비영리적 성격의 유한 책임회사 제테마(Zètema)를 설립해 운영함



군산 근대문화유산투어



수도 로마 박물관 시스템 소속 박물관 지도

구분	내용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근대문화유산투어 어플리케이션	• 군산시는 개항장 관련 박물관, 전시관의 공동 홍보, 안내지도, 오디오 해설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해양물류역사관, 독립영웅관, 근대생활관, 어린이체험관 등에 관한 안내지도, 전시콘텐츠 해설, 체험프로그램 등을 AR 관람,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제공
수도 로마 박물관 시스템	• 로마 박물관 시스템(Zètema)은 ①재원의 효율적 운영, ②문화유산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20개의 로마 시립 박물관을 통합·운영 • 박물관의 독립적 경영은 보장하지만, 박물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은 분리해서 비영리 법인을 활용해 문화관광 활동 및 서비스 관리, 이벤트 및 전시회 운영 등 진행

출처 : AR로 보는 군산근대문화유산 공식앱,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공식앱; Zètema progetto cultura 홈페이지(2024.6.20. 검색)

5)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

❖ 필요성

- 무질서한 가로 환경 정비의 필요성

  -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일대의 가로는 상업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으나 무질서한 주차와 혼잡한 교통 상황으로 인해 관광지로서의 쾌적함이 부족함. 이는 방문객들의 관광 경험을 저해하고 개항장의 역사적 가치와 분위기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된 가로 정비가 필수적임

-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2009년 인천 개항장 일대가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2011년에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조례는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된 가로 조성과 문화지구에 적합한 특정 업종의 상점가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화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상업 및 문화시설 조성

  - 현재 개항장 일대의 상점가와 식당가는 다양성과 특색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기념품숍, 카페, 특화된 식당가 등을 포함한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근대 건축물과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들이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역사적 정체성과 현대적 편의성을 겸비한 공간 조성

  - 개항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성을 제공하는 특화가로를 조성하여 개항장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함. 이를 통해 인천 개항장은 역사적 매력을 지닌 동시에 방문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

-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의 발전 필요

  - 특화가로 조성은 개항장을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개항장 일대의 상권과 가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이는 개항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주요내용

- 지역특화가로 조성

  - 개항장 일대의 1층 건물에 위치한 상점, 카페, 레스토랑 등과 같은 상업시설들을 정비하고,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특화가로를 조성함.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동시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함

- 가로 정비 및 주차 문제 해결

  - 가로 정비 시, 주차 문제 해결 및 보행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함.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마련하여 방문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킴. 또한, 일관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화된 거리 경관을 형성함

- 조례 개정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특히, 개항장 박물관 클러스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가로 정비, 상권 활성화, 거리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함

- 문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체계 강화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인천 개항장 일대의 문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함. 이를 바탕으로 문화지구 전반을 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이 계획은 가로 정비, 상업 및 문화시설의 활성화,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여 문화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과의 연계

  - 새로 시행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에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의 특화가로 조성 및 활성화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함. 이를 통해 인천 개항장 일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현대적 활용을 통해 관광 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 개항장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상품과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함. 개항기 시대를 재현한 거리 축제, 역사 탐방 투어, 지역 예술가와 협력한 문화행사 등을 기획하여 관광객 유치와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함

❖ 추진단계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	•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계획 수립 • 기존 가로 환경 정비 및 기반시설 개선 • 주민 및 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개항장 특화가로 맞춤형 상품 개발 • 특화가로의 시범 운영 및 마케팅 전략 실행 • 공공예술 및 문화콘텐츠 설치	• 개항장 특화가로 상권 활성화 • 특화가로의 국제적 홍보 및 확장 • 지속 가능한 특화가로 운영 체계 구축

■ 단기(2025~2026년) :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초 인프라 구축

-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계획 수립

  • 사업내용 : 관람객 수요와 개항장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가로 조성 계획 수립

  • 추진방안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특화가로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개발과 공영 개발을 아우르는 다양한 개발 방식 검토. 교통, 상업, 관광 등의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가로 설계 방안을 구체화함

- 기존 가로 환경 정비 및 기반시설 개선

  • 사업내용 :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일대의 노후된 가로 환경 정비 및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 추진방안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보행자 친화적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로 정비. 경관 개선 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며, 조명, 보도블록 교체,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포함한 도시 미관 개선을 목표로 함

- 주민 및 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 특화가로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함

  • 추진방안 : 워크숍,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참여형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및 상인들이 특화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

■ 중기(2027~2030년) : 개항장 수요 맞춤형 특화가로 특색 상품 개발

- 개항장 특화가로 맞춤형 상품 개발

  • 사업내용 : 개항장의 정체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그니처 상품(음식, 기념품, 아트상품 등) 개발

  • 추진방안 : 현지 창작자 및 지역 업체와 협력하여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차별화된 상품을 기획. 지역 특산물, 전통공예, 문화적 자원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하여 상품화함

- 특화가로의 시범 운영 및 마케팅 전략 실행

  • 사업내용 : 개발된 상품을 기반으로 특화가로를 시범 운영하고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

  • 추진방안 : 일정 기간 동안 특화가로에서 시범 운영 및 판매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요 반응을 분석함. 온·오프라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특화가로 브랜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마케팅을 실행함

- 공공예술 및 문화콘텐츠 설치

  • 사업내용 : 특화가로를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공예술 및 문화콘텐츠 설치

  • 추진방안 : 거리미술 작품, 공공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해 특화가로의 예술적 분위기를 강화함. 거리공연, 아트마켓, 체험형 이벤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문화 체험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개항장 특유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장기(2031~2040년) : 개항장 특화가로 상권 활성화

- 개항장 특화가로 상권 활성화

  • 사업내용 : 개항장 특화가로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발전 전략 수립

  • 추진방안 : 개항도시박물관 개관과 연계하여 특화가로 내 상점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역 축제와 이벤트를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인들이 특화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이를 통해 특화가로 내 소규모 상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

- 특화가로의 국제적 홍보 및 확장

  • 사업내용 : 특화가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확장 전략 수립

  • 추진방안 : 국제 관광박람회 참여 및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제적 홍보를 강화함. 국제 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해 개항장 특화가로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외에도 널리 알리며 해외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국제적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함

- 지속 가능한 특화가로 운영체계 구축

  • 사업내용 : 특화가로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및 발전 전략 수립

  • 추진방안 : 특화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니터링·피드백 시스템과 환경친화적 정책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함. 디지털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고, 방문객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전 계획을 마련함

❖ 법제도·추진체계

■ 법적 기반 강화 및 체계적 추진

- 「지역문화진흥법」 및 해당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이 조례 개정은 특화가로 개발, 문화 프로그램 운영, 기반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함
- 개정된 조례는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지역 내 상업, 문화, 관광 관련 단체들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또한,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독려함. 조례 개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특화가로 및 문화지구 육성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음

■ 추진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 추진조직 구성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현 중구청)을 중심으로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특화가로 조성과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함. 이 조직은 중구청이 행정적·법적 관리를 담당하고, 인천관광공사가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을 맡아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함
- 세부 과제 및 역할 분담 : 추진조직은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가로 정비, 주차 문제 해결, 상업시설 개선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담당하며, 특화된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 개발에 주력함. 인천관광공사는 특화가로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인천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 및 문화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예술 프로젝트 및 문화행사를 기획함. 지역 상인 및 주민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권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도 주요 역할 중 하나임
- 협력체계 구축 : 또한, 추진조직은 민간 기업,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특화가로 내 상업 및 문화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주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체계를 도입함

❖ 기대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

  - 특화가로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개항장 일대의 상업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기념품숍, 카페, 레스토랑 등 특화된 상점가의 매출 증가는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방문객들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인천 개항장 일대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임

- 쾌적한 관광 환경과 관광객 유입 증가

  - 가로 정비와 경관 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일관된 관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항장 일대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역사적 경관을 살린 디자인은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율을 증가시킬 것임

- 개항장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 및 장소성 확립

  - 특화가로 조성은 개항장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역사적 건축물과 어울리는 가로 디자인과 일관된 테마의 상점가는 개항장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방문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개항장 일대의 장소성을 확립함. 이를 통해 개항장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핵심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역사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명소로 발전할 것임

- 법적 계획을 통한 효율적 보존 및 활용 체계 구축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과 연계된 특화가로 조성은 개항장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가로 정비와 경관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장기적인 보존과 발전이 가능해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계적 추진은 개항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의 발전

  - 법적 기반과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특화가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음. 국비 지원을 비롯한 재정적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관광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을 통해 개항장 일대는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하며 활성화된 관광지로 성장할 것임. 이를 통해 개항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임

❖ 관련 사례

※ 타이완 가오슝 보얼예술특구(駁二藝術特區)

- 가오슝 보얼예술특구는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대표적인 예술문화 공간으로서, 과거에 항구의 산업 창고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함
- 보얼예술특구는 현대 미술 전시, 공연, 영화 상영, 예술 워크숍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대만 내외의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공공미술, 설치미술, 거리예술 등을 선보임. 특히, 대만의 현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았으며, 연중 다양한 예술 축제와 행사가 열려 많은 관광객과 예술 애호가들이 찾는 명소가 됨



출처 : 高雄旅游網(https://khh.travel/ko); 유지현(2022.10.18.). 가오슝 예술여행지 보얼예술특구

구분	내용
가오슝 보얼 예술지구	• 과거 산업유산의 재해석을 통한 공간 재창조 : 과거 항구시설을 예술과 문화공간으로 재해석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킴. 기존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례 제시 • 예술과 문화를 활용한 특화된 거리 조성 : 현대미술, 거리예술, 공공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리 조성. 방문객들이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거리로 확장 가능성 제시 • 보행자 중심의 공간 계획 : 보행자 친화적인 설계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리를 탐방하도록 유도.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전용 구역 확장 등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필요성 시사 • 공공 공간과 상업 공간의 조화 : 공공예술과 상업시설이 조화를 이루어 방문객에게 문화적 체험과 소비 기회를 동시에 제공 •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전시, 공연, 워크숍 등의 문화콘텐츠 제공을 통해 방문객의 관심 유지 및 재방문 유도. 정기적인 문화행사와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공간 조성

출처 : 高雄旅游網(https://khh.travel/ko); 유지현(2022.10.18.)

❖ 추진입지

■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치 선정

-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의 핵심 위치로 차이나타운과 신포국제시장을 연결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가로를 조성함. 해당 지역은 역사적 의미와 상업적 가치가 결합된 상징적 장소로 개항장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한 거리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임
- 이 지역은 차이나타운의 문화적 다양성과 신포국제시장의 전통 상업 활동이 결합된 곳으로, 특화가로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개항장 일대뿐만 아니라 구도심 전체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인천역과 신포국제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축의 개발

- 인천역은 개항장 일대의 주요 관문으로, 특화가로 조성과 문화지구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인천역에서 시작해 차이나타운을 거쳐 신포국제시장까지 이어지는 주요 축을 따라 특화가로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이 인천역에서 개항장의 역사적 유산과 문화를 체험하며 다양한 상업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함
- 이를 통해 관광 루트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인천역을 기점으로 한 역사적 탐방 경로를 통해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됨. 특히, 인천역-차이나타운-신포국제시장으로 이어지는 주요 관광 축은 구도심 전체의 관광 활성화와 상권의 부흥을 촉진할 수 있음

■ 내항과의 연계 및 확장 가능성 고려

- 특화가로의 조성은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등 내항 재개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항 지역까지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둠. 내항은 인천 개항장의 핵심 공간 중 하나로 현재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차이나타운-신포국제시장-내항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개항장 일대의 종합적인 관광 활성화를 도모함.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함께 내항을 포함한 지역의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구도심 전체의 활성화 유도

- 특화가로 조성은 특정 지역의 활성화에 국한되지 않고 인천 구도심 전체의 경제적·문화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 차이나타운, 신포국제시장, 내항을 연결하

는 특화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문화공간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구도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 특화가로 조성을 통해 구도심 내 상업·문화·주거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구도심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이와 같은 구도심 전체의 활성화 전략은 장기적으로 인천의 역사적, 상업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그림 2-9〕 개항장 특화가로 입지(안)



03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03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

1. 문화기반시설 현황

1) 인천시 문화기반시설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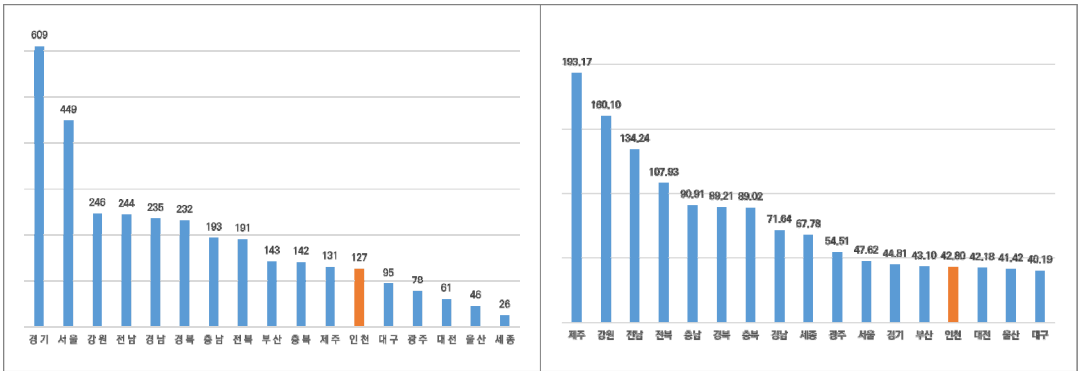
❖ 전국 대비 문화기반시설의 부족

- 인천의 문화기반시설 수는 127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이고, 인구 백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도 42.8개로 전국 14위이자 하위권임

  - 더 많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그림 3-1〕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및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

(단위 : 개)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정리

■ 특히, 인천시의 미술관은 1.69개로 수도권 평균 4.12개, 전국 평균 5.56개와 비교하면 인구 대비 매우 적은 수준임

- 미술관의 경우, 인천은 대구와 함께 17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하여 울산, 세종과 함께 하위권임

- 미술관 5개 중 공립미술관이 2개(송암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이고, 사립미술관이 강화군에 3개(더리미미술관, 전원미술관, 해든뮤지움)가 있음

〔표 3-1〕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

(단위 : 개)

구분	지역	문화시설 합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 센터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문학관
지역1	서울	47.62	21.11	14.32	4.56	1.67	3.08	2.65	0.42	0
	부산	43.10	15.37	9.64	2.71	6.03	3.62	4.82	0	0.90
	대구	40.19	18.61	7.19	1.69	4.65	4.65	3.38	0	0
	인천	42.80	19.55	10.11	1.69	3.37	4.04	3.37	0	0.67
	광주	54.51	18.87	9.08	9.78	5.59	5.59	3.49	2.10	0
	대전	42.18	17.29	10.37	3.46	1.38	3.46	3.46	2.07	0.69
	울산	41.42	18.01	9.00	0.90	2.70	5.40	4.50	0	0.90
	세종	67.78	39.10	18.25	0	5.21	2.61	2.60	0	0
	경기	44.81	22.74	9.42	4.34	1.69	3.31	2.28	0.81	0.81
	강원	160.10	39.70	65.08	13.67	11.71	14.97	11.71	2.60	0.65
	충북	89.02	33.85	26.33	6.90	3.76	7.52	6.90	3.76	0
	충남	90.91	29.20	29.67	4.71	5.65	8.48	7.07	1.41	4.71
	전북	107.93	37.30	24.30	11.30	9.04	9.61	7.91	2.83	5.65
	전남	134.24	40.16	34.11	22.56	7.15	11.55	12.10	1.65	4.95
	경북	89.21	27.30	29.61	4.23	6.15	10.38	8.84	1.92	0.77
	경남	71.64	24.08	23.78	3.05	3.66	6.64	6.10	2.44	1.83
	제주	193.17	32.44	89.95	32.44	8.85	4.42	2.95	20.64	1.47
	총계	63.14	24.03	17.75	5.56	3.67	5.29	4.49	1.34	0.93
지역2	수도권	50.18	21.78	11.28	4.12	1.69	3.73	2.54	0.58	0.15
	지방	76.37	26.32	24.36	7.03	5.70	6.88	6.48	2.12	1.73
	총계	63.14	24.03	17.75	5.56	3.67	5.29	4.49	1.34	0.9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시설의 집중 및 지역 내 격차

- 인천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의 편중과 격차도 큰 편으로 나타남
  - 주로 중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동구와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 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군·구별로 살펴보면 중구가 19개로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많음
  - 다음으로 미추홀구 18개 〉 연수구 17개 〉 서구 16개 〉 연수구 13개 등의 순임. 옹진군이 공공도서관 1개, 지방문화원 1개, 총 2개로 가장 적음

〔표 3-2〕 인천광역시 군·구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학관
		계	지자체	교육청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중구	19	4	4		9	5	4		1	1		2	1	1	1
동구	7	3	2	1	1	1						1	1	1	
미추홀구	18	10	9	1	4		3	1	1	1		1	1	1	
연수구	17	9	7	2	3	2	1					2	2	1	
남동구	11	5	4	1	3	1	2						2	1	
부평구	13	8	6	2	2	1	1					1	1	1	
계양구	11	6	5	1	2	1	1					1	1	1	
서구	16	9	8	1	2	2						2	2	1	
강화군	13	3	3		4	3	1		3		3		1	1	1
옹진군	2	1	1											1	
총계	127	58	49	9	30	16	13	1	5	2	3	10	12	10	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예술 창작-유통-향유 기능 복합문화시설 부족

- 인천시가 운영하는 주요 문화기반시설로는 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예술회관, 트라이보울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공연 및 전시 공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복합문화공간이나 창작 지원 시설의 수가 적음
-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 향유 기능이 집적되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시민들의 향유 및 소비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 요구됨

2) 인천시 문화기반시설 관련 시사점

❖ 문화시설 이용률 및 접근성 개선 필요

- 인천시의 문화기반시설들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임
- 그러나 일부 지역, 특히 동구, 강화군, 옹진군 등에서는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의 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소외 지역의 문화적 접근성을 개선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됨. 이때 하드웨어적인 시설 설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예술가 등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지역의 역사성·장소성을 살린 문화예술거점 구축 필요

- 인천의 오랜 역사와 장소성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거점 조성이 필요함. 인천시 중구와 부평구, 동구에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개항기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은 중구 개항장 일원에 밀집되어 있음
- 이외에도 대중음악의 발상지인 부평, 한강 이남 유일한 고려 도읍지였던 강화도, 사용종료를 앞둔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등 지역별 자원과 특성이 다양함
- 지역의 역사성·장소성을 살린 문화예술거점을 조성하여 주민·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전시·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져야 함

❖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및 문화관광벨트 조성 필요

- 문화예술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스토리텔링화하고, 도보로 연결하여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거점을 권역화하고, 거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가 필요함. 이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기반시설과 새롭게 조성되는 문화기반시설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2. 문화기반시설 관련 정책 여건

1) 법률 및 조례

❖ 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문화이용권에 대한 정의가 제시됨(제2조)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5조)

〔표 3-3〕「문화예술진흥법」 주요 조항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 · 전시 · 영화 · 도서 · 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 인천광역시 문화기반시설 관련 조례

■ 인천시의 조례 중 문화기반시설 관련 조례는 총 25건(시행규칙 포함)임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시설을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학관, 종합시설, 창작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등으로 구분함
- 인천시의 문화기반시설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도서관, 문학관,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표 3-4〕 인천광역시 문화기반시설 관련 조례

구분		문화기반시설	조례
문화 체육 관광국	문화정책과 (10건)	도서관	•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문학관	•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문화예술회관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시립문화예술시설	•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은도서관	•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지방문화원	•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틈문화창작지대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아트플랫폼	• 인천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서관	•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틈문화창작지대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예술정책과 (1건)	인천음악창작소	•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 유산과 (6건)	구)제물포구락부, 옛 시장관사	•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미술관	•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시립박물관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은율탈춤전수관	•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립박물관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체육진흥과 (2건)	시립체육시설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립체육시설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시설에 한하여 정리함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참고하여 연구자 재정리

2) 정책 및 사업

❖ 중앙정부 정책 :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 새 정부는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담은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함(문화체육관광부, 2023.12.28.)
  - 문화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은 더욱 행복하고 국가의 품격은 높이는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함
  -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비전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설정함
- 3대 혁신전략 중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시설, 문화예술 향유 격차 발생 등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핵심과제의 절반 이상이 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지역'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격차 해소 및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삼고 있음

[표 3-5]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비전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목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

▼

3대 혁신전략	핵심과제	
예술인 지원의 혁신	• 순수예술 지원 확대 • 예술 창작 지원 방식의 개선	• 예술영재·청년예술인 양성 •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지원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 잠재관객 발굴 • 사각지대 없는 향유 지원	•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 사업·축제 대표 브랜드로 전면 재구조화	•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3.12.28.).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 중앙정부 정책 :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발표(2023.4.)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C-1. 어디에 살든, 누구나, 같이 누리는 문화' 전략과제에서 '지역소멸을 막는 문화' 정책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관내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계획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22년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포함 총 89개 지역)에서도 고르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 위기에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 특히, 인천시의 경우에는 지역 특화 문화클러스터 조성, 국립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이전·건립 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3-6〕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 중 '지역소멸을 막는 문화' 추진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 C. 지역과 사회를 품격있게 연결하는 K-컬쳐
C-1. 어디에 살든, 누구나, 같이 누리는 문화
C-1-1. 지역소멸을 막는 문화
• (인구감소지역 활력 촉진) 문화활력이 낮은 기초지자체 대상 문화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국립예술단 공연 등 활력 촉진 패키지 지원
• (대한민국 문화도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권역별 지정 및 집중 육성, 지역 고유 문화자원 활용 및 인근 도시와 연계·네트워킹 강화
• (지역 특화 문화클러스터) 권역별 유휴공간·주요 문화기반시설 활용 문화집적공간 조성, 거점시설 중심으로 문화지구 등 지정
• (국립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이전·건립) 국립충주박물관 신규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세종) 등 지역에 핵심 문화기반시설 조성추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3.4.)

❖ 중앙정부 사업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은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비전으로 '문화&민생', '문화&경제', '문화&미래'를 목표로 설정함
- 5대 핵심과제 중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는 '지역문화 자생력 키우기',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 특별 지원',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문화' 등 문화로 지역소멸, 고립감 등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것임
  - 지역문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창작과 향유 공간인 문화시설 조성 및 통합서비스를 통해 지역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함
  - 노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공간화 지원(317억 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인천시 정책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 인천시는 인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문화예술거점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문화·관광 르네상스의 비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출항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제물포"임.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제물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문화·관광 중심지로의 탈바꿈을 도모함(인천광역시, 2023)
  - '글로벌 문화·관광 앵커시설 확충'에는 앵커시설 도입을 통해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 및 제물포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제시됨
  - '시민에게 열린 친수 문화·관광 기반 구축'에는 대규모의 개방성을 갖춘 공공공간 제공과 동시에 열린 수변경관 제공을 통해 내항의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과 함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제시됨
  - '역사·문화자원 연계'에는 역사·문화·관광자원 간 연계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의 가치 제고를 통한 새로운 문화·관광 요소 활용 사업이 제시됨
  - '휴양·문화시설 확충'에는 휴양·문화 수요변화 대응하여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 도입·조성 사업이 제시됨

〔표 3-7〕「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중 문화·관광 르네상스 비전 체계도

비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출항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제물포	
목표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 경제의 재도약	
▼		
3대 계획목표	**추진전략**	**주요사업**
글로벌 문화·관광 앵커시설 확충	• 제물포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도입 • 글로벌 앵커시설 조성 •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 오큘러스타워(Oculus Tower) • K-ube • 상상플랫폼
시민에게 열린 친수 문화·관광 기반 구축	• 워터프론트 조성 • 레저공간 조성	• 바다공원 • 제물포 3색비치 • 마리나 인 시티
역사·문화자원 연계 및 휴양·문화시설 확충	• 역사·문화 네트워크 구축 • 기존 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제물포웨이브(J-WAV) • 바다e지 투어 • 미디어아트 제물포 • 데칼코마니(풀문프로젝트)
	•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시설 조성 • 유휴부지를 활용한 휴양 공간 조성	• 홀로포트 인 월미 • 제물포 레일파크 • 루나테일 리조트(Lunar Tail Resort)

출처 : 인천광역시(2023).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 인천시 사업 :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

■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문화시설 법인화 및 통합운영 추진', '도심 속 문화랜드마크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품격있는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에 있음

- 통합법인 설립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역할 중복에 대한 우려로 설립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대안을 모색 중임(곽안나, 2024.7.10.)
- 인천뮤지엄파크는 미추홀구 학익동 573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만 ㎡ 규모로 2028년 정식 개관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임. 인천 최초의 시립미술관이 들어서고, 현재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시립박물관이 이전할 계획임

〔표 3-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 중 문화시설 관련 사업

전략	세부사업
매력 있는 문화가 일상에 흐르는 행복한 도시	1 문화로 소통하는 즐거운 도시 조성
	• 인천 대표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인천, 트라이보울) 통합법인 설립 및 인천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 인천 대표 문화시설 통합법인 설립으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24.6.) – 인천문화재단 조직 및 사업 개편 : 운영 효율화 및 지역문화정책 발굴
시민 공감형 문화유산 관리 추진	3 인천시 공립박물관 활성화
	• 관내 공립박물관 활성화를 통해 박물관 문화서비스 향상 및 시민 문화향유 수요와 기대 충족 –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구역 조성 지원을 통한 활성화 지원 – 인천형 평가인증제 시범운영으로 운영 내실화 및 경쟁력 제고 – 인천 공립박물관 활성화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박물관 진흥 계획
글로벌 문화기반 조성으로 시민 접근성 확대	1 도심 속 문화랜드마크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 (건축 부분)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24년 상반기), 건축공사 착공('24년 하반기) • (전시 부분) 미술관, 박물관 전시 실시설계 발주('24년 상반기) • (행정절차 이행)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이행('24년 상반기)
	2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개편
	• 한국의 이주와 이민의 역사를 수집·연구하고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 전시유물 확보 및 공간 확대·개편
	4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품격있는 서비스 제공
	• 현대적 감각의 공연장 조성 – 무대, 객석·로비, 전시장, 연습장 등 리모델링 • 품격 높은 공연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원도심 문화회관 연계 기획공연(208건),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창단(4월)

출처 : 인천시(2023.12.) 참고하여 연구자 재정리

3. 문화예술거점 구축 필요성

❖ 문화기반시설 조성 근거 마련

- 인천시는 문화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연계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인천시의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기반시설 및 거점 조성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별 특화 문화예술 거점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시설을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학관, 종합시설, 창작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등으로 구분함

❖ 지역별 특화 문화거점 조성 필요

- 인천시는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거점 구축이 필요함. 지역의 특성에 맞춘 문화거점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지역별 차별화된 문화거점 조성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은 지역 특화 문화클러스터 조성, 국립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이전·건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인천시에 특화 문화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에는 국립문화시설과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제한적임.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질적 향상이 시급함
  - 특히 부족한 문화시설로는 국립문화시설, 시립미술관, 공연시설 등이 있음. 국립문화시설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2024년 12월에 개관 예정인 국립해양박물관 2개소가 전부임
  - 인천시에는 현재 시립미술관이 없으며, 2028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에 인천뮤지엄파크를 조성할 예정임
  - 그 외에 공연장과 복합문화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운영하기에 어려운 여건임

❖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및 육성 필요

■ 인천시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 지원 프로그램과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각예술 등 특정 예술 장르나 대상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다양한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예술인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

- 2024년부터는 레지던시 사업의 명칭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함. 전국단위 작가들의 예술 활동 공간이었으나, 지역 작가들과의 상생이 부족했다는 인천시의 정책 기조에 따라 운영 방향이 변경됨. 만 2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인천 연고자로서 현대 예술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를 지원함(곽안나, 2024.5.13.)

〔표 3-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지원사업 개요

구분	2023년 레지던시 프로그램	2024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기간	약 9개월(2023년 5월~2024년 1월)	약 7개월(2024년 8월~2025년 3월)
공모인원	16명(팀) 내외(시각예술 14명, 공연예술 2명)	10명/팀 내외
공모분야	• 시각예술 예술가 및 연구자 - 평면, 입체,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커뮤니티 등 현대미술 전 분야 - 전시 기획, 미술평론 이론, 예술연구 분야	• 현대예술 전 분야 -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영화, 예술이론 등
신청자격	• 공통 - 모집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그룹의 경우, 구성원 모두 공모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함) • 연구자(레지던시 프로그램 시각예술 부문) - 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전시기획, 학술지 및 미술전문지 기고, 출판 등)이고, 미술 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	•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1984년 5월 11일~1999년 5월 10일 출생자)의 인천 연고* 예술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 제한 • 그룹의 경우, 그룹의 대표자 등 1인 이상이 인천 연고 적용 기준에 해당하여 공모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함 * 인천 연고 적용 기준 • 인천 출생 : 인천 출생 • 인천 거주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 인천 출신 : 인천 소재 초/중/고/대학교 중 1개 과정 이상을 졸업/재학한 자 • 인천 활동 : - 인천에서 3회 이상 전시 또는 공연 등과 같은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인천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은 자 - 공고일 현재 인천 소재의 기관, 회사, 학교 등에 재직 중인 자

출처 : (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3-12호 : (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4-145호

❖ 문화예술거점 간 네트워크 구축

- 인천시는 기존 문화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 문화예술거점들이 상호 협력과 자원 공유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문화예술거점 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상호 홍보 및 연계 전략 등을 도입하여 각 거점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쟁점 및 이슈

✱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불균형 해소

- 문제 : 인천시의 문화기반시설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지역은 문화예술 활동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특히, 동구, 서구, 강화와 같은 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
- 이슈 :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심화시키며, 이는 문화예술거점 구축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개항장의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필요

- 문제 : 인천 개항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적, 경제적 활력이 부족하여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개항장의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로 재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슈 : 개항장 일대를 문화예술거점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재생 추진

- 문제 : 인천은 근대산업도시로서 산업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나, 활용방안이 부족하여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산업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작용함
- 이슈 : 산업유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화예술 거점으로 재생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임.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

〔표 3-10〕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실천과제 2-1	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 및 명소화
실천과제 2-2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
실천과제 2-3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실천과제 2-4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실천과제 2-5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

4. 실천과제

1) 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 및 명소화

❖ 필요성

■ 역사적 배경과 개항장의 역할

- 제물포는 1883년 개항과 동시에 청나라, 일본의 조계지와 서양 각국의 영사관이 들어서며 인천의 국제도시로 변화하게 됨. 항구, 철도, 무역창고, 영사관, 금융기관 등 근대적 인프라가 구축되며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음. 개항장은 인천의 근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성장함

- 개항장은 근대 역사자원과 산업유산이 밀집된 장소로,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거점으로서 기능해야 하나, 현재 문화예술 공간의 부족, 접근성 문제, 일몰 후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항장이 인천의 중심적인 문화예술거점으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문화예술거점으로서의 잠재력

- 개항장은 인천의 중요한 문화예술거점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개항장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창작-향유-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트플랫폼 등의 문화공간을 확장하고, 개항장 일대를 근현대 문화지구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인천의 문화적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창작-향유-소비 생태계 조성 필요성

- 현재 개항장 일대는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음.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주민들이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의 연계 필요성

- 개항장의 문화예술거점으로서의 정체성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개항장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작-향유-관광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음. 이를 통해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경제와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 아트플랫폼 확장 및 재구성

- 현재 인천아트플랫폼을 인근의 역사적 건축물까지 확장하여 기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 및 창작공간을 확보함. 이를 통해 대형 전시, 공연, 워크숍 등 복합적인 예술 활동을 한 곳에서 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술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 확장된 공간은 단순한 전시 장소를 넘어 창작과 향유가 공존하는 통합 예술 허브로 재구성함

  • 복합문화공간 조성 : 확장된 아트플랫폼 내에 카페, 독립서점, 아트숍 등 다양한 상업공간과 갤러리, 창작공간 등 문화공간을 유치함으로써 예술과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형성함. 이 공간은 예술작품 감상 외에도 방문객들이 예술과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며 예술 향유의 일상화를 유도함

■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조성

- 인천의 공예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조성함. 지역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공간을 마련하여 인천의 공예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함. 방문객들은 상설전시관에서 공예품을 감상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개항기 미술관 명소화

- 제물포구락부, 소금창고, 인천시민애집, 이음1977 등 송학동 '개항역사길'에 위치한 근대 건축물을 연계해 '개항기 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인천 근대미술 유산을 주제로 명소화를 추진함. 소금창고는 메인 전시공간으로 인천 근대미술 작가와 작품을 전시하며,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이음1977을 연결하여 통합된 문화공간으로 구성함

  • 제물포구락부는 근대미술과 음악이 만나는 '살롱'으로, 인천시민애집은 관리동 및 근대미술 자료를 수집·보존·연구하는 아카이브로, 이음1977은 '예술가의 집'으로 활용함. '예술가의 집'은 인천을 주제로 활동한 작가(소설가 등), 화가, 음악가, 영화감독, 건축가, 디자이너 등 예술가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 작업실을 제공하고, 예술가의 작품 전시, 예술가와의 만남 등 정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월미도 예술산 연계 운영

- 월미도 예술산과 인천아트플랫폼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미디어아트, 공공미술 프로젝트, 정기 예술제 등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월미도 예술산을 예술과 자연이 융합된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함

❖ 추진단계

■ '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 및 명소화'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 및 명소화	• 아트플랫폼 확장을 위한 현지 조사 및 연구 • 주민 및 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기본계획 수립	• 아트플랫폼 확장 및 복합문화공간 구축 •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조성 및 운영 • 송학동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및 개항기 미술관 조성	• 아트플랫폼 및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속화 • 월미도 예술산 연계 프로젝트 본격화 •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의 안정화

■ 단기(2025~2026년) : 현지조사 및 연구, 기본계획 수립

- 아트플랫폼 확장 및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조성을 위한 현지조사 및 연구
  - 사업내용 : 아트플랫폼 확장과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조성을 위한 현지 조사와 건물 활용 가능성 연구를 수행함
  - 추진방안 : 건축사, 역사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상 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가능성 및 공간 활용계획을 구체화해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 주민 및 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을 촉진함
  - 추진방안 : 워크숍, 공청회 등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내용 : 현지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추진방안 :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분석해 국비 등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함

■ 중기(2027~2030년) : 인프라 구축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

- 아트플랫폼 확장 및 복합문화공간 구축
  - 사업내용 : 아트플랫폼 확장과 대형 전시 및 공연을 수용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 예술 창작과 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추진방안 : 카페, 독립서점, 아트숍 등의 상업시설을 유치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대규모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활성화함

-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조성 및 운영

  • 사업내용 : 개항장 내 건축자산을 추가적으로 확보 및 리모델링하여 인천의 전통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 추진방안 : 전시 및 판매 공간 설계를 완료하고 공예인과의 협력으로 다양한 공예품 전시 및 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함.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함

- 송학동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및 개항기 미술관 조성

  • 사업내용 : 송학동의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개항기 미술관을 조성하고, 개항기 역사와 예술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을 마련함. 미술관은 역사적 장소성과 현대적 예술 감각을 결합한 공간으로 개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함

  • 추진방안 :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물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내부를 현대적 미술관으로 조성함. 전시콘텐츠 개발과 지역 예술가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개항기 미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장기(2031~2040년) :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및 명소화

- 아트플랫폼 및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속화

  • 사업내용 :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함

  • 추진방안 : 재정적 기반 마련 및 정기 평가·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함.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성을 강화함

- 월미도 예술산 연계 프로젝트 본격화

  • 사업내용 : 월미도 예술산과 아트플랫폼을 연계해 통합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미디어 아트, 공공미술 등을 활용해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추진방안 : 정기 예술제 및 예술 프로젝트 운영,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함

-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의 안정화

  • 사업내용 :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안정화하여 지속적인 전시 및 판매, 체험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

  • 추진방안 : 공예품의 질적 유지와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함.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공예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

❖ 법제도·추진체계

■ 법적 기반 마련

- 「지역문화진흥법」 및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항장 문화공간 확장 및 명소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를 위해 (가칭) '개항장 문화공간 확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인천광역시 조례에 내용을 포함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특히, 아트플랫폼 확장,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월미도 예술산 연계 운영 등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함. 이와 함께, 관련 법규를 통해 문화공간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방안을 명시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임

■ 추진조직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추진조직을 구성함. 이 조직은 사업 기획부터 실행, 모니터링까지 총괄하며, 단계별 추진방안에 따라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함. 또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추진력을 극대화함

■ 재정 지원 및 예산 확보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함.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와 협력하여 국비 지원을 받는 한편, 인천시 예산을 통해 시비 지원을 강화함. 더불어, 민간자본 유치와 공공 지원이 결합된 재정 모델을 구축하여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함. 지역 내 민간기업, 공기업, 재단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장기적인 후원 및 협찬을 유도하고, 다양한 재정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 또한, 외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정부 공모 사업, 민간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함

■ 통합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 아트플랫폼,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월미도 예술산 등 각 문화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이를 통해 각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넘어 상호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통합된 운영방식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임

❖ 기대효과

■ 아트플랫폼 확장으로 창작-향유-관광 선순환 구조 강화

- 아트플랫폼의 확장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인천 개항장 일대가 문화예술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함.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활성화되고, 시민 및 관광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문화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복원과 지역 예술가들의 거주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향유-관광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증대될 것임

■ 근대역사문화거리 활성화 및 다목적 활용 가능성

- 확장된 개항장 근대역사문화거리는 영화·드라마 촬영지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 가능하며, 현재 재생 추진 중인 (구)인천우체국 등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의 잠재력이 큼. 이를 통해 역사적 장소성을 보존하며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함

■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을 통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을 통해 인천의 공예문화산업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고, 지역 공예품의 판로가 확대됨.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공예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객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이는 지역 공예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인천의 공예문화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월미도 예술산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입 증가

- 월미도 예술산과 아트플랫폼의 연계 운영을 통해 인천 개항장 일대가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정기적인 예술제와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임

■ 문화공간 확장과 통합 운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아트플랫폼,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근대역사문화거리, 월미도 예술산 등 문화공간의 통합 운영을 통해 개항장 일대의 문화적 매력을 극대화함
- 이를 기반으로 상업지구 활성화와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며,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관련 사례

※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예술인 밀집지역 '덤보(Dumbo)'

- 뉴욕시 브루클린 자치구 지역에 조성된 예술가 밀집 거주지역으로 '맨해튼 다리 고가도로 아래 지역(Down Under the Manhattan Bridge Overpass)'이라는 의미에서 덤보(DUMBO)로 불림
- 브루클린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제조업 클러스터 지역이었으며, 덤보는 페리 선착장을 중심으로 브루클린 제조업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 탈공업화 현상을 겪으면서 슬럼화됨
- 덤보의 부동산업체인 '투트리즈 매니지먼트(Two Trees Management)'는 지역 변화를 위해 1974년부터 13개 빌딩 매입을 시작으로 800개 이상의 아파트를 짓거나 임대하고 판매하며, 공실이었던 건물을 주거 용도로 바꾸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
- 당시 뉴욕 맨해튼의 지가 상승으로 많은 예술인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덤보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투트리즈 매니지먼트가 낡은 폐공장을 주거 건물로 바꾸면서 예술인 이주를 가속화 함
- 투트리즈 매니지먼트는 현재까지도 예술가들이 덤보에 머물 수 있도록 거주지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창작공간 및 레지던시를 지원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뉴욕주 정부는 1970년대 '로프트 법(The New York City Loft Law)'을 제정해 상업 및 제조업 용도 건물을 주거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 안전을 보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했으며,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덤보 문화예술사업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해 옴

※ 청주시 한국공예관 뮤지엄숍

- 2001년 설립된 공립 공예미술관으로서 청주 공예문화진흥사업을 총괄 기획·실행하는 핵심 기관이며 기획·운영, 홍보, 전시·기획, 공예 스튜디오, 시설 대관, 뮤지엄숍·마케팅 사업 추진
- 뮤지엄숍은 청주 공예문화산업의 유통플랫폼이자 향유기반으로서 전시, 교육, 판매, 공연 사업 추진



덤보 지역



세인트 앤 웨어하우스 극장



청주시 한국공예관 뮤지엄숍



청주시 한국공예관 뮤지엄숍

출처 : 한국문화홍보서비스(2021.3.22.); 최영화(2024); 연구자 직접 촬영(2024.4.17.)

※ 미술관이 된 근대 건축물

• 근대 건축물을 활용하여 근대미술관 및 갤러리로 활용하는 국내 사례가 있어 참조가 필요함



군산 근대미술관



군산 장미갤러리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대전 헤레디움 미술관

구분	내용
군산 근대미술관 및 장미갤러리	• 1907년 개설된 (구)일본제18은행 건물은 1911년 본관과 2층의 부속건물 2동으로 준공되었음. 광복 후 대한통운 지점으로 사용되다가 2008년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보수 복원을 통해 근대미술관으로 개관하였음. 본관(작품 전시)과 금고동(안중근 의사 여순 기념전시관, 대형금고 전시), 관리동(근대건축 부재 전시)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근대미술관은 작은 공원을 공유한 두 채의 적산가옥인 장미갤러리와 미즈카페와 이웃해 있음. 일제강점기 쌀 창고였던 장미갤러리는 광복 이후 위락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가 군산시의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개관되었음. 상설전시장과 미술 전시공간, 공예 체험장으로 운영 중임
서울시립 남서울 미술관	• 대한제국(1897~1910) 시절 벨기에 영사관으로 사용된 건물(사적 제254호)로, 1905년 회현동에 준공되었다가 1983년 현재의 남현동으로 이전함 • 길게 뻗은 복도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자유롭게 배열된 두 개 층의 방들과 높은 천장, 고전적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대미술과 소통하는 예술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대전 헤레디움 미술관	• 1922년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으로 건축된 건물. 2019년부터 여러 고증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2022년 복합문화예술공간, '헤레디움(HEREDIUM)'으로 개관함 • 역사적 가치가 숨 쉬는 근대문화 유산 속에서 전시와 클래식 공연을 통해 대전의 미래유산을 만들어간다는 콘셉트임

출처 : 군산문화관광 홈페이지(2024.7.13. 검색);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홈페이지(2024.7.13. 검색); 대전 헤레디움 미술관 홈페이지(2024.7.13. 검색)

❖ 추진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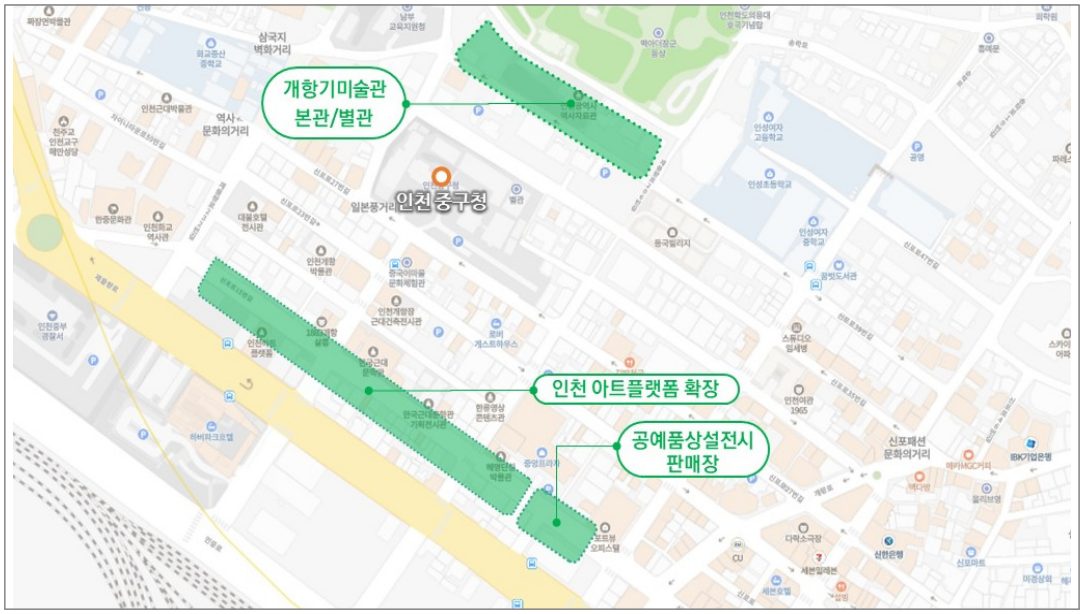
■ 개항장 근대 문화거리 확장 및 문화공간 재구성의 주요 입지

- 인천 개항장 일대의 주요 입지는 현재의 인천아트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한 (구)미두취인소터(제물량로 196) 맞은편까지 두 블록의 거리를 중심으로 설정함. 이 지역은 인천 중구 제물포로와 근대문화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근대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

■ 주요 입지 선정 이유

- 역사적 중요성 : 이 지역은 인천 개항 당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근대 건축물과 유적지가 밀집해 있어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존하기에 적합한 장소임
- 문화적 잠재력 : 제물량로와 인근 지역은 이미 아트플랫폼과 같은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확장이 용이함. 기존의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접근성 및 인프라 : 제물량로 196을 포함한 이 지역은 인천역, 차이나타운, 월미도와 가까워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또한, 도로망과 교통편이 잘 발달되어 있어 방문객의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문화공간 확장 가능성 : 두 블록에 걸친 거리에는 역사적 건축물 외에도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다수 위치해 있음. 이를 통해 아트플랫폼의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시 및 공연공간,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음

〔그림 3-2〕 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안)



2)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

❖ 필요성

■ 역사적 유산의 보존 및 재생 필요

- 동구에 위치한 동일방직과 일진전기는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상징적 산업유산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산업화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건축자산임. 특히, 동일방직은 섬유산업의 발전을, 일진전기는 전기산업의 성장을 상징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적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역사적 장소들임

  • 동일방직 인천공장 : 동구 제물량로357(만석동 37-2)에 위치한 동일방직 인천공장은 부지 7만5천817㎡에 조성된 방직공장으로,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5대 방적업체 중 하나였던 동양방적으로 조업을 시작했으며, 1955년에 이를 적산불하 받아 동일방직을 설립해 운영해 왔으며 2017년에 생산기능을 중단함(최영화, 2021)

  • 일진전기 인천공장은 1938년에 동구 인중로 547(화수동 5-5번지 일원)에 설립된 일본기업 '시바우라 제작소'가 기원이 되는 건축자산으로, 일진전기 생산라인이 이전함에 따라 인천공장은 2015년 3월 12일 자로 폐업하였으며, 이후 적절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남겨짐(민경선·이선정, 2022)

- 그러나 이러한 산업유산은 적절하게 보존되지 못하고 현재는 생산기능을 중단한 채 일부는 물류창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음. 이는 지역 경제와 산업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이러한 산업유산을 재생하여 복합문화단지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전수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임

〔그림 3-3〕 동일방직과 일진전기 공장 전경



동일방직 인천공장 내 구) 의무실 전경	일진전기 전경

출처 : 연구자 직접 촬영(2024.9.5.)

■ 동구 지역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

- 동구는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지였으나, 산업의 쇠퇴와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 경제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동일방직과 일진전기와 같은 산업유산을 활용한 복합문화단지 조성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동구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2040 인천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2023.12.)을 수립함. 이 계획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도심형 서비스 산업 및 환경 악화, 문화관광자원의 활용 및 활성화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되, 외부 관광객의 유입보다는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를 위한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을 우선 목표로 설정함. 추후 동구의 산업도시 이미지 개선 및 명소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그림 3-4〕『2040 인천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중 문화·관광계획 기본방향



출처 : 인천광역시 동구(2023.12.). 2040 인천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 위 계획의 '전략 2. 지역 자산을 활용한 명소 발굴 및 이미지 구축' 중 '4. 미디어아트 복합공간 조성' 과제는 만석부두 인근 화수지구단위계획지구를 대상지로 함. 동구는 해당 부지에 미디어아트 예술인들의 상주 공간과 함께 동구의 역사·문화·산업적 가치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가입할 계획임(인천광역시 동구, 2023.12.)

〔그림 3-5〕『2040 인천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중 문화예술 복합공간 위치도



출처 : 인천광역시 동구(2023.12.). 2040 인천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 일진전기 인천공장은 만석부두 인근 화수지구단위계획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 동일방직 인천공장도 대상지와 바로 인접해 있으므로, 『2040 인천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의 세부 내용과 연계하여 산업유산을 활용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면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동구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와 같은 복합문화단지 조성은 산업유산의 보존을 넘어 도시재생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 지역주민과 상권이 복합문화단지와 상호작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여하며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모델 마련

- 산업유산을 재생하여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모델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과거의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단순한 보존을 넘어 미래 지향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은 문화, 경제, 사회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선도적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음

❖ 주요 내용

■ 산업유산의 보존 및 전시

- 동일방직과 일진전기의 주요 산업유산을 복원하고 보존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전시관과 박물관을 조성함. 이 전시공간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 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산업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함
- 전시관은 산업화의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시청각 자료, 실물 유산, 인터랙티브 체험 등을 통해 산업유산의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구성함. 이를 통해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산업유산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복합문화공간 조성

- 기존의 산업유산을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전환하여, 예술가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함. 이 공간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함
-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히 전시와 공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과 일상생활이 결합된 공간으로 운영함.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문화적 수준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또한, 문화예술과 산업유산의 융합을 통한 창의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방문객들이 산업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 체험을 결합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함. 예를 들어, 동일방직의 섬유산업 발전사와 일진전기의 전기산업 발전사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섬유 제조 과정이나 전기기기의 발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음
- 체험 프로그램은 산업유산의 의미를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동구의 산업화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를 방문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교육적 가치를 강화하고 역사적 유산을 현장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 모델을 제시함. 이러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추진단계

■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부지 선정 및 협약 체결 • 유물 수집 및 콘텐츠 연구	• 복합문화공간 설계 및 건축 착공 •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복합문화단지 완공 및 공식 개관 • 지속적 발전 및 네트워크 구축 • 정기적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 단기(2025~2026년) : 산업유산 복합문화단지 조성의 기초 기반 마련 및 계획 수립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내용 : 동일방직과 일진전기 산업유산의 문화복합단지 조성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정부 및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함

  • 추진방안 : 전문기관 및 학계와 협력하여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예상 비용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부지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내용 : 동일방직과 일진전기 부지를 복합문화단지 조성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과 재정 지원을 확보함

  • 추진방안 :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부지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를 진행함.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

- 유물 수집 및 콘텐츠 연구

  • 사업내용 : 복합문화단지의 핵심 콘텐츠 구성을 위한 유물 수집 및 연구를 시작함. 동일방직과 일진전기의 역사적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콘텐츠를 개발함

  • 추진방안 : 국내외 관련 유산과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복합문화단지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함. 학술적 연구와 현지답사를 통해 콘텐츠의 역사적·문화적 타당성을 확보함

■ 중기(2027~2030년) : 복합문화단지 조성 및 콘텐츠 구축

- 복합문화공간 설계 및 건축 착공

  • 사업내용 : 동일방직과 일진전기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공사를 착공함. 복합문화공간은 전시관, 박물관, 공연장, 창작 스튜디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함

- 추진방안 :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선정하여 건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함

-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 사업내용 : 복합문화단지 내에서 운영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함
- 추진방안 : 전시 기획 전문가와 협력하여 콘텐츠의 참여 효과와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시를 구성함. 수집된 유물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함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사업내용 : 복합문화단지 개관을 앞두고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 이를 통해 복합문화단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개관 후 즉각적인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함
- 추진방안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내외 박물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함. 개관 기념 이벤트를 기획하여 방문객의 흥미를 유도함

■ 장기(2031~2040년) : 복합문화단지의 완성 및 지속적 발전

- 복합문화단지 완공 및 공식 개관

- 사업내용 : 복합문화단지의 건축을 완료하고, 개관식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함. 개관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임
- 추진방안 : 개관식과 함께 다양한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함. 개관 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문객의 관심을 유지함

- 지속적 발전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복합문화단지의 운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함
- 추진방안 : 국제적인 문화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복합문화단지가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함

- 정기적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복합문화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유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킴
- 추진방안 : 정기적인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복합문화단지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법제도·추진체계

■ 법적 기반 마련

-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동구 내 산업유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 또한, 건축자산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산업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복합문화단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추진조직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 동구청, 인천광역시청, 인천문화재단, 관련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추진조직을 구성함. 이 추진조직은 사업 기획, 실행,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함
- 특히,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이러한 협력은 산업유산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과 역량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함

■ 재정 지원 및 예산 확보

- 국비, 시비, 지방비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함. 또한, 민간 투자 유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연계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적 자립도를 높임

■ 통합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 복합문화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함. 산업유산의 보존 및 활용, 건축자산의 관리, 그리고 문화콘텐츠 운영,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아우르는 종합적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각 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함

■ 법적·행정적 지원 시스템 강화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 절차 등 법적 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함. 특히, 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 계획을 통해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체계적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지역문화 자산의 보존 및 확산

- 동일방직과 일진전기와 같은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재생함으로써 동구 지역의 문화적 유산이 체계적으로 보호될 것임.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이러한 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임.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산업유산의 가치가 확산될 것임

■ 관광 자원화 및 글로벌 인지도 상승

- 산업유산을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단지는 동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임. 독창적이고 교육적인 관광콘텐츠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동구의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또한, 복합문화단지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주목받게 되면 동구의 글로벌 인지도 또한 상승하며 국제적인 문화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유산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임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은 동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상권 활성화, 소규모 상업 활동의 증대가 예상되며,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적 자생력이 강화될 것임. 또한, 복합문화단지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접 및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공동체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

- 복합문화단지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활발해지며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증대될 것임. 이는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해져 지역사회가 더욱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임. 복합문화단지는 동구 지역의 도시재생과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복합문화단지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갱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진화하는 문화공간이 될 것임. 이를 통해 단순한 유산 보존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며,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은 동구 지역의 장기적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 관련 사례

※ 산업유산 활용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례

- 서울 문화비축기지 : 과거 석유비축기지를 자연과 인간,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
- 서울 문래창작촌 : 철강소 밀집 지역을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재개발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예술거점으로 발전시킨 사례로, 기존 산업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재생 방식을 보여줌
-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 : 산업 창고를 전시, 공연, 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예술과 상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 성공적인 사례
- 부산 F1963 : 과거 와이어 공장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하여 부산의 산업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적 기능을 강화한 사례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음
- 영국 테이트모던 갤러리 : 폐쇄된 발전소를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켜 런던의 주요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
- 뉴욕 첼시마켓 및 첼시 갤러리 지구 : 1890년 완공된 근대건축물인 과자공장을 개조해 대형 식품매장인 첼시마켓으로 재생하고, 인근 폐건물을 예술가들이 스튜디오로 사용하면서 300여 곳의 미술관과 갤러리가 밀집함



서울 문화비축기지



서울 문래창작촌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



부산 F1963



영국 테이트모던 갤러리



뉴욕 첼시마켓

구분	내용
서울 문화비축기지	• 개요 :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문화비축기지는 과거 석유 비축기지였던 곳을 재생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임. 산업유산이었던 석유 저장탱크를 전시관, 공연장,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재활용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킴 • 특징 :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채 새로운 용도로 변신시킨 점이 특징이며, 자연과 인간, 산업유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
서울 문래창작촌	• 개요 :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문래창작촌은 철공소 밀집 지역이었던 문래동 일대를 재생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임. 과거 산업시설이었던 건물들이 현재는 갤러리, 스튜디오, 카페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특징 : 기존 철공소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내부를 예술 창작 공간으로 재구성함.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과 전시, 공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문화예술과 산업유산이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제공함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	• 개요 :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대림창고는 과거 창고로 사용되던 산업유산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사례임. 현재는 카페, 갤러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며, 예술과 문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특징 : 대림창고는 기존의 산업적 외관을 유지하면서 내부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함. 특히,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시, 공연, 워크숍 등이 열리며, 젊은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음. 이는 과거 산업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부산 F1963	• 개요 :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F1963은 과거 와이어 공장이었던 KISCO(고려제강) 공장을 복합문화단지로 재개발한 공간으로, 전시, 공연, 책방, 카페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징 : 공장 특유의 산업적 미학을 최대한 살린 설계로, 원래의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예술과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함. 부산비엔날레 등 다양한 국제적인 문화행사의 개최지로 활용되고 있음
영국 테이트모던 (Tate Modern) 갤러리	• 개요 : 영국 런던에 위치한 테이트 모던은 과거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개조하여 만든 현대미술관임. 2000년에 개관한 이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현대미술관 중 하나로 산업유산의 성공적인 재활용 사례로 손꼽힘 • 특징 : 발전소의 독특한 건축적 요소를 보존하면서도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변신시켜 런던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가 됨. 이와 함께 런던의 도시재생에도 큰 역할을 함
뉴욕 첼시마켓 및 첼시 갤러리 지구	• 개요 : 부두와 가까운 첼시 지역은 선박 운송에 유리해 특히 소시지, 햄 등 미트 패킹 산업이 활발했던 공장 지대였으나, 철도 발달과 공장 이전 등으로 도시는 슬럼화되고, 갱단이 출몰할 정도로 낙후되었음. 그러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폐건물을 스튜디오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300여 곳의 미술관과 갤러리가 밀집한 예술 도시로 변모함 • 특징 : 첼시마켓은 미국 역사보존지구로도 지정된 1890년 근대건축물인 과자공장을 개조해 공공문화공간이 아니라 상업공간으로 재생한 사례이며, 첼시 갤러리 지구는 젊은 예술가들이 폐건물에 밀집하면서 미술관과 갤러리가 생겨난 사례임

출처 : 비짓부산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사랑, 오픈나루 홈페이지, Neutelings Riedijk ARCHITECTS 홈페이지(2024.8.27. 검색), 최수빈(2022.11.22.), 박계수(2018.5.15.); 연구자 직접 촬영(2024.4.16.)

❖ 추진입지

■ '산업단지 활용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입지는 동구에 위치한 동일방직과 일진전기 부지를 포함함[4)]

- 복합 입지 활용 : 동일방직과 일진전기 부지를 복합문화단지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제안함. 두 부지는 서로 다른 산업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복합문화단지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음. 또한, 두 부지의 상호 보완적 활용을 통해 복합문화단지의 규모와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기업 협력 필요성 : 이러한 복합 입지 활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기업은 부지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인천시는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복합문화단지 조성의 성공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함

■ 동일방직 부지 제안 근거

- 역사적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

  • 동일방직은 1933년 설립 이후 한국 섬유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상징적인 산업유산임. 특히, 동일방직은 여성 노동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장소로 섬유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가치도 지니고 있음. 이러한 역사적 상징성을 기반으로 동일방직 부지는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이루며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동일방직 부지를 활용한다면, 단순히 산업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근대산업의 유산과 노동운동의 상징성을 결합하여 다양한 교육적·역사적 콘텐츠를 지역주민과 국내외 방문객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우수한 접근성과 지역 연계 가능성

  • 동일방직 부지는 동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우수함. 인천 지하철 1호선, 주요 버스 노선과의 근접성 덕분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의 문화자원 및 관광명소와도 연계하기 쉬운 장점을 지님. 이러한 우수한 접근성은 향후 복합문화단지 방문객 유입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4) '동일방직'과 '일진전기' 모두 현재 생산기능이 중단된 채 일부 시설을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판매 의사가 없는 상황이므로 인천시가 부지 매입을 할 수 없을 경우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일부 부지를 문화 또는 공공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세제 혜택이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또는, 동일한 역사적·공간적 특성을 가진 지역 내 다른 유휴 산업유산 부지를 조사하여 대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해 진행하거나,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부지 중 문화재생 목적에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소유권 문제 없이 조성이 가능한 장소를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부지는 인천항과도 가까워 해양 산업유산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관광 자원화가 가능함. 문화적·관광적 자원을 결합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 유휴부지의 효과적 활용

• 동일방직 부지는 현재 일부 건물은 물류창고로 활용하며 일부 건물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유휴부지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단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기존 산업시설을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적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음

• 더불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새로운 시설의 추가로 복합문화단지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기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문화·상업 시설을 건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권 재생에도 기여할 것임

- 환경적 영향 최소화 및 지속 가능성

• 동일방직 부지의 재생은 기존 건물과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새로운 건설을 최소화하고 유산을 보존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건설 비용 절감과 환경적 부담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최소화를 통해 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음. 이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접근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음

-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 동일방직 부지에 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업적 활력 증대와 인근 상권의 재생이 예상됨

• 특히, 복합문화단지에서 제공되는 문화 프로그램, 전시, 교육 콘텐츠는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도 기대됨

■ 일진전기 부지 제안 근거

- 전기산업의 역사적 유산과 교육적 가치

• 일진전기는 1938년 설립된 이후 대한민국 전기산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국의 전기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함. 이러한 산업유산을 보존하여 전시관 및 박물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전기산업의 발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

- 우수한 접근성과 인프라 연계 가능성

• 일진전기 부지는 인천 동구 화수동에 위치하여 동인천역 및 인천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양호함. 차량으로는 약 4~5분 거리에 위치하며 버스 노선과의 연계도 가능하여 방문객들의 접근이 용이함. 이로 인해 향후 복합문화단지 조성 시 관람객 및 관광객 유입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음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일진전기 부지는 동구의 핵심 상업 및 산업지구와 인접해 있어 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되면 주변 상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관광객 증가와 상업적 활동의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문화자산 확대

• 일진전기 부지는 동구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주민 참여가 용이한 위치에 있음. 복합문화단지로 개발될 경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연계와 소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환경 및 경관 개선 가능성

• 현재 일진전기 부지는 산업지역으로 사용되면서 주거지와 분리된 대로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복합문화단지로 전환될 경우 이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부지 북쪽에 인접한 바다와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주변 경관 개선과 지역의 관광 자원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음

〔그림 3-6〕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 입지(안)



3)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필요성

■ 음악관문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 강화

- 인천은 서구 음악이 유입된 관문도시로, 부평구 신촌 일대에 다수의 대중음악 클럽이 형성되어 대중음악 자원이 풍부함. 특히,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 K-Rock을 선도하는 음악축제로 자리 잡으며 인천은 명실상부한 음악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음
-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부평 지역을 중심으로 음악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창작-유통-소비의 음악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천은 대중음악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와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 및 부평구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연계 후속 사업 추진

- 인천시가 2020년 12월에 발표한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에는 3대 추진전략과 9대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에 '음악산업 기반 및 음악인 역량 강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후속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인천광역시, 2020.12.)
- 또한, 부평구는 2021년 1월에 문체부가 지정하는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5년간 총 190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 지역 특성화 계획으로 음악 인프라 구축, 인력 발굴, 콘텐츠 개발, 교육 지원 등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옴. 2025년에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음악도시 사업의 성과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

〔표 3-11〕 관련 정책 동향

구분	조사 결과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 (2020.12.)	• 음악산업 기반 및 음악인 역량 강화(음악창작소 조성·운영,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개설, 음악산업 유치, 수제 악기제조샵 육성) • 음악자원 전용시설 건립(음악대학 유치, 국립한국대중음악자료원 건립 유치) • 음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음악전용 공연장 조성, 뮤직 레지던시 조성)
부평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2021~2030)	• 장소성 기반 음악자원 발굴·활용(애스컴 시티 및 캠프마켓 시대 음악 아카이브 및 활용, 1950~70년대 초 애스컴 시절의 음악 리메이크, 캠프마켓 뮤직 라이브러리 조성) • 지역뮤지션 및 기획자 지원(신인뮤지션 발굴 및 기존 뮤지션 활동 지원, 창제작 및 디지털음악 전문교육 지원) • D-Lab 및 비주류문화 기반의 로컬임팩트 확산(디지털뮤직랩 창제작·교육 프로그램 운영, 언더시티 커먼즈몰 실험 운영 및 조성, 캠프마켓 스트리트컬쳐 프로젝트)

출처 : 인천광역시(2020.12.) ; 인천광역시 부평구(2021)

■ 음악산업 창작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2024년 11월 기준, 인천시의 등록 예술인 중 음악 분야 예술인이 가장 많고, 부평은 인천 내에서도 음악예술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음악도시로서 자리를 잡고 있음

  • 전체 등록 예술인은 총 8,648명으로, 지역별로 부평구(1,698명, 19.63%) 〉 서구(1,617명, 18.70%) 〉 남동구(1,457명, 16.85%) 〉 미추홀구(1,131명, 13.07%) 순임

[표 3-12] 인천시 지역별 등록예술인 현황(2024.11. 기준)

(단위 : 명, %)

구분	총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인원	8,648	456	153	1,131	972	1,457	1,698	937	1,617	212	15
비율	100.0	5.27	1.77	13.07	11.24	16.85	19.63	10.83	18.70	2.45	0.17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2024.11.20. 검색)

  • 부평구의 분야별 등록 예술인 수는 음악(529, 31.2%명) 〉 미술(57명, 15.1%) 〉 연극(169명, 10.0%) 〉 문학(153명, 9.0%) 순으로, 음악 분야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함

[표 3-13] 부평구 분야별 등록예술인 현황(2024.11. 기준)

(단위 : 명, %)

구분	총계	건축	국악	만화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복수
인원	8,648	0	61	106	60	153	257	17	169	132	101	528	113
비율	100.0	0	3.6	6.2	3.5	9.0	15.1	1.0	10.0	7.8	5.9	31.2	6.7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2024.11.20. 검색)

- 그러나 창작 인프라와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음악예술인의 자생력이 약한 상황임. 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이러한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음악예술인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음악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음악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산업단지의 문화적 재생 필요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현재 일부 유휴공간과 노후화된 공장이 산재해 있음. 이 공간들을 방치하지 않고 문화적 재생을 통해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로 재창조함으로써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재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는 부평국가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이어서 부평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부평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부평구 청천동·십정동의 609,361㎡ 부지 대상으로 2028년까지 추진될 계획임(인천광역시, 2023.4.3.)

❖ 주요 내용

-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대중음악 창작, 유통, 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산업지구를 조성함. 이 클러스터는 음악 창작 스튜디오, 음향 장비 제조사, 음악 플랫폼 기업 등 음악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이를 통해 지역 음악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산업 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음악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 특히 공연장과 연계한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대중음악 소비자와 창작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 국가적 수준의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할 수 있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부평국가산업단지 또는 캠프마켓 부지 내에 설립함

  - 자료원은 전시실, 열람실, 교육실, 공연장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화시설로서 대중음악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 이 자료원은 음악 콘텐츠 연구와 개발의 허브로 기능하며,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건립을 추진함

- 시민음악대학 설립

  - 음악대학이 없어서 음악 전문인력과 음악인을 양성하기 어려운 인천시의 현실을 학제 시스템이 아닌 '열린 대학 개념'으로 접근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음악전문 학습기관 설립으로 타개함

  -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시민음악대학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음악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기관으로 활용함. 시민음악대학은 전통적인 학제와는 달리 열린 대학의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이를 통해 지역 음악 인재 양성과 대중음악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며, 나아가 부평 지역의 음악도시 브랜드를 강화함

  - 시민과 음악 창작자뿐만 아니라 음악산업 전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하도록 함. 시민음악대학은 음악 창작, 기획, 공연 운영, 음향 기술,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도 제공하여, 음악산업의 창작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

❖ 추진단계

■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기획 • 시민음악대학 설립을 위한 운영계획 및 기초 설계	•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주요 시설 설립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및 운영 준비 • 시민음악대학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클러스터 자립 및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확립 •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장기 운영 및 연구 활성화 • 시민음악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 단기(2025~2026년) :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기초 기반 마련 및 계획 수립

-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내용 : 부평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추진방안 :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함. 예상 비용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기획

  • 사업내용 : 국가적 수준의 대중음악 자료 수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립 기초 계획을 수립함

  • 추진방안 : 대중음악 관련 자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자료 수집 및 보존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료원의 공간 설계와 관련 인프라 필요성을 검토함. 인천 상징 노래, 인천 출신 가수 등 음악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음악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확보함

- 시민음악대학 설립을 위한 운영 계획 및 기초 설계

  • 사업내용 :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음악 교육 시설로서의 시민음악대학 설립을 위한 운영 계획과 기초 설계를 마련함

  • 추진방안 : 지역 음악 전문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기초 설계를 진행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중기(2027~2030년) : 주요 시설 설립 및 콘텐츠 운영 준비

-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주요 시설 설립

  • 사업내용 : 대중음악 창작 스튜디오, 녹음실, 공연장, 전시공간 등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들을 구축하여 음악 창작 및 공연 인프라를 확립함

• 추진방안 : 클러스터의 주요 시설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고, 민간기업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운영 및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브랜딩 작업을 진행함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및 운영 준비

• 사업내용 :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시할 수 있는 자료원을 설립하여, 대중음악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 추진방안 : 자료 전시 및 열람실을 포함한 자료원 설립 공사를 진행하며, 자료원의 운영 방식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을 준비함

- 시민음악대학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업내용 : 시민음악대학을 설립하고, 지역주민과 음악 인재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추진방안 : 지역 음악 전문가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준비를 진행함

■ 장기(2031~2040년) : 지속 가능한 클러스터 운영 및 글로벌 확장

- 클러스터 자립 및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확립

• 사업내용 : 클러스터의 자립을 위해 상업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 추진방안 : 클러스터 내 문화콘텐츠와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을 위한 재정 기반을 확보함

-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장기 운영 및 연구 활성화

• 사업내용 : 자료원을 국내외 대중음악 연구 및 교류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대중음악 자료의 보존 및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함

• 추진방안 : 자료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대중음악 전문가와 협력하여 연구 및 교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함

- 시민음악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 사업내용 : 시민음악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인재 양성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음악 네트워크를 강화함

• 추진방안 : 장기적으로 음악 관련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민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음악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함.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한 '2013 썸머 뮤직 플레이 캠프'와 같은 실용음악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함(김현지, 2013.7.10.)

❖ 법제도·추진체계

■ 법적 기반 마련

-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러한 법적 기반은 클러스터가 국가 차원의 콘텐츠산업 진흥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함. 또한, 클러스터 내 창작, 유통, 교육, 공연 등의 다양한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조례 제정 및 개정

-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함. 이러한 조례는 클러스터의 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명문화함
- 특히, 인천시와 부평구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도 클러스터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춤

■ 추진체계 구축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다층적 추진체계를 구축함.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정책적 방향 제시와 재정적 지원, 인천시와 부평구는 사업 관리와 행정적 지원, 민간기업은 기술적·상업적 역량과 투자, 지역주민은 참여와 소통을 담당함
-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함. 특히,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함

■ 재정 지원 및 민관 파트너십 구축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자금과 운영 자금을 마련함. 국비와 지방비를 조성하여 사업 초기부터 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며,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적 역량 강화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
- 특히, 클러스터 내에서 콘텐츠산업과 창작활동의 연계를 강화하여 음악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적 구조를 구축함

❖ 기대효과

■ 지역문화 자산의 보존 및 확산

-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는 부평구의 음악적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함. 대중음악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를 통해 부평구가 지닌 역사적 장소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자료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대중음악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됨. 이는 부평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대중음악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해석되어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대함. 이를 통해 부평구는 문화자산의 가치 확산과 함께 창의적 문화 도시로 자리 잡을 것임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부평구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제공함. 관광객 증가와 음악 관련 상업시설 활성화로 인해 지역 내 소규모 상점, 카페, 숙박업 등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임. 또한, 클러스터의 운영, 공연 기획, 음반 제작, 홍보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와 관련된 관광·서비스 산업에서도 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 관광 자원화 및 국내외 인지도 상승

-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는 독창적이고 교육적인 대중음악 콘텐츠를 통해 부평구를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것임. 음악 관련 체험 프로그램, 페스티벌,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부평구는 인천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이를 통해 부평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크게 증대될 것임

■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진화하는 문화공간으로 유지될 것임. 특히, 창작자들과 협력한 새로운 음악 콘텐츠 개발, 디지털 기술과 음악의 융합 등 혁신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클러스터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

- 이러한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은 지역사회와 경제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임. 이를 통해 부평구는 장기적인 문화·경제 발전의 축으로 성장할 것임

❖ 관련 사례

※ 부산광역시 센텀문화산업진흥기구와 문체부 산하 한국영상자료원



구분	부산광역시 센텀문화산업지구	한국영상자료원
개요	• 위치 및 면적 : 해운대구 우송·재송동 일원 53필지(343.959㎡) • 중점 유치업종 : 영화·영상, 게임, 문화콘텐츠 • 지정목적 : 21세기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대응하고 해양도시 부산의 잠재적 문화산업 여건을 최대한 활동하여 영화·영상,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위치 및 면적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일원(16,500㎡) • 한국 영화와 영상문화의 보존, 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 • 영화 필름과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영화 및 영상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음. 한국 영화의 역사와 문화를 후세에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상세 내용	• 입주기업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콘텐츠산업 사업체 총 270개, 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총 297개 • 관련 시설 : 부산영상위원회(영상산업센터,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사운드스테이션, 부산 영화촬영 스튜디오),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영화의 전당,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보유 자료 : 영화 필름, 비디오, 시나리오 등 약 150만 점의 자료를 보유, 한국 영화 역사를 보존 • 관련 시설 : 복원·디지털화 시설, 연구실, 전시실, 상영관을 갖추고, 영화 복구와 보존 작업을 진행 • 주요 프로그램 : 영화 복원, 교육 프로그램, 전시회를 통한 영화 제작 기술과 역사 관련 교육 및 홍보
시사점	• 공간적·산업적 집중화 : 부산광역시 센텀문화산업지구와 한국영상자료원 사례에서 보듯이 관련 산업체 및 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도 부평구 내 특정 구역에 관련 기업과 기관을 집중 배치하여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다양한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복원·디지털화 시설과 부산의 영상산업센터와 같은 다양한 지원 시설들이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내에도 필요함 • 문화콘텐츠의 교육 및 홍보 : 문화콘텐츠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함.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회 등을 통해 대중음악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출처 : 최영화·이선정(2022); 부산영상산업센터(http://www. bvic.kr/index.do); 한국영상자료원(www.koreafilm.or.kr)

※ 미국 동부 엔터테인먼트산업 클러스터 브로드웨이(Broadway)



브로드웨이 극장 지구



브로드웨이 극장가



민스코프극장(Minskoff Theatre)

구분	내용
개요	• 브로드웨이는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는 공연예술거점으로서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이 진행되는 극장들이 모여 있음. 맨해튼의 남쪽 끝과 북쪽 끝을 잇는 긴 거리로, 거리 명칭으로서의 개념보다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연극·뮤지컬계를 일컫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웨스트 42번가에서 웨스트 53번가에 걸친 브로드웨이의 극장 지구에는 약 40여 개의 극장이 들어서 있으며, 〈캣츠〉, 〈시카고〉, 〈라이온킹〉, 〈오페라의 유령〉, 〈위키드〉, 〈알라딘〉 등 공연을 보기 위해 하루 약 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함
시사점	• (공연문화산업과 마이스(MICE) 산업의 융합) 브로드웨이는 타임스스퀘어와 맞닿아있어서 공연예술작품 관람 외 관광과 쇼핑을 함께 즐기는 관광객의 방문이 끊이질 않음. 문화소비 및 향유와 관광산업 간 연계를 통한 도시브랜딩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관광회의전사유통 등 타 산업부문과의 유기적 연계로 인해 브로드웨이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에도 대중음악과 공연예술작품의 창작 육성 및 유치와 함께 관내 마이스 산업과의 융합 산업전략 모색이 필요함 • (문화산업 클러스터 집적화 방안 모색 필요) 브로드웨이 구역에는 41개 극장이 집적해있고, 인근 타임스스퀘어에는 엔터테인먼트사, 언론사,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었음. 인천시에도 과거 소극장이나 라이브음악 클럽이 다수 밀집해 있었던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사라진 상황임. 한편 인천시가 2020년 12월에 발표한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에서는 부평구 캠프마켓 인근으로 음악산업체를 유치하는 정책과제가 2023년 이후 추진될 장기플랜으로 제시되어 있음. 음악, 연극, 뮤지컬 등 공연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링 전략이 중요하므로 관련 업체와 기관의 자발적인 집적을 통한 문화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출처 : 연구자 직접 촬영(2024.4.16.); 플레이빌(https://playbill.com)

❖ 추진입지

■ 부평국가산업단지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의 산업 부지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음악 관련 기업들이 집적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함. 또한, 기존의 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창작, 제작, 유통까지의 음악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역사적 배경 및 상징성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한국의 산업화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옴. 이 지역은 특히 음악과 같은 문화산업과도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음악산업과 연계된 음향장비 제조, 음반 제작, 디지털 콘텐츠 생산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함께 집적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산업 인프라 및 공간의 확장성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의 산업 부지와 기존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음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충분한 공간적 여유를 제공함. 기존의 건물과 설비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건설을 통해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창작, 제작, 유통까지의 음악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음. 특히, 음악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녹음 스튜디오, 공연장 등의 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잠재적 여력이 있어 음악산업의 집적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보임

  • 경제적 및 정책적 지원 가능성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정부의 경제적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큼. 이는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며, 지자체와의 협력 또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인천시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문화산업으로 재생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방향성과 부평국가산업단지의 클러스터 조성이 부합함

■ 캠프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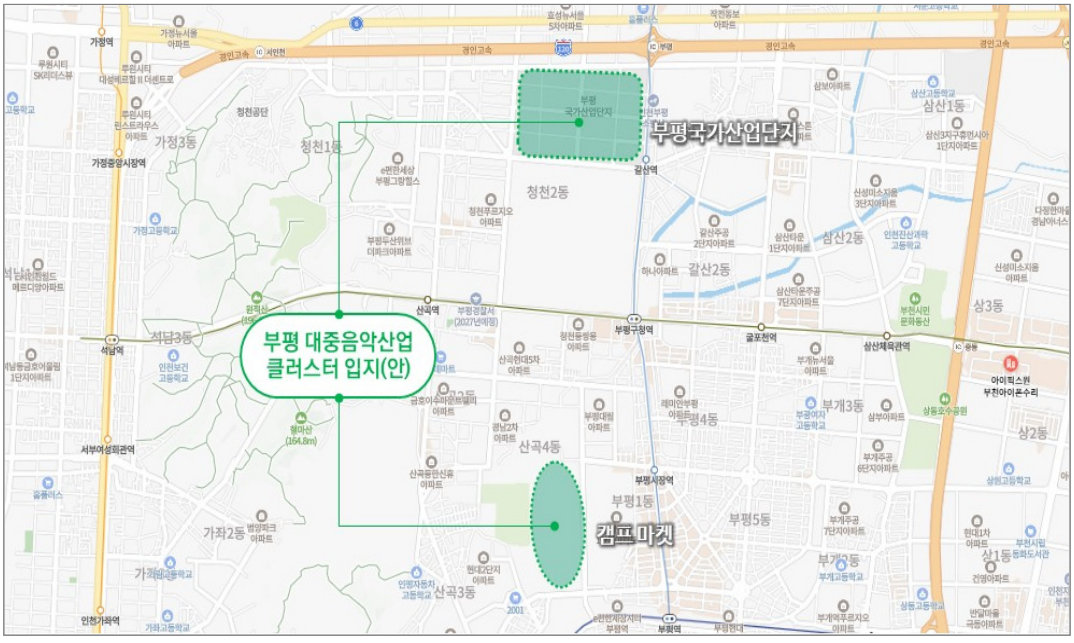
- 과거 군수물자 생산을 담당했던 캠프마켓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것이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적합함. 캠프마켓은 특히 대중음악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성 또한 지니고 있어, 음악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캠프마켓 내에는 현재 인천음악창작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추가로 전시공간, 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대중음악과 연계한 문화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역사적 가치 및 문화적 장소성 : 캠프마켓은 과거 군수물자 생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자 미군 부대가 위치해 있었던 장소로서 한국 대중음악의 형성 및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상징적 장소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캠프마켓이 지닌 문화적 장소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토양정화 및 활용 가능성 : 캠프마켓 부지는 현재 일부 토양오염 문제가 있지만 향후 환경정화를 통해 문화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 캠프마켓을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부평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대중음악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음

■ 부평국가산업단지와 캠프마켓 간의 연계

- 부평국가산업단지와 캠프마켓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두 지역을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주로 기업체와 산업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캠프마켓은 대중음악과 관련된 창작·공연·전시 활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부평구는 음악산업의 창작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부평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악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그림 3-7〕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입지(안)



4)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 필요성

■ 수도권 매립지의 활용 필요성

-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를 담당해 온 주요 시설로, 2025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음.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했으나, 대체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향후 수도권 매립지를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생태문화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매립지를 지속 가능한 생태공간으로 전환할 경우, 인천의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임

■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 해결 필요성

-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환경적 피해를 겪어왔으며, 악취, 오염 등으로 인한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해 왔음. 수도권 매립지를 생태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 문화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생태 및 문화교육의 중요성

- 현대 사회에서 생태 및 환경 교육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시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과 실천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수도권 매립지를 생태체험학습장, 야생화식물원, 생태문화도서관, 미술관, 음악당,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교육 및 문화시설로 재구성함으로써 수도권 시민들과 학생들이 생태환경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지역사회에서의 환경 교육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예술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 수도권 매립지를 생태와 문화예술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천 서구 및 수도권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생태적 복원과 함께 예술적 창의성을 결합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생태문화행사 및 축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 주요 내용

- 수도권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 수도권 매립지 내에 생태체험학습장, 야생화식물원, 생태문화도서관, 미술관, 음악당,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한 생태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수도권 시민들에게 생태 및 환경 교육과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함. 야생화식물원과 생태체험학습장은 시민들이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미술관과 음악당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

- 생태문화교육원 설립을 위한 TF(Task Force) 구성

  - 수도권 매립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협력하여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함. 이 TF는 공간 설계와 조성 계획, 예산 편성 및 배분, 시설 운영 모델 개발 등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함. 또한, 지속 가능한 환경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생태문화복합공간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함

- 생태문화복합공간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 생태문화복합공간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함. 이 계획은 생태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 및 개발하며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도입함

  - 또한, 환경친화적 시설 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건축물 적용, 폐기물 감축 시스템 등 지속 가능한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생태문화복합공간의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함

- 문화적·경제적 연계 활성화

  - 생태문화복합공간은 교육 및 문화시설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연계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이를 위해 지역 예술가와 문화단체,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함

  - 야외공연장과 미술관을 활용한 정기적인 예술축제 및 문화행사를 통해 수도권 시민들과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관광 자원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추진단계

■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부지 선정 및 협약 체결 • 생태자산 수집 및 콘텐츠 연구	• 생태문화복합공간 주요 시설 설립 •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준비 •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확립 • 장기적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생태문화 예술 관련 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단기(2025~2026년) : 기초 기반 마련 및 계획 수립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내용 :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함. 기본구상 및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함

  • 추진방안 :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예상 비용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조정 작업을 지속함

- 부지 선정 및 협약 체결[5)]

  • 사업내용 : 수도권 매립지를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과 재정 지원을 확보함

  • 추진방안 :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부지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를 진행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강화함

- 자료 수집 및 콘텐츠 연구

  • 사업내용 : 복합문화공간의 핵심 콘텐츠 구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시작함. 수도권 매립지의 생태적 유산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시콘텐츠를 개발함

  • 추진방안 : 국내외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복합문화공간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함

■ 중기(2027~2030년) : 주요 시설 설립 및 콘텐츠 운영 준비

- 복합문화공간 주요 시설 설립

  • 사업내용 : 생태체험학습장, 야생화박물관, 생태문화도서관, 미술관, 음악당, 야외공연장 등 핵심 시설들을 설립하고,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를 위해 복합공간 브랜딩 전략을 수립함

---

5) 인천시가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선언했으나, 현재 대체 매립지 확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의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2025년에 종료가 되지 않을 시 보완적으로 추진을 모색함. 이와 관련하여 정책제언 부분에 대안을 기술함

- 추진방안 : 주요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되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건설함. 민간기업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복합공간에 입주할 기관을 유치하고 브랜딩 작업을 진행함

-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준비

- 사업내용 : 복합공간 내에서 운영될 다양한 생태 및 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 추진방안 :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와 협력하여 콘텐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함.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함

-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 지역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생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함. 마을교육 및 학교교육과 생태문화교육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교육대상과 내용을 확장해나감
- 추진방안 :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생태문화예술 관련 매개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함. 예술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복합공간 내에서 운영함

■ 장기(2031~2040년) : 운영 안정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확립

- 사업내용 : 생태문화복합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확립함
- 추진방안 : 복합공간 운영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모색함. 국내외 유사 사례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복합공간의 글로벌화를 추진함

- 장기적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복합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갱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함
- 추진방안 :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복합공간의 콘텐츠를 시대적 요구에 맞춰 다각화·다양화함. 생태문화예술 주제의 연례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여 공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감

❖ 법제도·추진체계

■ 법적 기반 마련

-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기반으로 매립지의 환경적 관리와 문화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및 환경 개선 조례」를 개정하여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에 필요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강화함. 해당 조례는 주민 지원 및 환경 개선 조항을 포함하여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환경 보존과 문화적 활용을 병행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함

■ 관련 계획과의 연계

- 수도권 매립지 활용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과 제도를 활용함. 특히, 인천시의 환경·문화 관련 중장기 계획과 중앙정부의 환경 정책 및 도시재생 전략과 연계하여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재정 지원의 매칭펀드 조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임

■ 추진체계 구축

-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 이를 위해 TF 조직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과 진행 일정을 점검하며 실행력을 확보함. 또한, 민간기업, 문화예술단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감

■ 재정 및 행정 지원 확보

-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민간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함.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생태 관련 지원금(예 : 생태특별지원금, 환경보전기금 등)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조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기반을 마련함. 행정적 지원으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함

❖ 기대효과

■ 수도권 시민의 생태문화예술 향유 거점 마련

- 수도권 매립지는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시민들에게 생태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것임. 생태체험, 환경교육, 예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이를 통해 매립지가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 인식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인천 서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서구에 생태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함. 이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특히,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문화적 소통이 촉진될 것임

■ 문화유산 보존 및 생태문화 확산

-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은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확산할 수 있음. 환경보전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통해 방문객들은 생태 및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고 생태문화 중심의 지역 정체성이 강화됨. 또한, 환경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며 생태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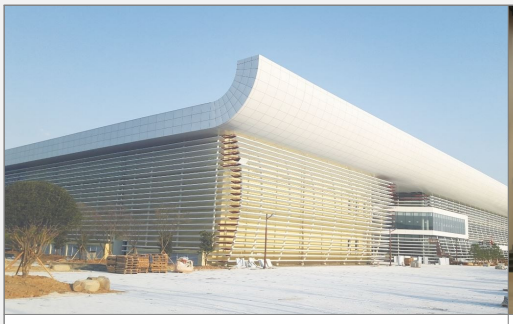
■ 관광 명소화 및 국제적 인지도 상승

- 생태문화복합공간은 독창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통해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임. 특히,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로서 생태와 문화가 융합된 공간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생태관광과 문화예술 체험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것임

- 공간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되면 인천 서구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고, 국제적 문화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천 서구는 생태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임.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관련 사례

※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전경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공연장



교육과정 연계 생태체험학습



탄소중립 교육

구분	내용
개요	•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은 2019년 6월에 개원한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생태적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 순천시가 제공한 부지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총 488억 원을 들여 설립된 교육원은 생태환경교육, 진로체험교육, 생태캠프 등을 운영하며, 생태적 소양과 환경 보호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홀, 공연장, 회의실, 콘코스홀, 생태인문도서관, 체험관,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이 있음 • 이 교육원은 박람회, 전시 행사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주요 활동	• 생태환경교육 : 교육과정 연계 생태체험학습,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교육, 생태환경동아리 지원, 교육과정 연계 습지학교 지원, 생태환경교육 역량강화 연수, 생태문화 평생교육, 생태문화 공감 전시회 • 생태인문도서관 : 생태인문자료실, 청소년열린제작실, 동아리활동실
시사점	•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은 생태교육과 문화를 결합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모델임 • 대규모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는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 문화와 경제의 융합적 발전을 촉진함. 앞으로도 유사한 생태문화 복합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됨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https://jseco.jne.go.kr/index.es?sid=d4)

❖ 추진입지

- ‘수도권 매립지의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주요 입지는 서구 백석동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를 포함한 부지로 설정함
- 서구 백석동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 수도권 매립지 내에 위치한 백석동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이미 대규모 생태녹지 공간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친숙한 생태공간임. 이 지역을 기반으로 생태체험 학습장, 야생화식물원, 생태문화도서관, 생태미술관, 음악당,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하는 생태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의 생태공간과 문화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
- 매립지 활용의 최적지
  -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수도권 매립지의 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입지로, 기존의 폐기물 처리 시설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환경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도 넓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접근성과 확장 가능성
  - 서구 백석동 지역은 서울, 경기도와 인접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며 향후 생태문화복합공간의 확장 가능성도 충분함. 특히, 인천국제공항과의 대중교통 근접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문화 교류와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를 통해 수도권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방문객들이 찾는 주요 문화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음

〔그림 3-8〕 수도권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안)



5)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

❖ 필요성

■ 강화도의 역사적 중요성

- 강화도는 고려 시대의 수도 역할을 수행한 한강 이남 유일한 지역으로, 고려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내에는 고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관리·조사·발굴 및 활용할 전문 박물관이 부재함
- 국내 유일의 고려문화재연구원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해 있어 고려 유산의 중심지인 강화도에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삼국시대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왕조의 수도역할을 했던 지역은 인천 강화를 포함해 서울, 경주, 공주, 부여 등인데, 이들 지역 중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박물관이 없는 곳은 강화도가 유일함

■ 유물 발굴·보존과 활용의 시급성

- 현재 강화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유물 중 고려 관련 유물은 총 194점이며, 강화도에서 출토된 고려 유물 가운데 국가에 귀속된 유물은 4천 164점에 달함. 강화도는 추가 발굴을 거쳐 더 많은 유적과 유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 관리할 박물관이 없어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 특히,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도의 역사적 위상을 반영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이 필요함. 이로써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강화군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

- 2023년 말에 강화군이 실시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강화군은 총사업비 700억 원을 들여 연 면적 1만㎡ 규모의 국립고려박물관 조성을 구상 중임
- 이는 강화도가 고려 유적과 유물의 발굴과 관리를 위해 국립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청사진으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원이 필수적임. 국립박물관 설립을 통해 고려 유물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

  - 고려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물관으로, 강화도의 역사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테마형 박물관으로 조성함. 박물관은 고려의 역사, 특히 대몽항쟁을 주제로 하여 특화된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고려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함. 이와 함께 강화도와 그 인근 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과 유적을 통합하여 전시함으로써 현장성을 극대화함

- 대몽항쟁 특성화 테마형 박물관 조성

  - 강화도는 대몽항쟁 시기에 수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 박물관은 이를 중심으로 고려 시대의 군사적·정치적 상황을 다루는 전시를 구성함. 관련 유물과 역사적 자료를 통해 대몽항쟁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며, 방문객들에게 고려의 역동적인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현장성과 디지털 매체를 결합한 전시

  - 강화도 고려 궁지 인근에 박물관을 설립하여 현장성과 역사적 맥락을 살린 전시를 구성함. 유물 전시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및 실감형 매체를 활용해 유물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려 시대의 유적과 역사를 보다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고려 유적을 3D 모형, VR 등으로 재현함으로써 방문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박물관의 교육적 가치를 강화함

- 현대적 전시 기법 도입

  - 전시유물이 부족할 경우, 최신 디지털 기술과 실감형 매체를 활용해 강화도 및 고려시대의 유적을 실감 나게 재현함으로써 방문객들이 고려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박물관은 역사적 현장감을 제공하며, 고려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함

-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박물관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화도의 역사적 장소성을 활용한 문화관광을 활성화함. 역사적 유적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고려시대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을 추진함

  - 특히, 접근성이 낮은 강화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관광버스를 운영하여 관광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강화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추진단계

■ 고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함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부지 선정 및 협약 체결 • 유물 수집 및 콘텐츠 연구	• 박물관 건립 및 전시 인프라 구축 • 콘텐츠 개발 및 전시 프로그램 준비 •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박물관 운영 안정화 및 확장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관람객 유치 및 마케팅 강화

■ 단기(2025~2026년) :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초 기반 마련 및 계획 수립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내용 :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고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추진방안 : 중앙정부, 강화군, 인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타당성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예상 비용과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부지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내용 :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고 소유권 확보 및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함

  • 추진방안 : 강화군 내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부지를 우선 검토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의견 수렴과 협력 관계를 강화함

- 유물 수집 및 콘텐츠 연구

  • 사업내용 :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의 핵심 콘텐츠 구성을 위한 유물 수집 및 연구를 시작함. 고려시대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콘텐츠를 개발함

  • 추진방안 : 국내외 관련 유산과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박물관 전시콘텐츠로 활용함. 학술적 연구와 현지답사를 통해 콘텐츠의 역사적·문화적 타당성을 확보함

■ 중기(2027~2030년) : 주요 시설 설립 및 콘텐츠 운영 준비

- 박물관 건립 및 전시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주요 전시 및 교육 인프라를 구축함

- 추진방안 : 박물관 건축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함. 전시관, 교육시설, 디지털 전시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함

- 콘텐츠 개발 및 전시 프로그램 준비

- 사업내용 : 박물관 내 전시할 고려시대 관련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함
- 추진방안 : 전시 기획 전문가와 협력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집된 유물과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

-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추진방안 : 지역 학교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박물관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함

■ 장기(2031~2040년) : 박물관 운영 안정화 및 확장

- 박물관 운영 안정화 및 확장

- 사업내용 : 박물관 운영을 안정화하고, 필요시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박물관의 기능을 강화함
- 추진방안 : 박물관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재정 계획을 수립함. 필요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공간 및 콘텐츠를 확장하여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함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 추진방안 : 국내외 박물관,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강화고려박물관의 연구와 전시 내용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 고려시대 유산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 전시 교류 등을 통해 박물관의 위상을 높임

- 관람객 유치 및 마케팅 강화

- 사업내용 : 강화도 및 인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의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람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함
- 추진방안 : 디지털 마케팅,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을 통해 박물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박물관이 관광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

❖ 법제도·추진체계

■ 법적 기반 마련

-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활용함. 주요 법적 기반으로는 「국가유산기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이 있음. 이 법률들은 고려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립박물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
- 또한, 강화군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함. 이러한 법적 기반은 박물관의 공공성과 역사적 역할을 강조하고,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임

■ 관련 계획과의 연계

-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문화유산 보존 및 지역 발전 관련 계획을 적극 활용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된 지역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계획들이 강화군의 역사문화 관광 발전과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된 보존 및 관리 계획을 통해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이 법적 및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함

■ 추진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협력하여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을 추진함. 이를 위해 박물관 설립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일정을 점검함
- 또한, 고려문화유산 전문가, 역사학자, 박물관 운영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물관의 기획, 설계, 운영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받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하여 박물관 설립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되도록 함

■ 재정 및 행정 지원 확보

-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함
- 특히, 국가유산청과 협력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지원금을 확보하며, 필요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의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마련함

❖ 기대효과

■ 고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은 고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고려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임. 기존에 흩어져 있던 유물들을 통합 관리하고, 대중에게 체계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고려 문화를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임

- 박물관을 통해 학술연구와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고, 고려 유산이 교육 콘텐츠와 연구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창출될 것임

- 또한, 이러한 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하여 문화유산의 사회적·경제적 활용 가치를 증대시킬 것임

■ 강화도의 '지붕 없는 박물관' 브랜드화

-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은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전쟁박물관 등 지역의 역사 관련 박물관과 연계하여 강화도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브랜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강화도는 이미 풍부한 고려 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의 설립으로 고려시대의 역사적 현장성과 문화적 유산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다양한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강화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강화도가 역사적, 문화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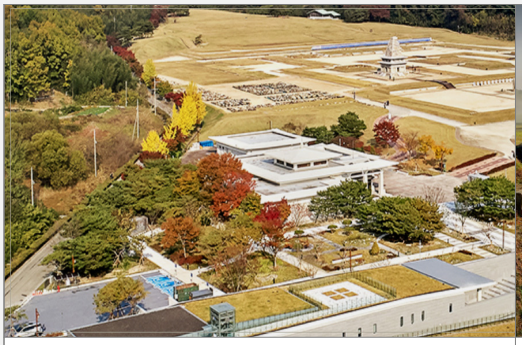
■ 고려 역사 및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

-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은 단순히 국내 역사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음. 고려시대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박물관은 동아시아 및 세계사적 관점에서 고려사를 조망할 수 있는 연구 및 교육의 장이 될 것임

- 이를 기반으로 국제 학술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으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음. 강화도는 이러한 학술적, 문화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역사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강화도의 역사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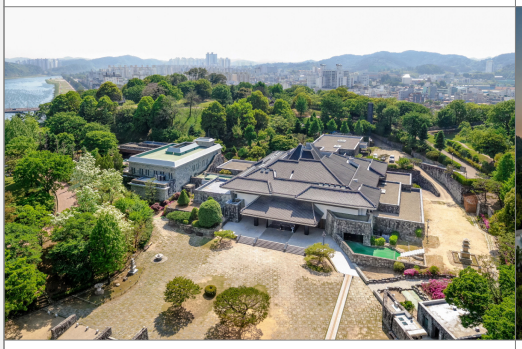
※ 테마형·현장형 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홍콩해안경비박물관

구분	내용
국립익산 박물관	•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개관 운영 • '미륵사지' 등 인근 유적과 연계한 박물관으로서 (가칭)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유적지와 연계해 건립할 경우 현장형 박물관의 사례가 될 것임 • 익산백제실, 미륵사지실, 역사문화실, 기획전시실, 문화상품점 등으로 구성
국립진주 박물관	• 1984년 개관, 임진왜란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사회와 역사,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 전시, 교육 기능을 수행하며, 본관, 별관(기획전시실), 사무동 등으로 구성 • '임진왜란'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다양한 특별전과 학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례가 될 수 있음
홍콩 해안경비 박물관	• 홍콩 역사박물관 소속 5개 박물관 중 하나. 2000년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 • '해안경비'라는 특수함과 더불어 인근에 다양한 방어 유적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시기 대몽항쟁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는 (가칭)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에 참조가 됨 • 참호, 어뢰, 막사, 탄약고, 석탄저장고, 사격 진지 등 여러 종류의 시설로 이루어짐 – 요새(전시장), 역사 탐방로(야외), 리셉션(출입구, 로비, 강당) 등 세 부분으로 구성

출처 : 이형우 외(2023). 강화 국립고려박물과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 국립익산박물관, https:/ /iksan.museum.go.kr/; 국립진주박물관, https://jinju.museum.go.kr/kor/html/sub01/010401.html; 홍콩해안경비박물관, https://hk.coastal defence.museum/tc/web/mcd/home.html

❖ 추진입지

■ 고려 궁지 인근에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신설

-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의 입지는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에 위치한 고려 궁지 인근으로 제안함. 이 지역은 고려 왕조의 수도 역할을 했던 중요한 역사적 유적지로, 박물관이 들어섬으로써 강화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임

■ 고려 궁지의 역사적 의미

- 고려 궁지는 고려가 몽골 침략에 맞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며 조성한 주요 관청과 궁궐이 위치했던 중심지로, 몽골 제국과의 장기 항쟁을 통해 고려 왕조의 정체성을 지킨 상징적 장소임. 이곳에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설립함으로써 현장성과 역사적 배경을 더욱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으며, 고려 시대의 역사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전달할 수 있음 (이형우 외. 2023)

■ 주변 박물관과의 시너지

- 고려 궁지 인근에는 강화역사박물관과 강화전쟁박물관이 이미 위치해 있음.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이 신설될 경우, 기존 박물관들과 연계된 박물관 투어 코스를 형성하여 강화도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브랜드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강화도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유물의 현장성 확보

- 강화도는 고려 시대의 수도였던 장소로, 이곳에 박물관을 설립함으로써 고려 유물과 유적의 원래 맥락을 살린 전시가 가능함. 방문객은 단순한 유물 감상이 아닌, 해당 유물이 있었던 실제 공간에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역사 교육 및 문화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강화도의 관광 활성화와 접근성

- 강화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으며, 강화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고려 궁지 인근에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신설함으로써 강화도의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이를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음

〔그림 3-9〕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안)



04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04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1.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 현황

1) 역사문화관광 자원 및 시설 현황

❖ 역사문화관광자원 현황

- 개항장 일대에는 근대역사문화와 관련된 건축물 및 시설·공간과 인물, 사건·문물 등의 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함
  - 내항 일대에는 근대 개항 및 항만·물류·산업과 관련된 구조물 및 시설·공간과 사건·문물 등의 자원이 산재함[6]([표 4-1], 〔그림 4-1〕 참조)
- 개항장 일대에는 근대 시기의 식민지 수탈 및 서구 열강의 무역 경쟁 속에서 설치된 은행, 우편, 세관 등의 공공기관, 업무·상업·교육·종교시설, 주거공간, 공장·창고 등이 집적함
  - 다수의 자원들이 지정·등록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전시관람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됨
- 내항 일대에는 국내 최초 갑문, 부두, 사일로, 인천세관, 창고, 철도 등의 항만·물류·산업 관련 구조물과 시설·공간, 인천 내항 수공간(정온수역), 개항, 인천상륙작전 등 사건·문물 자원이 산재함

6) 역사문화관광 자원 내용은 기윤환·최민아(2023), 심진범·김지선(2022), 안내영·김영은·안지현(2023) 참조하여 작성함

■ 개항장·내항 일대 역사문화자원은 개항장 일대의 근대문화유산과 내항 일대의 항만·산업유산 및 친수자원으로 구성되며, 다수의 자원이 전시관람 및 문화공간, 도보관광·공연재현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

〔표 4-1〕 개항장·내항 주요 역사문화관광 자원

구분		명칭	구분		명칭
개항장	공공기관 업무시설	인천일본제1은행지점	개항장	기타 공간 및 시설	청국조계(청관)
		인천일본제18은행지점			각국조계
		일본제58은행지점			인천역
		인천부청사			각국 공원(최초 서구식 공원)
		영국 영사관 터		인물	백범 김구
		인천미두취인소 터			호머 헐버트
		인천세관(해관) 터			헨리 아펜젤러
		인천우편국			김수근
		인천감리서 터		사건·문물	식민지 수탈 역사
		인천전환국 터			서구열강의 국제무역 경쟁
	상업시설	인천 선린동 공화춘			종교 전파의 출발지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국내 야구의 시발지
		일선빌딩			경인철도
		대불호텔 터			양탕국
		세창양행터			최초의 시외 전화
	교육시설	화교중산학교			근대적 상설시장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내항·월미	공공기관 업무시설	인천세관
	종교시설	제물포본당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내리교회		공장·창고 산업시설	대한 사일로/곡물창고
		내동 성공회성당		기타 공간 및 시설	갑문
	주거공간	인천 대화조 사무소			1부두
		제임스 존스턴 별장터			7부두
		오례당 주택 터			월미도 조탕
	공장·창고 산업시설	인천 세관 창고와 부속동			월미도 유원주식회사
		해안동 1가 5번지 창고			적색해안(레드비치)
		해안동 2가 7번지 창고			녹색해안(그린비치)
		타운센트 정미소			소월미도 등대
		조선정미주식회사		인물	더글러스 맥아더
		조선운송주식회사 창고			유항렬
	기타 공간 및 시설	제물포구락부		사건·문물	개항
		협률사			하와이 이민사
		일본조계			인천상륙작전

주 : ■ 표시한 자원은 현재 전시관람 및 문화체험 공간, 카페 등으로 활용 중인 자원을 의미
출처 : 기윤환·최민아(2023), 심진범·김지선(2022), 안내영·김영은·안지현(2023) 참조 작성

❖ 역사문화관광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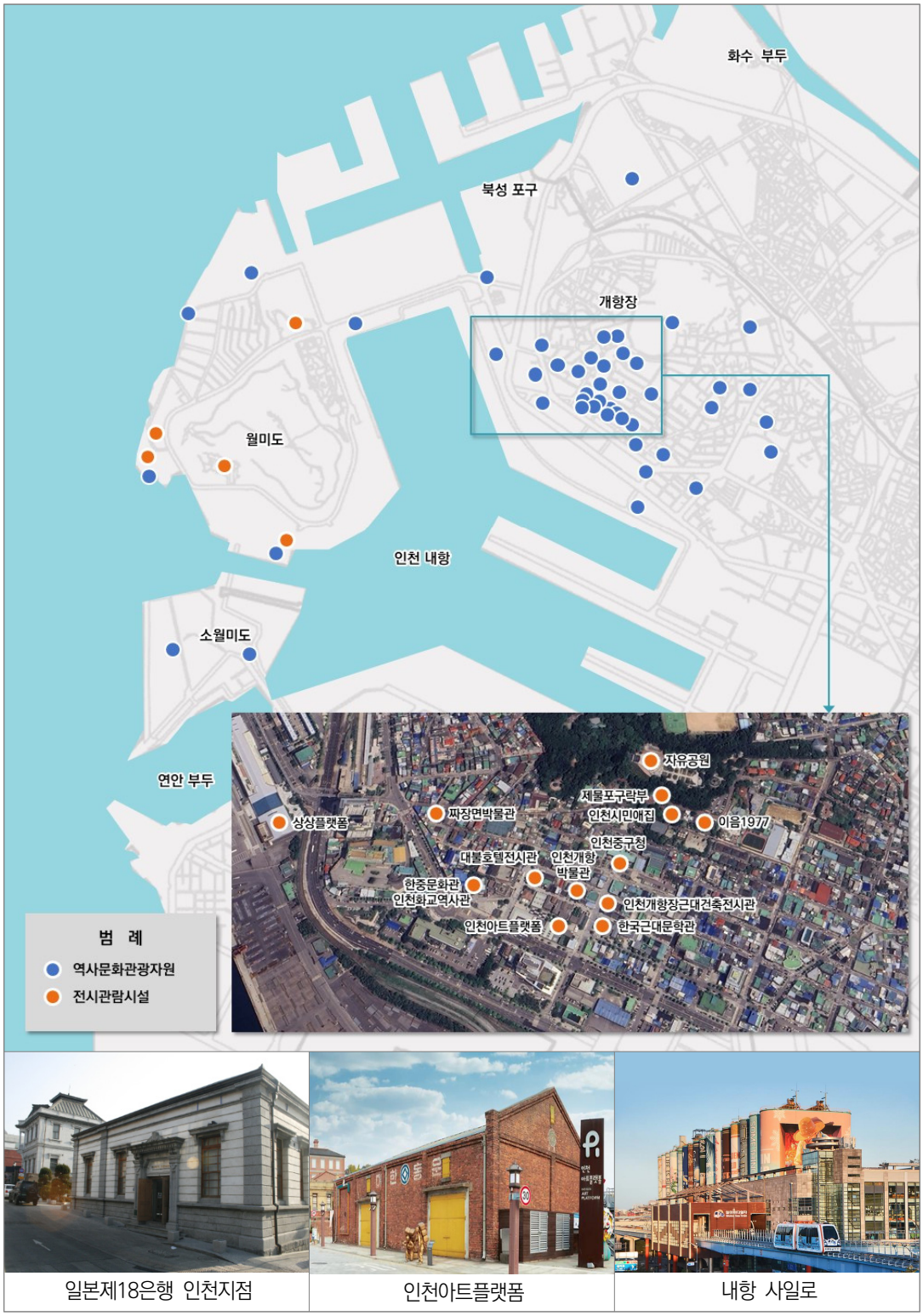
- 개항장과 내항 일대에는 근대 건축물 활용 전시관람시설, 복합문화공간, 갑문·해양·이민 소재 전시관람시설이 분포함(〔표 4-2〕, 〔그림 4-1〕 참조)
- 개항장 일대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박물관 및 전시관, 근대 시기의 창고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됨
  -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중반 근대 건축물 활용)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개항박물관, 짜장면박물관, 인천아트플랫폼, 한국근대문학관 등
  - (2010년대 후반~이후 근대 건축물 복원·활용 및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공공공간) 대불호텔전시관, 제물포구락부, 누들플랫폼, 인천시민愛집, 개항장 이음 1977
- 내항 일대에는 2010년대 갑문홍보관,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 내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상상플랫폼과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박물관이 확충됨

〔표 4-2〕 개항장·내항 전시관람시설 현황

구분	명칭	주요 내용	개관년도
개항장	인천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	• 근대 건축물·개항장 모형, 일본제18은행 금고 등 전시	2006
	인천개항박물관	• 최초 근대 문물(철도, 갑문, 종교, 우편, 공원, 화폐 등) 전시	2010
	한중문화관	• 한중문화전시, 우호도시홍보, 중국 체험프로그램 등	2005
	인천화교역사관	• 인천 화교 정착 역사 및 생활사 관련 물건, 영상 전시	2015
	짜장면박물관	• 공화춘 재현, 짜장면 역사, 차이나타운 조계지 사료 전시	2012
	대불호텔전시관	• 국내 최초 호텔인 대불호텔 변천 및 시대상 사료, 유구 등	2018
	인천한국근대문학관	• 한국 근대문학 관련 기획 전시, 인문학 강좌 운영 등	2013
	제물포구락부	• 개항기 외국인 사교모임 건축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2020(再)
	누들플랫폼	• 누들 테마 복합문화공간, 인천 발상 누들 전시·체험 등	2021
	인천시민애집	• 옛 시장관사에 1883 한옥갤러리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	2021
	긴담모퉁이집	• 건축가 김수근 건축 단독주택 활용한 시민문화공간	2022
	어을미센터	•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역사, 월미공원 동식물 관련 전시	2019
	인천아트플랫폼	• 문화예술 전시·공연·교육 프로그램, 레지던시 등 운영	2009
내항·월미도	상상플랫폼	• 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	2024
	한국이민사박물관	• 하와이 중심 미주 및 아시아·유럽 한인 이민사 자료 전시	2018(再)
	국립인천해양박물관	• 복합해양교육문화시설, 해양문화, 해양교류, 항만 등 전시	2024
	갑문홍보관	• 인천항과 갑문 역사, 갑문구동 시뮬레이션 등 전시체험	2013

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2024). 2023년 월미관광특구 평가; 인천중구문화재단(https://ijcf.or.kr/)

〔그림 4-1〕 개항장·내항 주요 역사관광자원 및 전시관람시설 분포



일본제18은행 인천지점

인천아트플랫폼

내항 사일로

출처 : 인천시티투어(https://citytour.ito.or.kr/); 인천관광공사(https://www.ito.or.kr/)

2) 관광 프로그램 및 축제 현황

❖ 관광 프로그램 및 축제 현황

■ 관광 프로그램은 개항장 일대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도보탐방 투어 프로그램 중심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 공연관람 프로그램 및 축제로 다양화됨

〔표 4-3〕 개항장·내항 관광 프로그램 및 축제

구분	명칭	주요 내용	장소	주최/주관
도보탐방 프로그램	인천시 문화관광해설	• 개항누리길 도보 투어	개항장 일원	인천시/인천시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중국 해설과 함께 하는 도보여행	• 인천차이나타운, 근대건축물탐방거리, 자유공원 코스 등	개항장 일원	인천시 중구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제물포 인문로드 도보투어 (4개 코스)	• 제물포구락부·시민애집·긴담모퉁이집, 답동성당 등 주변 지역 연계	개항장 일원	제물포구락부
체험학습 프로그램	생생문화유산 사업	• 개항장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항장문화지구	인천시
	최초가 많은 도시이야기	• 인천개항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인천개항박물관	인천중구문화재단
	누들플랫폼 〈누들인문학×쿠킹플러스〉	• 세계 면을 주제로 전문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 프로그램	누들플랫폼	누들플랫폼
	누들플랫폼 〈누들로드 탐험대〉	• 중구 누들로드 일대 코스별 답사 프로그램 (8회)	중구 누들로드 일대, 누들플랫폼	누들플랫폼
	누들플랫폼 체험프로그램	• 면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누들플랫폼	누들플랫폼
	인천을 담다 드로잉&포토	• 벽해상전 전시연계 시민강좌	한국근대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
	중국체험 프로그램	• 중국 역사문화교육 체험 프로그램	한중문화관	인천중구문화재단
	대불호텔 커피체험	• 전문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커피 체험	대불호텔 생활사전시관	인천중구문화재단
	인천미시사지역사 시민강좌	• 개항과 사라진 문화유산 등	인천시민애집	인천시민애집
	하우스 콘서트	• 클래식 공연 등	제물포구락부	제물포구락부
	숲해설 프로그램	• 월미공원 숲해설 프로그램	월미도	월미공원 사업소
관람 프로그램/ 축제	1883 제물포 탐방일지 미션투어	• 1883 제물포 탐방일지 미션 투어 (공연, 상황극 등)	개항장 일원	중구, 중구 문화재단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 문화재 야간무료개방, 문화재 LED라이팅쇼, 고보맵핑, 도보탐방 등	개항장	인천시, 중구청, 인천관광공사
	개항장 '아트마켓 1883'	• 아트마켓 운영 및 체험, 공연 프로그램, 작가 사생대회	한중문화관 야외광장	중구청
	개항장 미술의 거리 축제	• 개항 패션쇼, 작가 퍼포먼스 등	인천개항박물관 앞 야외행사장 등	중구 개항장화랑연합
	인천 차이나타운 짜장면 축제	• 짜장면을 테마로 한 경관 조성, 공식행사, 퍼레이드, 공연	차이나타운 일대	인천중구 문화재단
	IAP 스트릿 아트페스티벌	• 거리극, 인형극, 퍼포먼스 등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
	제물포 웨이브 마켓	• 로컬 브랜드 홍보, 상상플랫폼 도슨트 투어 등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1883 인천 맥강파티'	• 인천 대표 먹거리 맥강(지역맥주와 닭강정)	상상플랫폼 앞마당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2024). 2023년 월미관광특구 평가 참조 작성

2. 개항장·내항 관광행태

1) 주요 관광지

- 한국관광데이터랩(2024.7.)에 따르면, 인천시 중심관광지로 영종도의 을왕리 해수욕장, 복합리조트,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이 상위 5위권 내 위치하여 영종도의 관광 중심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과거 개항장권은 다수의 역사문화자산에 기반한 인천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현재는 인천 인기관광지, 중심관광지 10위권 내 위치하지 못하는 상황

  - 월미도는 인기관광지 6위, 내국인 관심관광지 9위에 포함, 차이나타운은 내국인 관심관광지 18순위로 전년 동기 대비 16순위 하락(2022.7~2024.6 기준)

〔표 4-4〕 빅데이터로 본 인천시 주요 관광지(2022.7~2024.6)

순위	인기관광지		중심관광지		내국인 관심관광지	
	23.7~24.6	22.7~23.6	23.7~24.6	22.7~23.6	23.7~24.6	22.7~23.6
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을왕리해수욕장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석모도 미네랄 온천	신시모도
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리조트	을왕리해수욕장*	무의도	차이나타운
3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송도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동도 대룡시장	무의도
4	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리조트	롯데백화점 인천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동막해수욕장	강화 전등사	조양방직
5	롯데백화점 인천점	월미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송도 센트럴파크*	선재바다낚시 공원	을왕리해수욕장
6	월미도	인천종합터미널	동막해수욕장	강화풍물시장*	신시모도	야생화단지 드림파크
7	을왕리해수욕장	을왕리해수욕장*	강화풍물시장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조양방직	송도 센트럴파크
8	인천종합터미널	스퀘어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코스트코홀세일/송도점	강화루지(강화씨사이드리조트)	소래포구
9	스퀘어원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대룡시장	하나개해수욕장	월미도	260도 (송도유원지점)
10	인천종합어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송도센트럴파크	대룡시장	석모도	월미도

주 : * 한국관광 100선 연계 관광지, ■ 인기·중심·관심 관광지 5개 유형 모두에 포함되는 관광지
출처 : 한국관광데이터랩(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loc/getAreaDataForm.do#)

2) 개항장·내항 일대 관광소비 특성

- 외지인의 중구(영종도 제외)·동구의 소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의 소비는 대부분 중구(80.8%)에 집중
- 레저업(97.1%), 레저용품(96.2%), 유흥(96.0%) 소비는 중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교통수단(육상)(98.2%), 여행업(95.7%)은 동구에 집중
  - 면세점, 호텔/콘도는 모두 중구에 소재하여 외지인의 소비 역시 중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

〔표 4-5〕 2024년 상반기 외지인의 중구(영종도 제외)·동구 소비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중구		동구	
			소비액	점유율	소비액	점유율
계		221,750,227,651	179,142,351,001	80.8	42,607,876,649	19.2
소매/유통	대형할인점	7,299,693,543	2,229,505,524	30.5	5,070,188,019	69.5
	소형매장	33,141,740,652	28,816,190,803	86.9	4,325,549,849	13.1
	면세점	56,367,391	56,367,391	100.0	-	-
	의류	2,145,554,293	1,687,412,630	78.6	458,141,663	21.4
	서적문구	67,524,996	23,718,493	35.1	43,806,503	64.9
음식	음식	35,509,150,813	31,557,039,493	88.9	3,952,111,320	11.1
	유흥	504,879,105	484,781,715	96.0	20,097,390	4.0
	카페/베이커리	2,653,854,891	2,301,278,128	86.7	352,576,763	13.3
레저업		2,710,245,336	2,632,702,894	97.1	77,542,442	2.9
레저용품		1,779,445,099	1,711,455,840	96.2	67,989,259	3.8
문화/취미		782,118,888	647,343,163	82.8	134,775,725	17.2
숙박업	호텔/콘도	251,184,078	251,184,078	100.0	-	-
	기타	1,188,811,984	1,047,869,854	88.1	140,942,130	11.9
여행업		134,194,905	5,815,560	4.3	128,379,345	95.7
교통수단	여객선	93,935,851	93,935,851	100.0	-	-
	육상	66,311,900	1,181,400	1.8	65,130,500	98.2
	택시	15,087,019	7,568,787	50.2	7,518,232	49.8
	항공사	-	-	-	-	-
의료기관		13,683,118,276	11,398,731,073	83.3	2,284,387,203	16.7
생활서비스	미용	370,892,296	272,075,346	73.4	98,816,950	26.6
	연료판매	86,694,032,317	69,207,095,591	79.8	17,486,936,726	20.2
	자동차정비/유지	32,602,084,019	24,709,097,387	75.8	7,892,986,632	24.2

주 : 1) 2024년 상반기(1~6월) 인천 중구(영종도 제외)·동구에서 외지인이 신용카드(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소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2) 육상은 운송업(도로화물 제외)를 의미함.

3) 여건 분석 시사점

❖ 개항장·내항 일대 관광 중심성 감소

- 개항장·내항은 인천의 역사와 상징성이 축적된 장소이나 관광 중심성은 다소 부족함
  - 개항장 일대는 자유공원, 개항박물관·근대건축전시관, 인천아트플랫폼 등이 집적되어 있으며, 차이나타운 중심의 다소 제한적인 관광 이미지·수요 형성
  - 내항 일대는 과거 국제무역의 중심이었으나, 항만 기능의 쇠퇴 및 시설 노후화, 낮은 관광접근성·매력성으로 침체(인천광역시, 2023)
  - 월미도 일대는 월미문화의거리, 월미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최근 한국이민사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2024.12. 개관 예정) 등이 신규 개관
- 개항장·내항 일대에 소재하는 관광지 중에서 중구 중심관광지(상위 10위권 내)는 월미도(4위), 인천종합어시장(10위) 2개소에 불과

❖ 제물포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정책적 역량 결집

- 인천시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 및 도시재창조를 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기틀 마련을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제물포르네상스는 중구·동구 원도심 일원을 활성화하여 문화·경제를 재도약하기 위해 시민중심도시, 글로벌문화도시, 산업혁신도시, 열린해양도시를 지향
  - 이 중 '글로벌 문화도시'는 문화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목표로, 글로벌 앵커시설 확충, 친수문화·관광기반 구축, 휴양·문화시설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현재 해양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
-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으로 원도심 지역인 중·동구(영종도 제외)가 통합되어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융합형 발전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병기, 2024.9.19.)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개항장권·월미도권 동반 성장방안 마련 필요
  - 인천광역시는 시 역점사업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항장권·월미도권과의 연결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
  - 인천시의 정책적 역량이 결집된 가운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원도심 지역의 권역별 매력화·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

3.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필요성

❖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필요

- 개항장·내항 일대의 역사문화관광 거점기능 강화 및 인천의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프로젝트 견인을 위해 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의 재창조가 필요함
  - 개항장·내항 일대 기존 시설·공간을 재창조하고 연결·네트워크화하여 역사문화 융합형 관광지구 조성
  - 내항 일대를 '개항장권', '월미도권', '내항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자산·가치에 기반한 특화전략 마련 및 인천 관광을 견인할 하나의 관광권으로 재창조
- 점 단위 개별적·분절적 시설·공간의 기능적 통합·특성화로, 개항장·내항 일대 관리·활용을 체계화하여 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매력성을 극대화하고, 개항장·내항 지역의 전환 계기 마련

❖ 정책의 지향점

① 권역별 거점기능 및 연계성 강화

- 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방안은 시 역점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개항장권·내항권·월미도권을 균형적으로 성장시키고, 인천을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견인할 마중물 사업으로 구상
  - 인천시 역점사업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항장권·월미도권과의 연결성은 다소 미흡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개항장권·월미도권 동반 성장방안 마련

② 역사문화적·지리적 특성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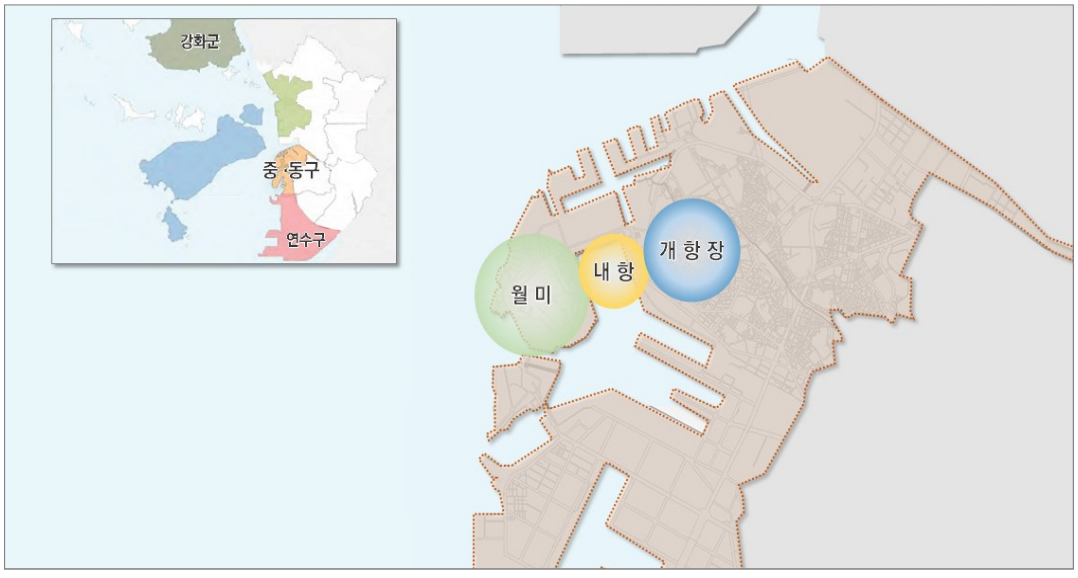
- 내항 일대는 지리적으로 인천의 중심에 소재하여 강화·옹진·영종 등의 해양지역, 원도심·송도 등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 가능
  -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내항 일대는 인천의 역사가 집적된 곳이자, 인천 관광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새로운 유인 요소 부족 및 관광 트렌드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전략 모색 필요
- 내항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구로 재창조하여 인천의 해양 지역과 원도심·송도 지역의 성장 견인 및 인천의 미래 문화관광 경쟁력 확보

❖ 정책의 방향 및 실천과제

- 개항장권, 월미도권, 내항권을 중심으로 개항장·내항 일대 권역별 자산·가치에 기반한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개항장·내항 일대를 인천 관광을 견인할 하나의 관광권으로 재창조하는 방향 제시
- '[전략3] 개항장·내항 일대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전략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전략1] 개항장·내항 박물관클러스터 조성'을 내항 일대로 확산하고, 인천을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견인할 마중물 사업으로 구상
- 내항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구로 재창조하여 인천의 해양 지역과 원도심·송도 지역의 성장 견인 및 인천의 미래 문화관광 경쟁력 확보

쟁점 및 이슈

-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내항 일대는 과거 인천 관광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새로운 유인 요소 부족 및 관광 트렌드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
- 인천광역시는 시 역점사업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항장권·월미도권과의 연결성은 다소 미흡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개항장권·월미도권 동반 성장방안 마련 필요
- 개항장권, 월미도권, 내항권을 중심으로 내항 일대 권역별 자산·가치에 기반한 특화전략 마련 및 인천 관광을 견인할 하나의 관광권으로 재창조
- [개항장권] 개항장권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기반, 새로운 관광 성장 방향 모색 및 위상 강화
- [월미도권] 월미도권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인천 해양관광 허브 기능 강화 및 혁신 공간화
- [내항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1·8부두 여가문화공간 기능 확보
- [연계·통합] 역사문화 테마의 인천 대표축제를 육성하여 내항 일대 역사문화관광지구 브랜딩



■ 권역별 앵커시설 조성 및 개항장·내항 일대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아우르는 대표축제 육성 제안

• 내항 일대는 지리적으로 인천의 중심에 소재하여 강화·옹진·영종 등의 해양지역, 원도심·송도 등을 연결하는 허브 기능 수행 필요

- [개항장권] 개항장권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기반, 새로운 관광 성장 방향 모색 및 위상 강화

• 개항장권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수집·전달·확산하는 전문조직 설립 및 근대역사를 간직한 자유공원의 근대역사 상징공원화 추진

- [월미도권] 월미도권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인천 해양관광 허브 기능 강화 및 혁신 공간화

- [내항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1·8부두 여가문화공간 기능 확보

- [연계·통합] 역사문화 테마의 인천 대표축제를 육성하여 개항장·내항 일대 역사문화관광지구 브랜딩

• 개항장·내항 일대(개항장권, 월미도권, 내항권)의 역사문화 정체성에 기반한 도시 브랜딩 전략 마련

〔표 4-6〕 개항장·내항 일대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를 위한 실천과제

실천과제 3-1	[개항장권] 역사문화도시 위상 확보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실천과제 3-2		• 자유공원 근대역사 상징공원화
실천과제 3-3	[월미도권] 아트인천 전진기지화	•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
실천과제 3-4	[내항권] 문화관광 르네상스 실현	• (가칭) 제물포 바다공원 정비
실천과제 3-5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브랜딩	• 인천 대표축제 육성

4. 실천과제

1)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7)]

❖ 필요성

- 개항장권은 1883년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성장한 인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가치가 집적된 지역
- 다수의 박물관·전시관이 소재하나, 자원별·시설별 단절적 운영으로 인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통합적 이미지는 다소 부족
- 과거 개항장권은 다수의 역사문화자산에 기반한 인천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현재는 인천 인기관광지 10위권 내 위치하지 못하는 상황(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 개항의 역사를 품은 상징적 공간, 자유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근대역사도시 장소성 구현 방식을 재설계하여 역사문화도시 위상 확보

❖ 주요 내용

- 인천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전시·전달하는 스토리텔링형 공연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여 인천 역사문화 이야기 통합 관리 및 콘텐츠화
- 인천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공연콘텐츠 발굴·기획·실행
  - 개항도시 콘텐츠 아카이브센터와 연계하여 수집된 문헌·이미지·자료·박물 등 기반의 이야기 콘텐츠 생성, 문화예술인의 역사문화 이야기 콘텐츠 창작, 전시, 공연 지원
- 발굴된 이야기 콘텐츠는 라이브 스토리텔링,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형 콘텐츠화 하여 일 년 내내 센터 및 주변 지역을 활용한 실내외 스토리텔링, 음악, 무용 등의 공연 개최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는 인천 대표축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축제 조직위원회 역할을 병행함으로써 역사문화 테마의 공연문화예술산업 육성 및 허브화 견인
  - 조직명(역사문화 이야기센터)은 인천 대표축제와 함께 일 년 내내 소규모 축제이벤트를 개최한다는 측면에서 인천 페스티벌 센터(IFC : Incheon Festival Center)로 명명 검토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는 단기적으로 인천 문화관광 관련 전문조직 내 전문센터로 시범 설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축제 전문조직으로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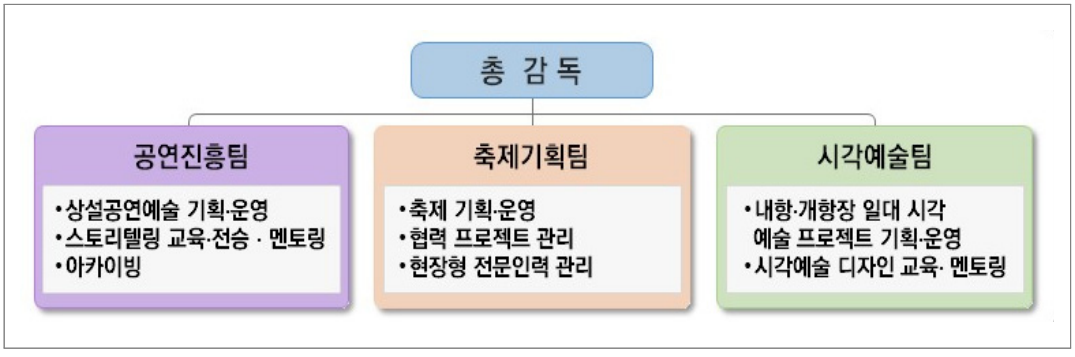
---

7) 이야기센터는 실천과제 3-5 인천 대표축제 육성 중 축제 전담조직(IFC)과 연계 추진함

■ 조직 구성은 공연진흥팀, 축제기획팀, 시각예술팀으로 구성하고, 총감독제로 운영[8)]

- 전담조직은 스토리텔링+시각예술+공연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전담하여 인천 공연문화예술 산업 육성 및 허브화 견인
- 전담조직 역할 : 인재 양성 + 창작 지원 + 공연·전시 + 유통 지원
- IFC는 단기적으로 축제조직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되, 시범 개최 이후에는 행정기관이나 문화·관광 전문조직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
  - 시 내부 전담부서로 설치할 경우 공공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높으나,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은 다소 부족
  - 공사·재단 내 전담팀으로 설치할 경우 시 역점 문화관광사업과의 연계성 확보가 용이하나, 축제전문성 확보 한계
  - 신규 조직위원회로 설치할 경우 높은 전문성은 확보되나, 신규조직 설립에 대한 시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상존함.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브랜딩 차원에서 국내 최대 스케일의 IF(Incheon Festival) 개최를 위한 행정력 집중
- 조직 구성은 공연진흥팀, 축제기획팀, 시각예술팀을 중심으로 운영
- 공연진흥팀 : 소규모 상설 공연예술 기획·운영, 스토리텔링 교육·전승·멘토링, 아카이빙
  - 지역대학 및 공연예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인재 양성 및 창작 지원 기능 강화
- 축제기획팀 : 축제 기획·운영 및 협력 프로젝트 관리 기능의 현장형 전문인력
- 시각예술팀 : 내항·개항장 일대 시각예술 프로젝트 기획·운영, 시각예술 디자인 교육·멘토링 등

〔그림 4-2〕 축제 전담조직 구성(안)



8)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은 실천과제 3-5 대표축제 전담조직(IFC) 육성 사업임. 역사문화 이야기센터는 개항장·내항 일대 역사문화 이야기를 수집·보존·전달하는 조직으로 제안하였으며, 대표축제는 역사문화 이야기센터에서 역사문화 이야기를 전달하는 하나의 콘텐츠 유형으로 구성함

- 이야기센터는 인천을 포함한 한국, 동아시아의 이야기 콘텐츠를 발굴·공유하는 동아시아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거점 기능으로 단계적 확장
- 주변 박물관·전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기법 워크숍·멘토링을 진행하고, 주변 자원·시설 연계형 스토리텔링 테마 프로그램 운영
- 중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 이야기센터를 중심으로 개항장·내항 일대, 섬·해양 지역을 아우르는 국제 공연예술제 개최 추진

❖ 추진단계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의 추진단계는 시범 운영 → 설립 → 본격 운영으로 구성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시범 운영	• 인천 문화관광 전문조직 내 이야기센터 시범 설치 • 공연형 콘텐츠 및 인천 대표축제 시범 개최	-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 부지 확보 및 공간 조성, 조례 제정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및 조직체계 구성 • 이야기센터 시범 운영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본격 운영	-	• 공연형 콘텐츠 기획·개최 • 인재 양성 및 창작 지원	• 이야기센터 본격 운영 • 대표축제 개최

- 단기(2025~2026년) : 시범 운영 및 역사문화이야기센터 설립

  - 인천 문화관광 전문조직 내 이야기센터 시범 설치

    • 사업내용 : 이야기센터 본조직 설립에 앞서 임시조직 형태의 이야기센터를 시범 설치하여 스토리텔링형 공연콘텐츠 시범 실행사업 추진

    • 추진방안 : 이야기센터는 인천 문화관광 전문조직 내 부속 센터 형태로 설치

  - 공연형 콘텐츠 및 인천 대표축제 시범 개최

    • 사업내용 : 이야기센터가 총괄 기획·관리하는 공연형 콘텐츠 및 인천 대표축제를 시범 개최하여 역사문화 이야기센터의 필요성·역할 검증

    • 추진방안 : 인천 대표축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인천 문화관광 전문조직·공간 협력형 사업으로 개최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 사업내용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을 위해 조직의 역할·기능, 조직의 형태, 재정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시행
- 추진방안 : 시 내부 및 문화관광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방안에 대한 논의 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직 설립·운영 타당성검토 실시

■ 중기(2027~2030년) : 이야기센터 설립·운영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부지 확보·조례 제정·조직 구성

- 사업내용 :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이 축적된 개항장·내항 일대에 이야기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에 근거한 조직 구성
- 추진방안 : 콘텐츠 창작·전시·공연, 인재 양성 등 이야기센터의 기능을 감안한 공간 설계, 전문 축제감독 영입 및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관리 전문인력 확보

■ 장기(2031~2040년) : 이야기센터 본격 운영 및 대표축제 개최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본격 운영

- 사업내용 : 인재(작가, 감독, 액터 등) 양성 및 창작 지원 사업으로 인천 근대역사 테마의 공연형 콘텐츠를 기획하여 개항장·내항 일대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개최
- 추진방안 : 지역대학, 공연예술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인재 양성 및 창작 지원

- 대표축제 개최

- 사업내용 :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형태로 운영한 공연형 콘텐츠 중 화제성·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선별하여 인천 대표축제 콘텐츠화
- 추진방안 :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전문가+관광객 평가를 실시하여 선별

❖ 법·제도적 규제사항 정비 필요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치조례 제(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사업, 기본 재산, 운영 재원, 수익사업, 재정 지원, 사업계획 및 결산, 지도 감독

- ①안 : 별도의 조례 제정 및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②안 :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2.23.) 상 관련 조항 추가·개정

❖ 기대효과

-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의 상징성 제고 및 도시의 문화적 역량 축적
-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 관련 사례

※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 센터(Scottish Storytelling Centre)

-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 센터는 스코틀랜드 전통문화를 공연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2006년 개관
- 스토리텔링 센터는 문화부 장관이 설립하여 TRACS(Traditional Arts & Culture Scotland)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며, 스토리텔링, 음악, 무용 등의 스코틀랜드 전통 공연에 대한 창작·협업·전시 업무 수행
  - TRACS(Traditional Arts & Culture Scotland) 네트워크 : 전통음악 포럼, 스토리텔링 포럼, 전통무용 포럼 등 3개 포럼으로 구성
- 센터에서는 일 년 내내 라이브 스토리텔링, 연극, 춤, 음악 등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며, 전통문화 전승 및 예술인 교육을 위한 워크숍·멘토링 진행
- 매년 10월 센터와 에든버러 일대에서 스코틀랜드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Scottish International Storytelling Festival) 개최
  - 스코틀랜드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은 에든버러 축제의 일환으로 운영
- 센터는 에든버러의 명소가 집적된 에든버러 로열 마일의 하이 스트리트에 소재하여 에든버러 전통문화의 허브 기능 수행
  -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중세 건물인 존 녹스 하우스,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등과 인접 위치



출처 : 스코틀랜드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https://www.sisf.org.uk/about-the-festival/);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센터(https://scottishstorytellingcentre.); TRACS(https://tracscotland.org/)

2) 자유공원 근대역사 상징공원화

❖ 필요성

- 1888년 조성된 자유공원은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라는 공원사적 의의와 한국의 근대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인재·심진범, 2004)
  - 맥아더 장군 동상,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자연보호헌장탑, 충혼탑, 석정루 등의 자원·시설 소재
- 자유공원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새로운 시설·콘텐츠 도입이 다소 어려우며, 공원의 상징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근린공원의 건폐율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지침(2022.10.22. 개정)에 근거하여 15/100이며(3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시설 부지 면적은 전체 공원면적의 40% 이하로 제한
  - 역사공원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이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제한이 없어 신규 콘텐츠 설치·조성 가능
- 자유공원 상징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근대역사가 시작된 개항장 일대의 역사문화적 가치 형상화·제고

❖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개항기 근대역사문화가 집약된 자유공원의 상징성에 기반, 자유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전환 추진
- 개항장권의 근대역사와 자유 테마를 전달하는 휴식·교육 목적의 역사공원으로 재구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21.1.12. 개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2.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개항장권 주요 역사·유물 재현 및 스토리 기반 실감형 전시공간화

- 미국, 러시아, 일본, 청국 외교관이 공동 서명하여 조성된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대표자 대회가 개최된 역사를 디지털 재현
- 자유공원의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활용하되, 공원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시관 조성
  - (실외) 스토리맵 전자지도 + AR 기술 활용 스트리트 뮤지엄
  - (실내) 미디어아트 + 디스커버리 메타버스 등 융합

■ 자유공원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형 경관요소 설치 및 개항장 일대 연결성 강화

- 개항장 일대 전망공간 확보 및 자유공원 ~ 개항장 일대 동선 재구성

■ 야외 공연(음악회, 음악극,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공연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나무를 활용한 공간 구분·디자인

❖ 추진단계

■ 자유공원 근대역사 상징공간화의 추진단계는 다음과 같음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상징공원 조성계획 수립	• 주제공원화 위한 계획 수립 • 예산 확보 및 공간 리모델링	-	-
상징공원 조성	-	• 공간 정비 및 건축물 조성 • 식재 및 휴게공간 조성	-
상징공원 개장·활용	-	-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인천 대표축제 육성 등과 연계한 상징공원 활용

■ 단기(2025~2026년) : 상징공원 조성계획 수립

- 주제공원화 위한 계획 수립
  - 사업내용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수립 기준을 참고하여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 추진방안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설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공간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시행
- 예산 확보 및 공간 리모델링
  - 사업내용 : 공원 조성·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리모델링 시행

- 추진방안 :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요구를 반영하고, 안전기준, 범죄예방기준, 탄소중립 등의 지침을 고려하여 추진

■ 중기(2027~2030년) : 상징공원 조성

- 공간 정비 및 건축물 조성

- 사업내용 :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실내(미디어아트, 디스커버리 메타버스 등)·실외공간(스토리맵 전자지도, AR기술 활용 스트리트 뮤지엄 등) 조성·정비 추진
- 추진방안 : 역사문화 테마의 미디어아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시콘텐츠 조성

- 식재 및 휴게공간 조성

- 사업내용 : 자유공원 일대의 식생 생육여건을 고려하여 식생 종류 및 식재방식을 결정하고,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녹지 공간 설치
- 추진방안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조성

■ 장기(2031~2040년) : 상징공원 활용

- 사업내용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인천 대표축제 육성 사업과 연계한 상설공연 및 특별전시를 추진하고, 야간형 경관요소 설치

- 추진방안 : 공원 실외공간은 시설관리 전문조직, 실내공간 및 공연장은 역사문화 이야기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 검토

❖ 법·제도적 규제사항 정비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21.1.12. 개정)에 근거하여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 추진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지침(2022.10.12. 개정)에 근거한 역사공원 조성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지침(2022.10.12. 개정)

(2) 역사공원의 설치기준 등

(가) 역사공원은 기존의 문화재가 있는 지역 이외에도 문화재가 위치한 외곽 일정 지역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 역사공원은 관계기관 ·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설치 · 보전 · 정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역사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 · 유치거리 ·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문화시설 · 문화재 등과 같은 주요 시설물의 설치 이외에 이를 이용객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역사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 기대효과

- 근대역사 상징성에 기반하여 개항장 일대의 문화관광 맥락을 전환하고, 지역의 의미·가치 강화

  - 근대역사를 품은 개항장권의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

  - 인천 대표 관광지로서의 입지 재선점 및 원도심 균형 발전

❖ 관련 사례

※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 동대문 일대는 과거 한양도성이 축성되어 있었으나, 도시의 확장과 일본의 문화재 멸실·훼손으로 성곽이 훼철
- 1900년대 초반 자생적인 근대 시장으로 발달하였으며, 1960년대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국단위 도매상가로 성장
- 서울시는 글로벌 중추도시를 지향하면서 2006년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대문운동장공원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조성 등을 추진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당초 디자인스트리트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지조성 과정에 조선시대 유구·유물이 출토되면서 역사문화공간으로 설계 변경
- 공원 디자인 컨셉은 '공원과 광장의 결합'으로 설정하여 전통적 한국 주거공간(마당과 뒷마당, 마당과 정원)을 모티브로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 연계
- 주요 시설은 한양도성 및 이간수문, 야외유구전시장,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이간수문전시장, 갤러리문,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

  - 한양도성 및 이간수문 : 일제에 의해 훼손된 이간수문 및 서울성과 발굴 정비·복원
  - 동대문역사관 : 동대문운동장과 관련된 유물 전시 및 디오라마 구성 등
  - 동대문운동장기념관 : 공원 건립과정에 발굴·조사된 동대문운동장 부지의 매장유물 전시
  - 이간수문전시장 :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건물지 중요 유구 전시

구분	내용
총면적	• 부지면적 65,232㎡
개장시기	• 2009.10.27.
주요 시설	• 한양도성 및 이간수문(8,030㎡), 야외유구전시장(4,373㎡), 동대문역사관(1,313㎡), 동대문운동장 기념관(339㎡), 이간수문전시장(2,058㎡), 갤러리문(400㎡) 등

출처 : 서울정책아카이브(https://seoulsolution.kr/); 서울 중구청(20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3)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

❖ 필요성

- 월미공원은 과거 군부대였던 월미도 지역을 2001년 인천시에서 매입하여 조성한 근린공원으로, 월미전통정원, 전망대, 월미성, 한국이민사박물관, 다목적운동장 등으로 구성됨(인천광역시, 2024)
- 2001년에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된 월미도는 개항장권, 연안부두권과 함께 하나의 특구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항장권·연안부두권과의 지리적 이격·연결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 관광수요가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임
- 주변 지역에서는 다수의 문화예술 시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머무르면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개항장·월미도 일대에서 추진되는 문화예술적 시도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고, 섬·해양 지역으로 연결·확산할 수 있는 예술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월미공원 일대를 평화예술산으로 조성하여 섬·바다를 아우르는 글로벌 국제예술 허브의 거점공간화
- 글로벌 국제예술 거점공간화 위해 우선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월미공원을 예술 테마 문화공원으로 전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21.1.12. 개정)에 근거한 문화공원
- 월미도 평화예술산은 월미도가 보유한 자연적 특성과 해양경관적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자연과 예술, 건축이 조화된 공간으로 조성
  - 기존 꽃·나무는 최대한 보존하고,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생태공원 구현을 위해 꽃·나무 추가적으로 식재
- 세계적 예술가·건축가가 디자인하는 구조를 설계하여 인천의 랜드마크 공간화
  - 전세계 예술가·건축가 대상 국제현상설계 공모 추진, 월미도 평화예술산은 계획단계에서 전시와 건축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건축과 조화된 예술거점으로 조성
- 평화예술산의 핵심 시설로 미술관을 조성하여 야외공간과 실내공간(미술관 등)을 균형적으로 활용한 '예술' 테마 공원화

- 미술관은 지형과 자연채광을 활용한 전시공간으로 구현하고, 미술관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화하여 전 세계 현대미술의 거점화
- 아트플랫폼 등 주변 지역의 문화예술적 시도를 실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 지역주민의 휴식 및 운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재의 기능은 유지

■ 월미도 평화예술산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이전 계획 등과 연계하여 '평화' 테마 강화

-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인천상륙작전의 최초 상륙지인 녹색해안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예술공원과의 경관적 일관성을 고려한 역사기억 복원 테마의 메모리얼 파크 조성

■ 중장기적으로는 섬·해양 지역 연계형 예술 프로젝트 및 예술제의 거점기능 수행

❖ 추진단계

■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의 추진단계는 다음과 같음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평화예술산 조성계획 수립 및 국제 공모	• 평화예술산 조성방향 설정 • 근린공원 → 문화공원 변경	• 평화예술산 조성 위한 국제 현상설계 공모·선정	-
예술공원 및 미술관 조성	-	• 평화예술산 조성 • 국제현상설계 공모에 근거한 미술관 조성	
축제 및 문화예술 이벤트 개최	-	-	• 인천 대표축제 육성사업과 연계한 축제 개최 • 국제 섬 예술제 개최 • 문화예술 이벤트 추진

■ 단기(2025~2026년) : 평화예술산 조성계획 수립

- 평화예술산 조성계획 수립
  - 사업내용 : 월미산 일대를 평화예술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 추진방안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월미 근린공원을 포함한 월미산 전역에 대한 평화예술산 조성계획 수립

■ 중기(2027~2030년) : 평화예술산 국제공모 및 조성

- 평화예술산 국제현상설계 공모·선정
  - 사업내용 : 전세계 예술가·건축가를 대상으로 평화예술 테마의 월미 평화예술산 조성에 대한 국제현상설계 추진

• 추진방안 : 국제현상설계 공모·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예술산 조성사업 설계

- 평화예술산 조성

• 사업내용 : 랜드마크형 미술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을 아우르는 예술공원 형태의 평화예술산 조성·정비

• 추진방안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조성

- 국제현상설계 공모에 근거한 미술관 조성

• 사업내용 : 미술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예산 확보, 투·융자 심사 추진

• 추진방안 :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계획적절성, 재정계획 등 검토

■ 장기(2031~2040년) : 국제 섬 예술제 개최 및 문화예술 이벤트 추진

- 국제 섬 예술제 개최

• 사업내용 : 「정책로드맵 2040」 '해양도시 브랜딩'과 연계한 국제 섬 예술제 개최

• 추진방안 : 월미도를 거점으로 개항장·내항 일대 문화관광 조직·시설, 인천 섬을 아우르는 예술제 개최

❖ 법·제도적 규제사항 정비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21.1.12. 개정) 및 지침 근거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6.10. 개정)를 일부 개정하여 조직별 전문성에 기반한 월미 예술공원 관리업무 분장

- 예술공원 야외공간은 현재와 같이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장하되, 미술관 등 실내공간은 문화 관련 전문기관에서 관장하는 형태로 정비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0조(설치) ① 월미공원과 그 밖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소재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를 둔다.

- 제61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대효과

■ 인천의 섬·해양성에 대한 문화예술적 설계로, 월미도 일대 공간 활용방식 전환

❖ 관련 사례

※ 서울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 문화비축기지는 폐산업시설인 마포석유비축기지를 재생하여 조성한 문화공원
- 2013년 시민 참여형 아이디어 공모, 2014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2014년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주제로 복합문화공간형 문화공원 조성
- 폐산업시설인 5개의 석유탱크를 공연장, 전시장, 다목적 파빌리온으로 재생하였으며, 정보교류센터, 문화마당 등 신규 조성, 부지에 남아있던 수림은 최대한 보존하고, 꽃·나무를 추가적으로 식재하여 생태문화공원으로 구현
- 전시·공연·워크숍 등의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공간 대여사업을 운영 중
  - 이외 방문객을 위한 카페 및 매점 운영 중



문화비축기지 안내지도



문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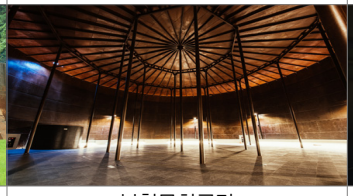
파빌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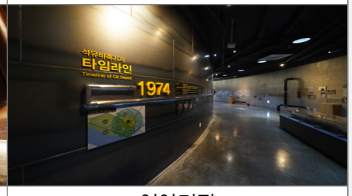
공연장



탱크원형



복합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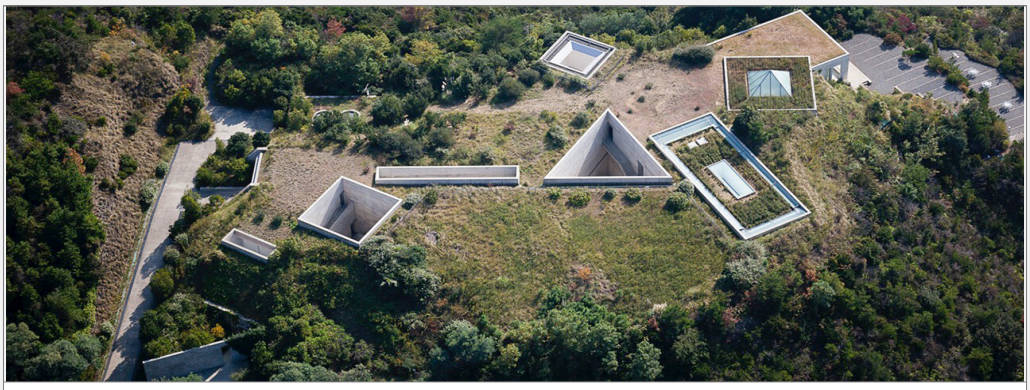


이야기관

출처 : 서울시(2024), 문화비축기지 리플렛
서울의 공원(https://parks.seoul.go.kr/template/sub/culturetank.do)
이소율(2020). 문화비축기지 조성 및 운영과정의 거버넌스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일본 나오시마 지중미술관(Chichu Art Museum, 地中美術館)

- 지중미술관은 일본 나오시마 섬에 위치한 지하 미술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안도 타다오(Tadao Ando)가 설계했으며 2004년에 개관함



지중미술관 전경



월터 드 마리아의 〈Time/Timeless/No Time〉



지추 정원

구분	내용
개요	•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는 예술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끌어내는 예술프로젝트로, 시간, 날씨,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는 예술과 건축의 조화를 강조 • 지중미술관, 베네세 하우스 박물관, 데시마 미술관, 아트하우스 프로젝트, 이우환 미술관 등이 대표적 • 지중미술관은 안도 다다오의 철학이 담긴 대표적인 건축물로, 자연·인간·건축 간 조화, 미술작품 간 조화를 강조 • 미술관은 세토 내해의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부분의 공간을 지하로 설계하였으나, 자연채광을 이용하여 작품과 공간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이 특징 • 클로드 모네, 월터 드 마리아, 제임스 터렐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클로드 모네의 '물의 정원'을 연상하게 하는 지추 정원 조성
시사점	• 자연과 예술, 건축의 융합을 통한 관광자원 강화 : 지중미술관처럼 월미산 월미공원의 자연적 특성을 보존하며 지하 또는 자연과 융합된 랜드마크 미술관을 조성하여 예술작품을 전시할 경우, 자연과 건축, 예술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음 • 지속 가능한 건축과 환경 보호 : 지중미술관이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하에 건설된 것처럼 월미공원에서도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예술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하 미술관 또는 자연과 건축이 융합된 형태로 설계된다면 월미공원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예술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

출처 : 권경남(2021) ; 베네세 아트 사이트(https://benesse-artsite.jp/en/art/chichu.html)

※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형 미술관, 구겐하임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 구겐하임미술관 건물은 1943년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에 의해 설계되어 1959년 완성됨. 달팽이를 닮은 독특한 나선형의 외관과 대형 유리돔 등 다채로운 외관을 가졌으며, 2019년에 20세기 중요한 건축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됨



구겐하임미술관 전경



구겐하임미술관 내부



구겐하임미술관 천정



2층 탄호이저 전시관

구분	내용
개요	• 구겐하임미술관은 1939년에 창립된 현대미술관으로, 광산재벌이자 철강사업가인 솔로몬 구겐하임(Solomon R. Guggenheim, 1861~1949)이 수집한 현대미술품들을 기반으로 설립됨 •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등 주로 비구상 계열의 작품과 실험적인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음. 파블로 피카소의 초기 작품과 파울 클레, 마르크 샤갈, 프란츠 마르크 등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음. 특히 바실리 칸딘스키 작품을 180점이나 소장해 세계에서 칸딘스키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으로 꼽힘 • 현재의 미술관 건물은 1959년에 신축한 것으로, 자연광이 쏟아지는 중앙의 채광창을 중심으로 계단이 없는 나선형 구조임 • 구겐하임미술관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기획전을 개최하는 것 외에, 매년 구겐하임 상(賞)을 주는 국제미술전을 열며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시사점	• (독창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통한 장소 브랜딩 구축) 구겐하임미술관은 20세기 뉴욕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외관의 건축물로 장소브랜딩을 효과적으로 이뤄냄. 미술관 건축물 자체가 예술작품이자 랜드마크로서 관람객 유치 효과를 지님 • (랜드마크형 미술관 조성으로 도시 브랜딩 강화) 인천시도 세계적 예술가·건축가가 디자인한 미술관을 조성하여 인천의 랜드마크 공간으로 활용 필요

출처 : 연구자 직접 촬영(2024.4.19.)

4) (가칭) 제물포 바다공원 정비

❖ 필요성

-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 관광을 통한 해양지역 재도약 및 도시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역점 프로젝트로 추진 중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위한 K-ube, 상상플랫폼, 워터프론트 등 제시
-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효과를 개항장·월미도 일대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형 공원을 조성하여 개항장·내항·월미도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지로 육성
  - 내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변형 여가공원을 조성하여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수변' 테마의 체계적 관리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1·8부두 중심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내항 일대로 확장
  - 내항 일대를 인천 바다생활권의 거점공간이자, 내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인천의 대표 관광목적지로 육성

❖ 주요 내용

- 제물포 수변공원은 시민 일상 속 30분 바다생활권, 인천의 도시·사람·문화·라이프스타일을 알리는 글로벌 쇼케이스로 컨셉화
  - 내항 일대를 수변형 여가공원으로 조성하여 개항장·월미도 일대를 아우르는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개항장·내항·월미도 일대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연계
  -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2022)은 내항 재개발 사업의 효과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월미도 및 내항 일대 등을 아우르는 방식 제안
- 인천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원 조성을 위해 제물포 바다공원 조성방향에 시민의견 수렴
  - 시민 아이디어 공모, 청년층 대상 디자인캠프,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스케치 등
- 제물포 바다공원 현상설계공모를 추진하여 공간 및 시설 조성방향 구체화·설계
  - 이후 당선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제물포 바다공원 조성 추진
- 공원은 물과 접촉할 수 있는 친수지구, 레스토랑·카페지구, 문화예술지구, 축제이벤트지구 등으로 구성하되,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구체화

- 친수지구 : 바다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오션뷰 전망대, 인공 스트리트 비치, 녹지공간, 피크닉공간, 산책로 등으로 조성

- 레스토랑·카페지구 : 바다를 조망하면서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카페지구를 조성하고, 친수공간에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불가한 수변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상권과 연계한 비설치형 식음 서비스 제공방식 도입

- 문화예술지구 : 제물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제물포의 상징성 시각화

  • 상징조형물은 '희망을 품은 최초의 이민자 모습(이민자 수송 여객선 갤릭호 등)'과 같이 시각화된 이미지를 활용하고, 도시브랜드차원에서 접근

  •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 사업과 연계한 현대미술관 및 해양박물관과의 연결성 강화

- 축제이벤트지구 : 1·8부두 일대의 계절성과 야간 경관을 활용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문화기획가 대상 소규모 문화행사 기획 공모·운영

  • 예 : 한강 페스티벌, 광화문 썸머비치, 인천 도시해변 등

■ 수변경관을 활용, 개항장·월미도 일대에서 추진되는 문화예술 축제 및 이벤트를 연계 개최하여 추진 효과 극대화

■ 제물포 바다공원 조성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추진

❖ 추진단계

■ 전체 추진단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의견조사 → 계획 수립 → 조성)로 진행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인천시민 의견조사	•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청년층 디자인캠프 •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스케치 등	-	-
현상설계 공모 및 조성계획 수립	-	• 바다공원 현상설계 공모 • 바다공원 정비계획 완료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연계	
제물포 바다공원 조성	-	-	• 부지 정비 • 시설 조성 • 바다공원 개장 등

■ 단기(2025~2026년) : 인천시민 의견조사

-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청년층 디자인캠프

  • 사업내용 :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청년 디자인캠프 통한 시민 의견 반영·이슈화·이벤트화

- 추진방안 : 시민 대상 온라인 아이디어 공모전, 상상플랫폼 등 내항 일부 공간을 활용한 청년 디자인캠프 개최

- 전문가 워크숍 및 스케치

- 사업내용 : 건축·조경·도시계획, 문화·예술·관광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스케치 추진
- 추진방안 : 전문가 집중회의, 포럼 등을 개최하여 내항 일대 현장성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중기(2027~2030년) : 현상설계 공모 및 정비계획 수립

- 바다공원 현상설계

- 사업내용 : 인천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바다공원 정비방향에 기초한 현상설계 실시
- 추진방안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내항 일대 바다공원 정비방향 수립

- 바다공원 정비계획 수립

- 사업내용 : 현상설계 결과에 기초한 내항 전역의 바다공원 정비계획 수립
- 추진방안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수변공원 설치·관리 기준 준수

■ 장기(2031~2040년) : 바다공원 개장

- 사업내용 : 시민·관광객·예술가가 모여서 창조하는 광장 성격의 바다공원 개장

- 추진방안 :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1·8부두 중심의 조성계획을 내항 전역으로 확장

❖ 법·제도적 규제사항 정비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21.1.12. 개정) 및 지침 근거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지침(2022.10.12. 개정)

수변공원

(1) 수변공원은 하천, 호수, 저수지, 댐, 바다 등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아) 수변공원에는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휴양시설, 운동시설,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① 가능한 한 넓은 수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수변의 경관을 최대한 활용한다.

③ 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물과 접촉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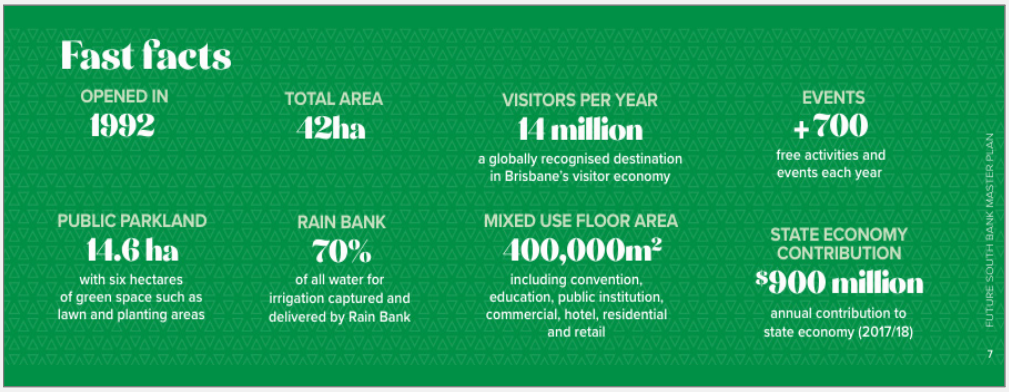
❖ 기대효과

- 보행 및 휴식이 어려운 내항 일대를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개별 사업·시설을 아우르는 공간 조성
- 1·8부두를 중심으로 수변형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내항 일대와 개항장·월미도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개항장·내항·월미도 일대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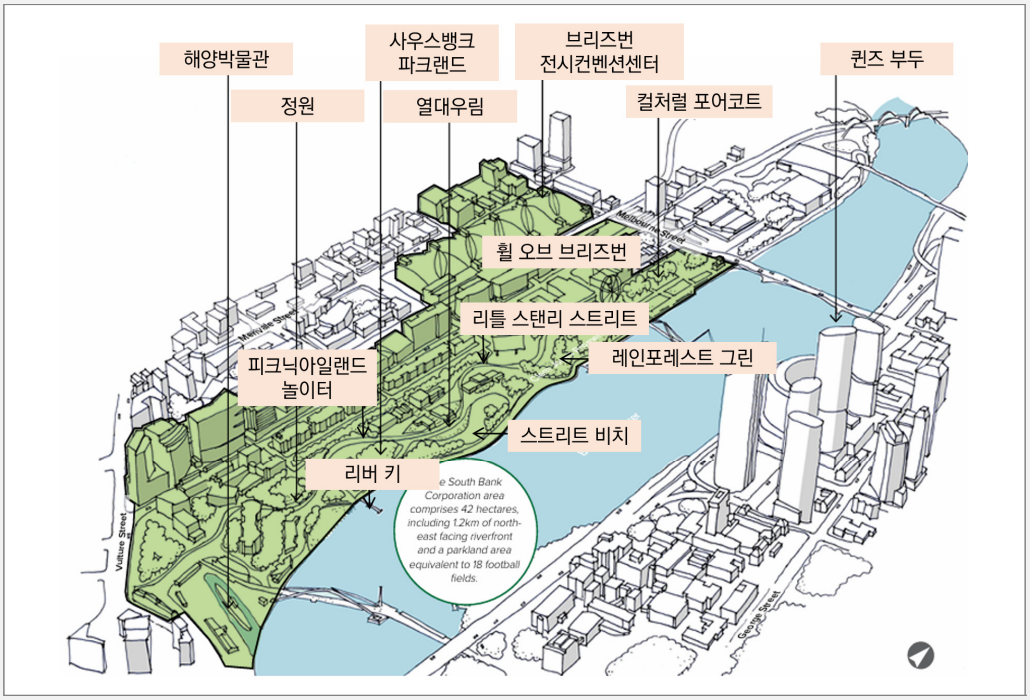
❖ 관련 사례

※ 브리즈번 사우스 뱅크(South Bank) 수변지구

- 사우스 뱅크는 과거 브리즈번의 중심업무지구(CBD)였으나, 1883년 홍수로 인해 중심업무지구(CBD)가 강 북쪽으로 이전하면서 쇠퇴하기 시작
- 침체된 항구였던 사우스 뱅크는 월드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퀸즐랜드 정부에 의해 공공공원으로 변모
- 퀸즐랜드정부는 정부의 법정 법인인 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South Bank Corporation)을 설립하고, 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 법을 제정하여 사우스 뱅크 지역의 개발·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사우스 뱅크 재개발은 리조트 스타일의 개발보다는 지역주민이 자주 방문하고 싶어 하는 활기찬 도시를 위한 장소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
- 현재 사우스 뱅크는 브리즈번의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매년 1,400만 명의 방문객 기록
  - 1992년에 개장한 사우스 뱅크는 매년 연평균 700건 이상의 이벤트 개최 지역으로, 14.6ha 규모의 파크랜드, 약 40만㎡ 이상의 복합지구(컨벤션, 교육·공공기관, 호텔, 상업·임대시설 등)가 소재하여 브리즈번의 중심지 역할
- 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에서 강조하는 사우스 뱅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1.2km의 탁 트인 강변과 강변을 둘러싼 나무, 도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해변
  - 브리즈번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과 풍경을 보여주는 쇼케이스
  - 문화 및 창조 관련 기관의 집적, 주요 도시 행사의 본거지, 7개의 3차 및 전문학습기관 소재
  - 글로벌한 포럼·이벤트가 개최되는 문화 광장과 브리즈번 전시컨벤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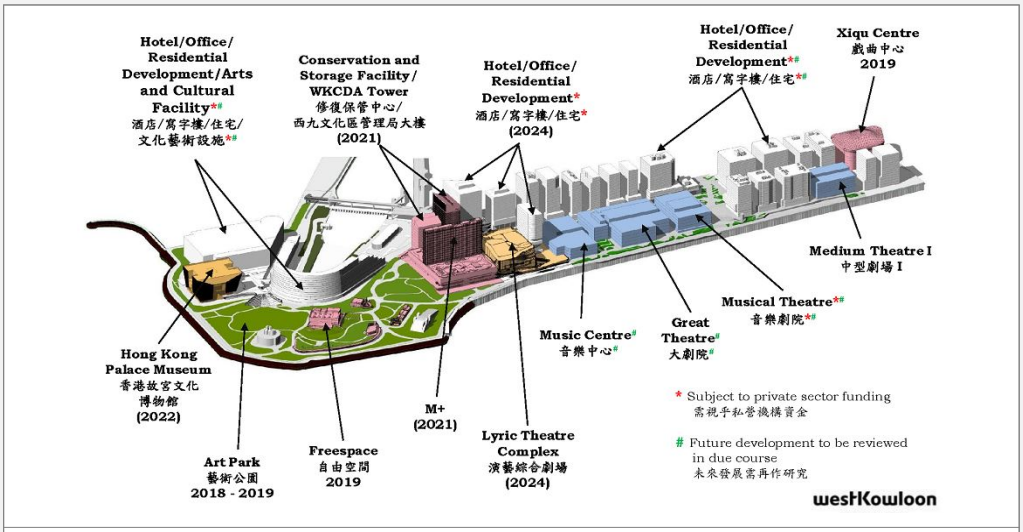
- 사우스 뱅크의 주요 시설은 파크랜드(공원), 해양박물관, 문화지구(아트갤러리, 현대미술관, 퀸즐랜드 주립 도서관, 퀸즐랜드 박물관, 퀸즐랜드 공연예술센터), 브리즈번 전시컨벤션센터 등으로 구성
  - 파크랜드 : 인공 스트리트 비치, 열대우림 산책로, 피크닉·바비큐 공간, 물놀이 시설 등으로 조성
  - 해양박물관 : 호주에서 가장 큰 해양박물관으로, 해양 유물, 서적 및 사진 등을 전시
  - 리버 키 : 퀸즐랜드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오션뷰의 녹지공간과 레스토랑, 원형 극장 등
  - 피크닉 아일랜드 놀이터 : 리버 키 프로젝트의 일환, 어린이놀이터, 잔디밭, 오솔길 등
  - 컬처럴 포어코트(Cultural Forecourt) : 나이트 누들 마켓, 브리즈번 페스티벌 등의 대규모 축제·행사 개최공간
  - 리버사이드 그린 : 브리즈번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파빌리온, 잔디밭,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된 친수공간
  - 스트리트 비치 : 호주 유일의 인공형 비치로, 모래해변, 야자수, 석호 등으로 구성
  - 레인포레스트 그린 : 휴식과 행사를 위한 녹지공간
  - 피크닉 아일랜드 놀이터 :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무료 바비큐 등
  - 리틀 스탠리 스트리트 :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 집적
  - 브리즈번 전시컨벤션센터 : 매년 평균 1,30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
  - 휠 오브 브리즈번 : 브리즈번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대관람차
- 사우스뱅크는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였으며, 최고의 도시, 사람, 문화, 기후,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며, 8개의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
  - 모두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우스 뱅크와 주변 강과의 연결성 강화, 사람 중심의 이동수단, 아열대 경관 확장, 미래세대를 위한 매력 요소 증진, 환경적 회복력 강화, 재미·흥미 증진 등
- 마스터플랜은 사우스 뱅크에 대한 커뮤니티의 즐거움을 확대하여 더 오래 머물고,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강조



출처 : 사우스뱅크 홈페이지(https://southbankcorporation.com.au/places/wheel-brisbane/)
퀸즐랜드 홈페이지(https://www.queensland.com/au/en/places-to-see/destinations/brisbane/south-bank)

※ 홍콩 서구룡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WKCD)

- 서구룡문화지구는 홍콩에서 가장 큰 문화지구로,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빅토리어 하버를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
  - 문화지구는 2008년 서구룡 문화지구 조례에 근거하여 홍콩정부가 설립한 서구룡문화지구관리국이 운영



서구룡문화지구의 주요 시설





구분	내용
개요	• 문화지구는 신진 예술가와 기성 예술가가 함께 실험하고, 창조하는 플랫폼 이자,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모이는 문화구역을 목표로 조성 • 문화지구 내에는 세계적 건축가들이 설계한 예술시설, 아트파크, 박물관, 갤러리 등 집적 – M+ : 시각예술, 디자인과 건축, 홍콩문화 등을 주제로 하는 현대 시각 문화 박물관으로, 33개의 갤러리와 3개의 영화관 등으로 구성 – 프리스페이스 : 홍콩에서 가장 큰 극장, 작업실, 전시 등으로 구성된 라이브 공연장 – 아트파크 : 빅토리어 하버를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즐길 수 있는 여가휴식 공간. 홍콩시민들이 텐트·파고라 및 모빌리티 등을 이용하여 즐기는 공간 – 컴피티션 파빌리온 : 해안가 옆에 목재로 조성한 공간으로, 소규모 콘서트·공연 및 전망 공간으로 활용 – 시취센터 : 공연, 콘서트, 영화 상영 등을 위한 전통극 공연장으로, 관광객을 위한 아트리움과 예술가를 위한 리허설 스튜디오 등 소재 • 홍콩예술박물관, 홍콩문화센터, 스타의 거리 등과 인접하며, 홍콩의 문화예술 거점 기능 수행

출처 : 서구룡문화지구(https://www.westkowloon.hk/); 홍콩관광청(https://www.discoverhongkong.com/kr/); 한국문화홍보서비스(2021.3.22.)

※ 뉴욕 허드슨강의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Little Island)

-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는 뉴욕 허드슨강의 워터프런트 프로젝트 사례로서, 인공섬 바닥을 수면 위로 4~5m 띄워 올려서 수생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사계절 변화하는 350종 이상의 꽃과 나무를 즐길 수 있는 공원임



콘크리트 말뚝 구조물



원형 공연장



광장



산책로

구분	내용
개요	• 리틀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미국의 미디어회사 사장인 배리 딜러(Barry Diller)의 기부와 패션 디자이너인 아내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의 제안으로 조성됨. 인공섬은 2017년에 시작하여 2021년 5월에 완료했으나 코로나로 1년 후인 2022년에 개방됨. 첫해 100만 명이 방문, 베슬과 함께 맨해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 • 나무가 심어진 나팔관 형태 모양의 길이가 각각 다른 132개의 콘크리트 기둥(말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만㎡ 정방형 크기의 작은 섬에는 다양한 주제공원과 문화시설이 조성됨 • 공원에는 세 개의 잔디 구역과 두 개의 공연 스테이지가 있음. 연극, 음악, 공연을 위한 700석 규모의 원형극장과 자유로운 버스킹 존이 있음
시사점	• (야외 수변공간 겸 문화공간으로 활용) 공원 내 700석 규모의 원형극장이 있어서 야외 문화공연을 개최할 수 있으며, 완만한 잔디언덕 공원이 조성되어 휴게공간으로 활용됨 • (부둣가의 정체성을 고려한 공원 디자인) 리틀 아일랜드가 조성되기 전부터 부두에서는 배를 정박하기 위해 말뚝을 사용했으며, 말뚝의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 있음. 이곳을 설계한 토마스 헤더윅은 말뚝에서 모티브를 얻어 부둣가의 정체성을 이으면서도 재창조해 콘크리트 말뚝을 섬의 전체 구조체가 되도록 함 • (하이라인과 연계되어 도보관광 활성화) 선형 고가공원인 하이라인의 진행 방향과 인접하여 하이라인을 걷다가 도중에 내려와서 도보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도보관광을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님

출처 : 연구자 직접 촬영(2024.4.16.)

5) 인천 대표축제 육성[9)]

❖ 필요성

- 인천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물포 일대는 다수의 정책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역 자체에 대한 통합적 브랜딩 전략은 다소 미흡
- 에든버러 등 세계 주요도시는 도시브랜딩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표축제 개최
  - 축제의 기능(도시 브랜드가치 제고, 공동체의식 회복, 지역문화 진흥 등) 중 브랜드가치 제고 기능 중심
  - 글로벌 도시 도약 위한 브랜딩 전략으로 대표축제 발굴·육성
- 인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형 축제는 부재한 상황
  - 인천 주요 축제 :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부평풍물대축제, 소래포구축제 등
  - 랜드마크형 축제 :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의 요소로, 강력한 지역이미지 브랜드 전달 및 지역가치 제고 기능의 축제
    - 랜드마크 :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유·무형의 표식
- 제물포 일대에 대한 통합적 브랜딩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인천을 상징하는 역사 테마의 주제화된 공연문화예술축제 육성 제안
  - 인천 대표축제 육성 사업은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항장·내항 일대 추진사업을 기반으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인천을 이슈화하기 위한 성격
    - 개항장·내항 일대 역사문화관광 사업에 대한 시민·관광객의 공감대 형성

❖ 주요 내용

- (축제명) 축제의 명칭은 '가정'과 '만약'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형 축제의 특성을 담아 'IF(Incheon Festival)'로 설정
- (축제 아이덴티티) 인천의 역사 이야기를 전시·전달하는 스토리텔링형 축제를 인천 대표축제로 육성
  - (주제성) 인천의 역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매년 세부 주제 선정
    - 인천 대표축제는 인천을 상징하고,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축제라는 측면에서 인천의 정체성에 기반

9) 인천 대표축제 육성은 황희정(2024). 인천 대표축제 육성 전략. 인천연구원(발간 예정)을 축약한 내용임

• 인천의 근대역사 이야기를 전시·전달하는 대표축제의 주제는 인천 근대역사의 주요 이슈를 기반으로 기획하고, 매년 세부 주제 선정

※ 예시 : 개항, 인천의 인물, 근대여성의 삶, 희망을 품은 이민자, 화교문화 등

- (대표색) '근대역사 이야기' 테마를 표현하는 색을 지정하여 축제이미지 각인

• 개항장벽돌색(인천색), 원도시권역색(인천권역색) 등 활용

- (장소성) 내항 1·8부두를 메인공간으로, 내항~개항장 일대 실내외 공간을 활용하여 개항장권 전역에서 개최

• 메인공간은 내항(1·8부두) 일대로 설정하여 인천의 개항 역사와 해양성을 표현하고, 대규모 축제공간 확보

• 내항(1·8부두) 수상에 메인무대를 설치하여 해양성·시각성 극대화

※ 1·8부두(예 : 상상플랫폼 주차장 부지)를 객석으로 활용하는 방식

※ 1946년 무대가 없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배를 무대로 사용한다는 독특한 특성으로 세계적인 수상 시각공연 축제로 성장

• 축제기간에는 개항장·내항 일대 실내 공간 개방 및 차량 통제 등 추진

※ 실내 : 상상플랫폼, 아트플랫폼, 한중문화관 등

※ 실외 : 개항장내항 일대 거리, 자유공원, 인천역 광장 등

〔그림 4-3〕 인천 대표축제 개최 대상지



■ (축제유형 : 공연시각예술축제) IF(인천페스티벌)의 유형은 인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공연·시각·예술 등의 형태로 표현·구현하는 공연시각예술축제로 설계

- 2010년대 이후 축제는 인터랙티브형 표현방법을 적용하며, 콘텐츠 융합·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
- 지역의 문화원형을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로 구현하거나, 디지털 기술력을 융합하는 형태

〔표 4-7〕 축제 발전단계별 특성

구분	관람축제	참여축제	소통축제
시기 구분	• 1970~1980년대	• 1990~2000년대	• 2010년대 이후
시기 특성	• 아날로그 시대	• 디지털 시대	• 컨버전스 시대
축제 표현방법	• 볼거리	• 경험	• 인터랙티브
축제내용 구성전략	• 원형 보존, 자원 소개	• 정보 전달, 체득	• 콘텐츠 융합, 커뮤니케이션
부각된 축제 소재	• 역사·민족·전통	• 문화예술·생태환경·특산물	• 역사전통·문화예술·기술과학
메시지 전달방식	• 보존	• 교육	• 네트워킹
활용 기술	• 전시, 공연, 판매	• 전시, 공연, 교육, 체험, 판매	• IC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감성콘텐츠, 실감형체험, 사물인터넷
축제의 포인트	• 전문가-비전문가 지식의 전수 • 지역 중심 공동체 강조	•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학습·전달 • 축제주관자와 축제참여자 구분 • 사회적 지위 및 역할 구분 • 오락, 관광	• 마을축제의 부상과 대형 문화행사 동시 증가 • OSMU, 지역활성화, 평등, 동료애, 경제효과, 코뮤니타스 등 강조 • 오감만족형 축제 • 이슈 중심의 공동체 강조

출처 : 김은진·반서연(2021). 고양시 대표축제 활성화 및 축제산업 육성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 (공연예술 조직) 인천 대표축제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담조직, 가칭, IFC(Incheon Festival Center) 설립 검토[10)]

- 전담조직은 스토리텔링 + 시각예술 + 공연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전담하여 인천 공연문화예술 산업 육성 및 허브화 견인

10) 대표축제 전담조직(IFC)는 실천과제 3-1 역사문화 이야기센터와 연계되는 사업임. 역사문화 이야기센터는 개항장·내항 일대 역사문화 이야기를 수집·보존·전달하는 조직으로 제안하였으며, 대표축제는 역사문화 이야기센터에서 역사문화 이야기를 전달하는 하나의 콘텐츠 유형으로 구성함

- 전담조직 역할 : 인재 양성 + 창작 지원 + 공연·전시 + 유통 지원

- IFC는 단기적으로 축제조직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되, 시범 개최 이후에는 행정기관이나 문화·관광 전문조직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

  • 시 내부 전담부서로 설치할 경우 공공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높으나,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은 다소 부족

  • 공사·재단 내 전담팀으로 설치할 경우 시 역점 문화관광사업과의 연계성 확보가 용이하나, 축제전문성 확보 한계

  • 신규 조직위원회로 설치할 경우 높은 전문성은 확보되나, 신규조직 설립에 대한 시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상존함.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브랜딩 차원에서 국내 최대 스케일의 IF(Incheon Festival) 개최를 위한 행정력 집중

- IFC의 조직 구성은 공연진흥팀, 축제기획팀, 시각예술팀을 중심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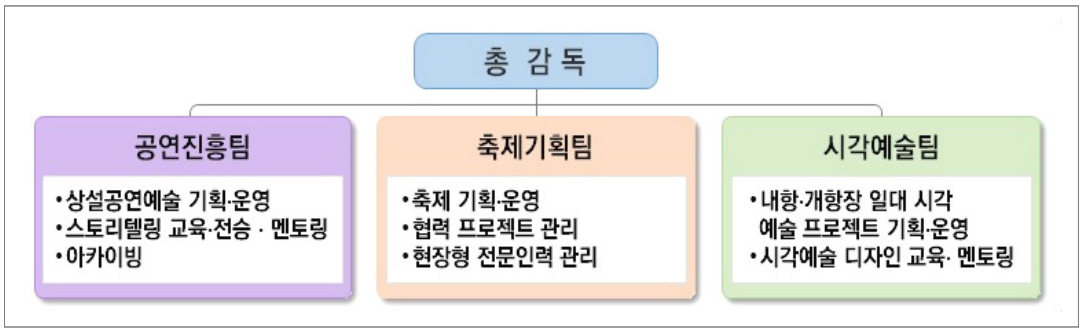
- 공연진흥팀 : 소규모 상설 공연예술 기획·운영, 스토리텔링 교육·전승·멘토링, 아카이빙

  • 지역대학 및 공연예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인재 양성 및 창작 지원 기능 강화

- 축제기획팀 : 축제 기획·운영 및 협력 프로젝트 관리 기능의 현장형 전문인력

- 시각예술팀 : 내항·개항장 일대 시각예술 프로젝트 기획·운영, 시각예술 디자인 교육·멘토링 등

〔그림 4-4〕 축제 전담조직 구성(안)



■ (총감독제) IFC는 축제 종합 연출 및 운영 총괄을 위한 전문 축제감독을 영입하여 대표축제 총괄 기획·추진

※ 별도 전문조직

- 총감독은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는 IF의 방향성을 감안하여 세계적인 명성의 감독을 영입하고, 감독 자체로 축제 홍보효과 창출

〔표 4-8〕 축제 총감독 영입(안)

구분	내용
모집부분	• IF(인천페스티벌) 총감독
위촉형태	• 비상근 위촉(전문)직
역할	• 인천페스티벌 및 전담조직(IFC) 대표 역할 • 인천페스티벌 전반 및 세부 콘텐츠별 콘텐츠 기획·운영 총괄 – 현장 운영, 세부 콘텐츠별 운영계획(큐시트, 시나리오 등), 공연단체 섭외, 디스플레이 점검 등 • 소규모 상설 공연예술 기획·운영, 전문인력 양성 업무 관리 • 문화예술 전문조직, 행정, 지역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전담조직 운영·관리 및 대내외 홍보 등

■ (콘텐츠 기획 구조) IF(인천페스티벌) 콘텐츠 기획·운영은 총감독을 중심으로 3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기획하고, 민간·공공의 참여를 유도하여 각 주체별 전문성 결합

- 콘텐츠 기획 구조는 대표 콘텐츠, 공공·민간 협력형 콘텐츠, 직접 기획형 콘텐츠로 구성
- 대표 콘텐츠와 공공·민간 협력형 콘텐츠는 협력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
- (대표 콘텐츠) 축제 개·폐막식 등 대표 콘텐츠는 축제 감독, 예술 감독, 전시 기획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기획·운영
  - 대표 콘텐츠 감독은 공모 방식으로 선임하고, 감독이 직접 프로젝트단을 구성하여 대표 콘텐츠를 기획·실행하는 구조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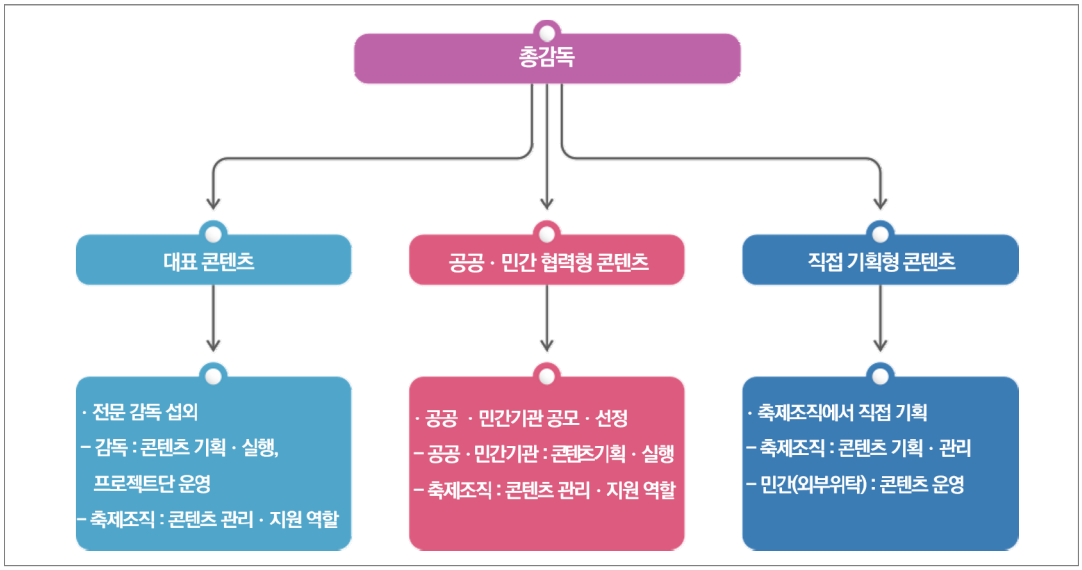
    ※ 절차 : 대표 콘텐츠별 감독 선임 → 콘텐츠 기획 → 협의·조율 → 최종 확정 → 콘텐츠 실행
  - 축제조직의 역할은 축제 감독(프로젝트단 포함)의 콘텐츠 기획·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

    ※ 축제조직은 장소 섭외, 행정적·재정적 지원, 홍보마케팅 등 추진
- (공공·민간 협력형 콘텐츠) 공공·민간기관이 참신한 축제 콘텐츠를 제안하고, 축제조직이 관리·지원하는 프로젝트형 방식 도입
  - 국내 대다수의 축제는 이벤트 대행사에 축제 실행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구조이나, 이러한 방식은 축제 간 유사성, 주제성 희석 등의 문제 발생
  - 서울 한강페스티벌은 공공(시 내부조직 유관부서 포함)·민간(기업·시민)을 대상으로 축제 세부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발굴
  - 인천 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공모·선정하고, 축제조직은 공공·민관 기관의 콘텐츠 기획·운영 지원

    ※ 절차 : 공공 및 민간기관 대상 공모·선정 협의·조율 → 최종 확정 → 콘텐츠 실행

- (직접 기획형 콘텐츠) 축제조직의 역량이 일정 수준 축적된 이후에는 축제조직에서 축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는 방식 시도
  - 단, 기획과정에는 인천 역사문화, 문화콘텐츠, 관광콘텐츠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콘텐츠의 질 제고

〔그림 4-5〕 축제 콘텐츠 기획 구조



■ (콘텐츠 구성 : 다양한 장르 융합) 축제 콘텐츠는 스토리텔링에서 공연예술까지 융합하여 대중성·수요대응성 확보

- 콘텐츠 장르는 스토리텔링·음악·연극·음악극·전시·무용·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
  - 특정 장르로 한정할 경우, 트렌드 및 축제참여자 요구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연한 장르 활용이 중요
  - 대표축제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체험성보다는 시각성을 강조하는 장르가 적합
- 메인 콘텐츠는 의례성이 높은 개막식·폐막식의 성격을 감안하여 수상공간에서 개최되는 시각예술을 결합한 공연형 콘텐츠로 추진
- 축제 콘텐츠는 역사기록·소설 등을 소재로 다양한 유형·기술을 융합

■ 인천 대표축제, 'IF'를 브랜딩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기존 축제를 IF의 하위 브랜드로 설정하여 하위 브랜드 디자인 개발

- 기존 축제와 연계한 IOF (Incheon + ○(소축제명) + Festival) 디자인 개발

■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근대역사 트리엔날레 개최 및 섬·해양 테마 확장

※ 궁중문화축전 대표 콘텐츠 기획·운영구조 사례

- 궁중문화축전은 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現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이 5대 궁궐(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 및 종묘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축제
- 국가유산진흥원 문화유산활용본부는 궁중문화축전 업무를 담당하는 궁중문화축전팀을 설치하여 궁중문화축전 총괄·기획·운영·홍보 업무 수행
- 초기(~2023년) 궁중문화축전은 총감독을 선임하여 궁중문화축전팀과 함께 궁중문화축전 전반에 대한 총괄·기획 업무 추진
- 2024년부터는 궁중문화축전팀의 기획 경험·역량이 축적되면서 별도의 총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궁중문화축전팀에서 총괄·기획 업무 담당
  - 대표 콘텐츠는 콘텐츠별 감독을 선임하여 궁중문화축전 구성·운영하는 구조
    ※ 2024년 궁중문화축전은 감독 3인을 위촉하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 감독은 뮤지컬 및 올림픽 개·폐회식 예술감독, 축제 감독, 전시 기획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위촉하여 세부 콘텐츠별 전문성 제고·브랜딩
- 그 외 콘텐츠는 궁중문화축전팀에서 직접 기획·감독하며, 운영은 외부위탁으로 추진

[2024년 봄 궁중문화축전 대표 콘텐츠]



개막제(고궁뮤지컬 세종, 1446)	시간여행, 세종-궁중새내기	공생 : 시공간의 중첩 공예전시

출처 : 국가유산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or.kr/)

❖ 추진단계

■ 추진단계는 인천 대표축제(IF) 시범 개최→조직(IFC) 설립→인천 대표축제 개최 및 기존 축제 통합의 3단계로 구성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30년)	장기(2031~2040년)
시범 개최	• 공사·재단 내 전담팀 성격의 축제 조직위 시범 설치 • 스토리텔링+시각예술+공연예술 융합형 스토리텔링 축제 시범 개최	-	-
조직 설립	• 인천 대표축제 중장기 계획 수립 • 인천 대표축제 전담조직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 IFC(Incheon Festival Center) 설립 • 총감독 및 공연문화예술+시각예술 인재 영입	
인천 대표축제(IF) 개최 및 기존 축제 통합	-	-	• 공공·민간 대상 축제 콘텐츠 공모·선정 • IF 개최 및 기존 소규모 축제 연계 • 개항장 일대 소규모 문화예술공연 및 시각예술 프로젝트 시도

■ 단기(2025~2026년) : 시범사업 및 전담조직 설립 준비

- 축제 조직위원회 시범 설치

  • 사업내용 : 대표축제 전담조직 필요성을 사전 점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의 축제 조직위원회 시범 설치 추진

  • 추진방안 :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사업과 연계, 인천 문화관광 전문조직 내 부속 센터 성격으로 축제 조직위원회 설치

- 대표축제 시범 개최

  • 사업내용 : 개항장·내항 일대를 대상으로 근대역사 테마의 대표축제 시범 개최

  • 추진방안 : 총감독이 운영하는 축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 문화관광 전문조직·공간 협력형 사업으로 추진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수립

- 인천 대표축제 중장기 계획 수립

  • 사업내용 : 인천 대표축제 개발·운영 및 랜드마크화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축제의 성격·추진방안 구체화

  • 추진방안 :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하되, 시범 설치된 축제 조직위원회, 문화관광 전문조직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인천 대표축제 전담조직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 사업내용 : 대표축제 전담조직(IFC) 설립 방안 대안에 대한 검토(독립 조직 또는 기존 조직 내 부속센터 등), 역할·기능, 조직 형태, 재정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추진방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타당성 검토

■ 중기(2027~2030년) : IFC 설립 및 총감독·인재 영입

- IFC 설립

  • 사업내용 : 전담조직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타당성 검토 결과에 근거한 조직 설립

  • 추진방안 : 개항장·내항 일대 부지 확보 후 인재 양성 + 창작 지원 + 공연·전시 + 유통 지원 역할을 위한 공간 마련

- 총감독·인재 영입

  • 사업내용 : 축제 및 IFC 운영을 총괄하기 위한 세계적인 명성의 감독을 지명 초청·영입하고, 현장 관리역량을 보유한 전문인재 영입

- 추진방안 : 총감독은 지명 초청 형태로 선정하고, 전문인재는 스토리텔링·시각예술·공연예술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충원

■ 장기(2031~2040년) : 축제 콘텐츠 공모·선정 및 축제 개최

- 축제 콘텐츠 공모·선정

- 사업내용 : 축제·예술·전시감독 등을 섭외하여 대표 콘텐츠를 기획하고, 공공·민간 협력형 콘텐츠 공모·선정
- 추진방안 : 대표 콘텐츠별 감독 선임, 공공·민간 대상 공모를 통한 프로젝트형 방식

❖ 기대효과

■ 인천 대표축제(IF)를 활용한 글로벌 도시 브랜딩

■ 스토리텔링 + 시각예술 + 공연예술 융합형 스토리텔링 축제 개최를 통한 공연예술 + 시각예술 생태계 조성·산업 육성

■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제물포 일대의 경관 개선 및 도시인프라 개선 계기 마련

05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을 위한 제언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05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을 위한 제언

1. 연구 결과의 종합

- 본 연구는 인천시의 역사문화, 문화예술, 문화관광의 현재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이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인천의 역사적 자원과 문화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또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공공간 활용과 새로운 문화적 거점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하여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인천시의 장기 계획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연계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문화관광 콘텐츠를 제안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이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으로 ①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② 인천시 문화예술 중심지 조성, ③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를 제안함
  - 전략 1.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 인천시의 고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정체성 및 도시 브랜딩 강화를 위해 5개 실천과제(①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클러스터 브랜드

구축, ②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 ③개항 콘텐츠 차별화 및 산업 활성화, ④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네트워크 구축, ⑤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출했으며, 이 중에서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을 핵심과제로 제안함

- 전략 2. 인천시 문화예술 거점 구축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 자산을 활용한 문화거점 구축 및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해 5개 실천과제(①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 및 명소화, ②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 ③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④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⑤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를 제안함
- 전략 3.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 개항장·내항 일대의 역사문화관광 거점 기능 강화 및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프로젝트 견인을 위해 5대 실천과제(①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②자유공원 근대역사 상징공원화, ③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 ④제물포 바다공원 정비, ⑤인천 대표축제 육성)를 도출하고, 이 중에서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을 핵심과제로 제안함

2. 단계별 추진방안

❖ 15개 실천과제의 단계별 추진방안

- 단기과제는 2025~2026년에 추진이 필요한 과제, 중기과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이 필요한 과제, 장기과제는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구분함

〔표 5-1〕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전략' 단계별 추진방안

전략		실천과제	2025~2026년	2027~2030년	2031~2040년	비고
1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클러스터 브랜드 구축	근현대문화유산 지구 지정	브랜드 확산 및 콘텐츠 개발	지속가능한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박물관 설립 및 콘텐츠 구축	국내외 프로모션 및 교류 확대	우선 과제
		개항 콘텐츠 차별화 및 산업 활성화	아카이브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센터 개관 및 콘텐츠 산업화 추진	콘텐츠산업 거점화 및 글로벌화	
		박물관 클러스터 운영 네트워크 구축	조례 제정 및 운영 협의회 구성 준비	운영협의회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축제 격상 및 국제적 위상 확보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	특화가로 조성 계획 수립	특화가로 맞춤형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특화가로 확장 및 상권 활성화	
2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	개항장 문화공간의 확장 및 명소화	건축물 현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복합문화공간 구축 및 운영	운영체계 구축 및 명소화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	부지 선정 및 협약 체결, 타당성 조사	복합문화공간 설계 및 건축	정기적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요시설 구축 및 콘텐츠 개발·운영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광자원화	
		수도권 매립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협력체계 구성, 계획 수립	주요 시설 설립, 콘텐츠 개발·운영	운영 모델 확립 및 네트워킹 확대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	부지 선정 및 협약 체결, 타당성 조사	박물관 건립 및 콘텐츠 개발	지붕없는 박물관 네트워크 확대	
3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 지구 재창조	역사문화 이야기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축제 시범 개최	조례 제정, 조직 구성	본격 운영, 대표축제 개최	
		자유공원 근대역사 상징공원화	기본계획 수립, 공원 리모델링	건축물 조성, 공간 조성	상징공원 활용 행사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문화공원 변경	국제현상공모, 공원 리모델링	국제 섬예술제 개최	우선 과제
		(가칭) 제물포 바다공원 정비	시민 공모, 청년 캠프	현상설계 공모	부지 정비, 공원 개장 등	
		인천 대표축제 육성	축제 시범 개최, 타당성 조사	조직 설립, 총감독 영입	콘텐츠 공모, 대표축제 개최	

■ 3대 전략의 15개 실천과제 중에서 2025~2026년에 단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대체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사업이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유형별로는 ①연구·조사 및 계획 수립, ②부지 선정 및 협약 체결, ③조례 제정 및 개정, ④협의회 등 협력체계 구성, ⑤축제 및 프로그램 시범 개최, ⑥기타(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공원 리모델링, 문화공원 변경, 축제 시범 개최)이 있음

❖ 2025년 2개 우선 추진과제

■ 15개 실천과제 중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과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의 경우, 인천시와 중구 간 협의에 의한 공간(중구청사) 확보 절차와 근린공원의 문화공간 변경 절차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은 202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중구청사를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제안된 과제이므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안임
  - 이와 함께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을 포함한 개항장 근대문화유산 밀집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 추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은 현재 '근린공원'인 월미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야 랜드마크 미술관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정절차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표 5-2〕 2025년 우선 추진과제

핵심과제	2025년 추진사항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	• **공간 확보를 위한 인천시와 중구 간 협의** : 202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구청사의 용도가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국가대표급 개항도시 박물관 설립을 위해 중구청사 확보 방안을 인천시와 중구 간 협의하여 마련함 • **연구 및 조사 착수** : 박물관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전시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함. 그 외 주변에 산재한 작은 박물관·전시관 간 역할 및 전시콘텐츠 재구성을 위한 논의 추진 • **박물관 조성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 박물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함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	• **공원 용도 변경 행정절차 추진** :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월미공원의 용도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시급히 추진하여 랜드마크 미술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평화예술산 조성 기획 연구** : 공원 내 문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성 방안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및 기획 조사를 진행함 •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성** : 평화예술산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성함

❖ 개항장·내항 중심 실천과제와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연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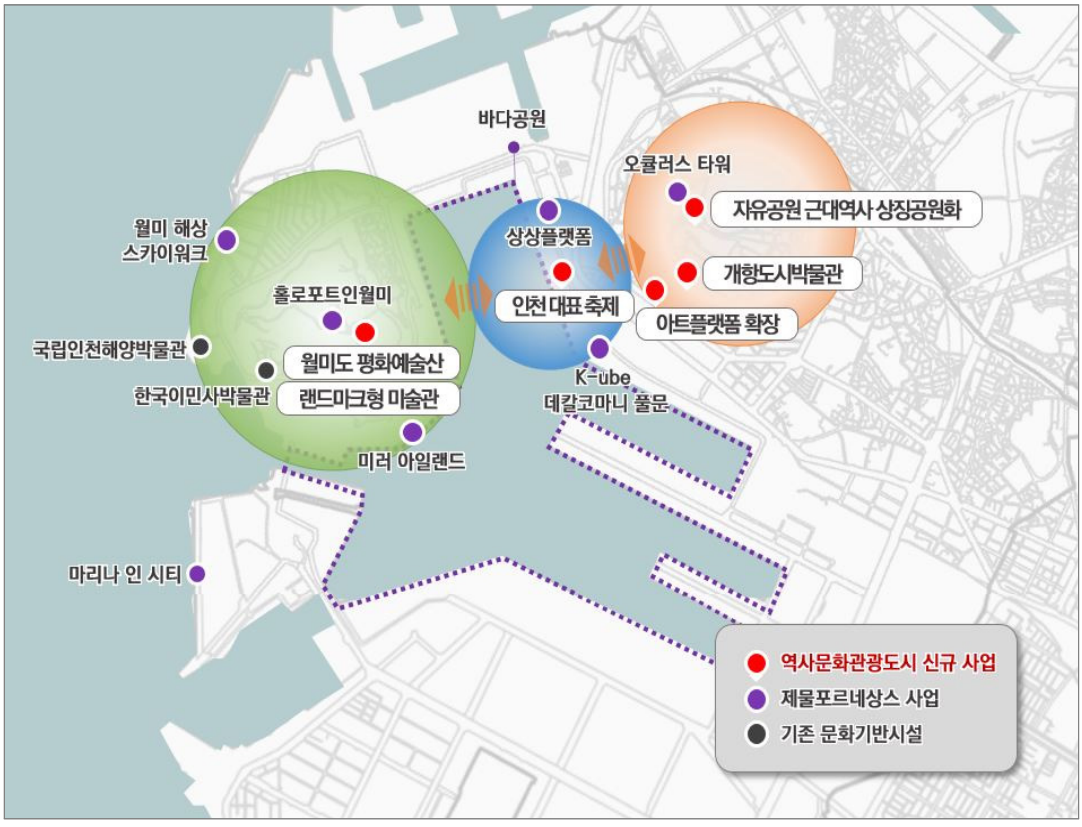
- 개항장-내항-월미도 권역을 역사문화와 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관광거점으로 특성화하기 위해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는 개항장 권역에 '오큘러스 타워', 월미도 권역에 '월미 해상 스카이워크', '미러 아일랜드', '홀로포트인월미', 내항 권역에 '상상플랫폼'을 조성하고, 'K-ube', '데칼코마니 풀문', '마리나 인 시티'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천과제 15개 중 10개가 개항장과 내항, 월미도 권역에 집중되어 있고,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또한 동일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계 추진 시 도시 정체성 강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개항도시박물관 조성', '아트플랫폼 확장', '자유공원 근대역사 상징공원화',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이 개항장 권역을 대상으로 함
    - 또한, '랜드마크형 미술관 건립', '월미도 평화예술산 조성'이 월미도 권역을 대상으로 함
    - '인천 대표축제 육성'과 '제물포 바다공원 정비'는 내항 권역을 대상으로 함

〔그림 5-1〕 개항장·내항 중심 역사문화관광도시 공간 구상(안)



❖ 민간 참여 및 협력 필요 과제

- 15개 실천과제는 대체로 인천시가 주요 추진 주체이기는 하지만, 부지 확보, 협력체계 구성,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서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 전략 1.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 '개항 콘텐츠 차별화 및 산업 활성화' 과제의 경우, 콘텐츠산업 업체들의 참여를 통해 관내 박물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의 경우에도, 주민과 상인들의 참여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함
- 전략 2.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 :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의 경우, 유휴 산업단지의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설 조성 과정에서도 협력이 필수적임.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과 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민간 투자와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의 자립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전략 3.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 '제물포 바다공원 정비'의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다공원의 조성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변공간을 활용한 각종 행사 개최 시에도 민간의 참여가 필요함. '인천 대표축제 육성'도 축제 기획 및 운영, 상권 연계, 홍보 등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됨

〔표 5-3〕 민간 참여 및 협력 필요 과제

추진전략	실천과제	2025년 추진내용
개항장·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개항 콘텐츠 차별화 및 산업 활성화	• 콘텐츠산업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박물관 내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산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함
	개항장 특화가로 조성 및 문화지구 활성화	• 개항장 일대의 특화가로 조성과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참여 및 협력이 필수적이며, 상권 활성화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	산업유산 재생 복합문화단지 조성	• 유휴 산업단지 부지 확보를 위해 민간 소유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시설 조성 과정에서도 민간 투자와 협력이 필수적임
	부평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	• 음악산업 관련 기업 및 민간 자원의 참여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클러스터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 및 협력이 필요함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	제물포 바다공원 정비	• 공원 정비 및 조성 방향 설정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수변공간을 활용한 각종 행사 개최 시 민간 참여와 협력이 요구됨
	인천 대표축제 육성	• 축제 기획·운영, 상권 연계, 홍보 활동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자원봉사 및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강화가 요구됨

❖ 수도권 매립지 종료 지연 시 대안

- 인천시는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선언했으나, 현재 대체 매립지 확보 및 관련 지자체(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 협의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2025년에 종료가 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이 보완적으로 추진을 모색함
- 점진적 생태문화복합공간 전환 계획 수립
  - 수도권 매립지의 일부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생태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점진적 계획을 수립하여, 매립지 종료가 확정되지 않아도 환경오염이 덜한 구역부터 공원이나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함
- 대체 매립지 확보와 병행 추진
  - 대체 매립지 확보와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을 병행하여 추진함.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매립지 종료와 대체지 확보를 협의하는 동안 일부 구역에서 조성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 생태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유연성 확보
  - 단순한 생태공간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유연성을 확보함. 친환경 산업단지, 연구소, 재생에너지 생산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성을 열어 생태문화공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함
- 생태 및 환경 복원 시범사업 추진
  - 매립지 종료와 관계없이 가능한 구역에서 환경 복원과 생태 복원을 목표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함. 조성 목표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적인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시 활용 가능한 모범 사례를 구축함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공 자산화 방안 마련
  - 민간의 참여를 통해 공공 자산화 및 활용방안을 마련함. 매립지 완전 종료가 지연될 경우에도 일부 구역에서 문화·환경 관련 임시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임시 활용 전략
  - 매립지 종료 이전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임시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활동을 통해, 향후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시에도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정책제언

1)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박물관 클러스터 전담조직 구성

■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

- 개항장 및 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내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수적임. 이 조직은 사업의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전담조직은 사업 계획 수립, 중앙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개항장 박물관 운영협의회 운영, 예산 관리,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등을 총괄하며, 필요시 기존 부서 내 별도의 팀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조직 운영의 효율성 확보

- 전담조직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전략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특히, 중앙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비 확보와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함

❖ 개항도시 콘텐츠 기초연구 및 구축 방안 수립

■ 기초연구 및 관련 연구용역 추진

- 개항장 및 내항 박물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풍부하고 체계적인 콘텐츠 확보가 필수적임. 현재 관련 기초연구가 축적되지 않고 자료 역시 산재되어 있으므로 기초자료의 체계적 조사와 연구가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함
- 연구용역을 통해 콘텐츠 구축의 방향성, 전시 활용 방안, 해외 사례 조사, 유물 수집 전략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연구 과업을 명확히 설정하고,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지속적 연구와 콘텐츠 개발의 연계

- 기초연구는 단기적으로 완료되기 어려운 과업이므로 이를 통해 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함

❖ 개항장 및 내항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개항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개항박물관을 클러스터의 핵심 앵커 시설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지 분석, 공간 계획, 운영조직 구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건립 및 운영 비용, 실시설계, 국립화 추진 전략 등을 포함하여 박물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함

■ 박물관 클러스터와 특화 가로 조성 연계

- 개항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변 소형 박물관의 전시콘텐츠와 역할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특화 박물관의 유치·건립을 유도하며, 이를 연계하여 클러스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와 함께 특화 가로 조성, 민간 참여 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클러스터가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 조직과 체계 구축

- 클러스터의 조성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를 관리·운영할 조직과 체계를 명확히 수립해야 함
- 이 조직은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임

❖ 개항장 박물관 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기반 마련

- 개항장 내 박물관 및 전시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개항장박물관협의회의 구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이 조례는 협의회의 목적, 기능, 사업 범위, 조직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함

■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과 공동 사업 추진

- 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예산으로 공동 사업 추진, 공동 홍보, 유관기관 간 협력 등 실행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함. 협의회가 개항장 일대의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2)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 문화예술거점 운영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정

- 인천시 내 각 문화예술거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명문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각 거점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일관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인천시 문화예술거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할 수 있음

■ 문화유산 보호 및 유산 관리와의 연계

- 국가문화유산법 등 기존 법률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거점이 위치한 역사적·문화적 장소에 대한 보호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특히, 개항장과 같은 역사문화유산 밀집 지역에 문화예술거점을 조성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재정 지원과 민관협력 강화

■ 공공 재정 지원 및 예산 확보

- 문화예술거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공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함. 시 예산 외에도 국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예술가 및 운영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 민관협력 모델 개발

-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거점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적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거점에 대한 후원 및 기부금 유치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할 수 있음

❖ 문화예술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

■ 문화예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거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제도 등을 확대함. 인천시 차원에서 문화예술가와 예비 창작자들을 위한

창작공간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정책

- 문화예술거점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 지역 예술가, 문화기획자, 관련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각 거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지역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거나, 인천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따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문화관광 연계 및 융복합 콘텐츠 개발

■ 문화관광 연계 벨트화

- 문화예술거점과 인천의 주요 관광지,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여 문화관광객을 유치해야 함. 각 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문화탐방 코스, 투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하고 오래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 개발

- 각 문화예술거점에서 진행되는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인천시 관광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연계 강화

■ 거점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인천의 문화예술거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의 공유와 프로그램의 교류를 촉진해야 함. 이를 통해 각 거점이 가진 특성과 자원을 서로 보완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거점 간 통합 프로그램 개발

- 인천시 내 거점들을 통합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 각 거점에서 진행되는 전시나 공연을 순회 형식으로 운영하거나, 연계된 예술축제 등을 기획함으로써, 인천시 전역에서 문화예술 거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를 위한 정책제언

❖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지구 재창조를 위한 권역별 거점 조성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성격의 권역별 앵커시설 도입

- 개항장·내항 일대는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과 가치가 축적되어있는 상징적 공간이나, 현재 시가지 확산 및 내항 기능 약화, 시설의 노후화 및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침체된 상태임
- 인천시는 원도심 지역의 침체 현상 해소 및 재활성화를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아직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단계임
- 개항장·내항 일대를 재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견인하기 위한 앵커시설이 필요함. 앵커시설은 향후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성격

■ 권역별 앵커시설을 연계한 하나의 관광권 구성

-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활용되고 있는 3개 권역(개항장권, 월미권, 내항권)을 통합하는 공간 계획이 필요함
- 3개 권역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연계·확산하기 위해 거점 간 연계성 강화 노력이 요구됨
- 권역별 앵커시설을 연계하는 공동 문화관광 축제·이벤트, 마케팅 등 추진이 필요함

❖ 기존 공간 재정비 및 기능 강화

■ 활용 가능한 공간 확보

- 개항장·내항 일대는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앵커시설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상황
- 권역별 앵커시설 도입을 위해 공간·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앵커시설 설계 시에는 해당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 주민 복지시설 등의 기능을 겸한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공간 정비·재활성화

- 권역별 앵커시설 도입을 위한 공간 확보 전략은 기존 공간을 정비·재활용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함
- 이 연구에서는 자유공원과 월미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제안함
- 각 공간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상징성에 기반하여 기존 근린공원 성격의 자유공원·월미공원을 문화·예술 특화형 주제공원으로 전환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 통합조직 설립

■ 통합조직 성격의 역사문화이야기센터 설립 추진

- 이 연구에서는 인천 역사문화 이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콘텐츠화를 위해 인천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전시·전달하는 통합조직, 역사문화이야기센터 설립을 제안함
- 현재 개항장·내항 일대에는 다양한 공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공간·시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간 연계성은 다소 미흡한 상황임
- 특히, 최근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변화는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가치에 대한 수집·보존·창작·전시 등의 기능을 전담한 통합조직의 설립은 더욱 시급함
- 개항장·내항 일대 변화를 통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역사문화이야기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변화를 체계적 관리하도록 함

■ 인천 대표축제 전담조직(IFC) 연계

- 역사문화이야기센터는 인천 대표축제(인천페스티벌, IF) 전담조직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설립함
- 역사문화이야기센터가 수집·보존·창작한 콘텐츠를 토대로 일년내내 개항장·내항 일대에서 크고, 작은 문화예술 이벤트 형태로 개최함

❖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 거버넌스 구축

■ 역사·문화·관광 실무협의체 구축

- 현재 개항장·내항 일대에는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으나 다소 산발적으로 추진됨
- 개항장·내항 일대 소재한 역사·문화·관광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개항장·내항 일대 역사문화관광사업 및 축제·이벤트 등에 대한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음

■ 공공+민간 거버넌스 구축

- 개항장·내항 일대에는 다양한 민간 주체가 활동 중이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공공의 앵커시설 및 공간 조성과 함께 민간의 창의적 비즈니스를 결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 관광사업 추진이 요구됨

4. 연구의 한계

❖ 입지 확보의 제약성

- 본 연구에서 제안된 주요 실천과제는 대부분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추진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인천시가 해당 부지들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중구청사의 활용을 전제로 한 국가대표급 개항도시박물관 설립은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중구청사 이전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유동적임
  - 수도권 매립지의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은 매립지 종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동일방직과 일진전기도 현재 소유주의 매각 의사가 없는 상황이므로, 협의를 통해 장기 임대나 부지 공동 활용 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체 부지 발굴이 필요할 수 있음

❖ 외부 변수의 영향

-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근현대문화유산 관리사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큼
- 2026년에 중구와 동구 통합으로 제물포구 신설이 예정되어 있지만, 행정구역 개편의 구체적 일정과 실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실천과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생태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 여부에 따라 일정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매립지 종료가 계획된 2025년 이후에도 연장이 논의될 경우, 관련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음

❖ 제도적 기반 및 재정 확보의 어려움

-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법적 기반 마련과 재정적 지원 확보가 부족함
  - 예를 들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나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없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사업 제안의 대부분이 다부처 협력이 필수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정부 간 협조와 지원의 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큼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부족

- 연구에서 제안된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가야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미흡한 상태임.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 현재 제안된 사업들은 대규모 인프라 조성과 예산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로, 모든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함.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법적 기반 마련과 기초 설계 작업에 집중하고, 중기에는 조성 사업의 착공 및 시범 운영,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확장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이 요구됨

단행본/연구보고서/학술지

권경남. (2021). 안도 다다오 지중 미술관의 건축 어휘 및 공간 구성적 특성. 2021년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2), 126-127.

기윤환·최민아. (2023). 인천내항 일대 수변공간 가치창출을 위한 친수공간조성방향. 인천연구원.

김은진·반서연. (2021). 고양시 대표축제 활성화 및 축제산업 육성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민경선·이선정. (2022).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방안 : 일진전기를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송대호. (2010).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선진사례 고찰. 동북아 문화연구, 25, 403-417.

심진범·김지선. (2022). 중구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훈관광 정책 방향. 인천연구원.

안내영·김영은·안지현. (2023). 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역사적·장소적 가치 해석. 인천연구원.

이소율(2020). 문화비축기지 조성 및 운영과정의 거버넌스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재·심진범. (2004). 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기본구상 및 시설배치 계획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이형우·이창섭·이현정·이정현. (2023). 강화 국립고려박물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 인천대학교.

최영화. (2021).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 방안 : 동일방직을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최영화. (2024).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진흥방안. 인천연구원.

최영화·이선정. (2022). 캠프마켓 활용 음악산업지구 조성 방안. 인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3-20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콘텐츠산업 동향브리프.

황희정. (2024). 인천 대표축제 육성 전략. 인천연구원.

UNESCO. (2011).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행정자료

(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3-12호. 2023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모집 공고.

(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4-145호. 인천아트플랫폼 2024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공모 최종 심의 결과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2019.6.24.).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23.4.).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

문화체육관광부. (2023.12.28.).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서울 중구청. (20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과. (2024). 2024년 관광진흥 시행계획.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2023.7.). 인천광역시 공립박물관 활성화 종합계획(안).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2023.12.). 2024년 주요업무계획.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 부평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2021~2030).

인천광역시 중구. (2024). 2023년 월미관광특구 평가.

인천광역시. (2020.12.).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

인천광역시. (2023.12.).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인천광역시. (2023.4.3.)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복합용지) 공모 공고(안).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936호.

인천광역시 동구. (2023.12.). 2040 인천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관련 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0309호) 2023.9.15. [시행]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82호) 2022.10.22.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1.12.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제19480호). 2023.6.20.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9590호). 2024.5.17.[타법개정]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제6920호). 2022.12.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 7270호). 2024.6.1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227호) 2024.2.23. [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7273호) 2024.06.10. [일부개정]

지역문화진흥법(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보도자료/신문기사

곽안나. (2024.5.13.). 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인천 청년작가만 모집.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864(검색일 : 2024년 9월 23일)

곽안나. (2024.5.30.). 인천 공립박물관, 전문 관장 필요.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362(검색일 : 2024년 7월 12일)

김현지. (2013.7.10.). 김형석, 박칼린과 함께하는 '2013 썸머뮤직플레이캠프'. 인천뉴스.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05(검색일 : 2024.9.2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3.3.14.). 전국 140개 우수 공립박물관 인증.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4.6.20.). 박물관·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수립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박계수. (2018.5.15.).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자인(7) '런던 테이트 모던 박물관'.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352(검색일 : 2024.9.30.)

유지현. (2022.10.18.). 가오슝 예술여행지 보얼예술특구. 국제뉴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3476(검색일 : 2024년 6월 3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혁신과. (2023.9.10.).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입법예고, 법 제정 절차 본격화.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8352621(검색일 : 2024.9.23.)

최수빈. (2022.11.22.). 철강소와 예술이 만나는 곳, 문래동. 서울시립대신문.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450(검색일 : 2024.9.30.)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건축공간연구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https://www.aurum.re.kr/Policy/PolicyOffice.aspx?pcode=M05(검색일 : 2024.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유산진흥원. https://www.kh.or.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know.tour.go.kr

국립무형유산원. https://www.nihc.go.kr/index.9is

국립익산박물관. https:/ /iksan.museum.go.kr

국립진주박물관. https://jinju.museum.go.kr/kor/html/sub01/010401.html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공식앱.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생활관. (검색일 : 2024.4.22.)

군산문화관광. https://www.gunsan.go.kr/tour/m2224

대전 헤레디움 미술관. https://heredium.art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main/main.do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s://www.much.go.kr/cooperation/net/mok.do#

베네세 아트 사이트. https://benesse-artsite.jp/en/art/chichu.html

부산근현대역사관. https://www.busan.go.kr/mmch/index

부산시청. https://www.busan.go.kr/index

부산영상산업센터. http://www. bvic.kr/index.do

비짓부산 홈페이지. https://visitbusan.net/

사우스뱅크 홈페이지. https://southbankcorporation.com.au/places/wheel-brisbane/

서구룡문화지구. https://www.westkowloon.hk/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https://sema.seoul.go.kr/kr/visit/namseoul

서울의 공원. 문화비축기지 리플렛. https://parks.seoul.go.kr/template/sub/culturetank.do (검색일 : 2024.4.26.)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

서울특별시 서울사랑. https://love.seoul.go.kr/main.do

스코틀랜드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https://www.sisf.org.uk/about-the-festival/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센터. https://scottishstorytellingcentre

오픈나루 홈페이지. http://www.opennaru.com/popular-restaurant/%EB%8C%80%EB%A6%BC%EC%B0%BD%EA%B3%A0/

인천관광공사. https://www.ito.or.kr/

인천광역시 중구청. https://www.icjg.go.kr/index

인천시티투어. https://citytour.ito.or.kr/

인천중구문화재단. https://ijcf.or.kr/

인천 중구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icjunggu/22263791596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https://jseco.jne.go.kr/index.es?sid=d4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종합 현황. https://rcis.culture.go.kr/bs/main/searchHome.do (검색일 : 2024.10.16.)

퀸즐랜드 홈페이지. https://www.queensland.com/au/en/places-to-see/destinations/brisbane/south-bank

플레이빌. https://playbill.com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loc/getAreaDataForm.do#

한국문화홍보서비스. [홍콩] 3월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https://www.kocis.go.kr/kocc/view.do?seq=1037501&page=53&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0&searchType=menu0150&searchText=(검색일 : 2024.3.22.)

한국영상자료원. www.koreafilm.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통계. https://www.kawfartist.kr/kawf_dash/dash/html/p01.html (검색일 : 2024.11.20.)

홍콩관광청. https://www.discoverhongkong.com/kr/

홍콩해안경비박물관. https://hk.coastaldefence.museum/tc/web/mcd/home.html

AR로 보는 군산근대문화유산 공식앱. 관람순서, 미션투어. (검색일 : 2024.4.22.)

Neutelings Riedijk ARCHITECTS. https://neutelings-riedijk.com/

TRACS. https://tracscotland.org/

UNWTO. UN Tourism Barometer. https://www.unwto.org/un-tourism-world-tourism-barometer-data (검색일 : 2024.4.22.)

Zètema progetto cultura. https://www.zetema.it/

高雄旅游網. https://khh.travel/ko

横濱市. https://www.city.yokohama.lg.jp/

みなとみらい エリアマネジメント https://www.ymm21.jp/

みなとみらい21. https://minatomirai21.com/

□ 시청각 자료

KBS부산. (2024.2.27.). 영상복원 부산항 1부 : 제국의 관문 | KBS대기획 | UHD | KBS 240220 방송[영상]. 유튜브. https://youtu.be/8hpYi6Z2TvE?feature=shared

인천 정책로드맵 2040 매력적인 도시 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발 행 인 박호군
발 행 일 2024년 12월 31일
발 행 처 인천연구원
인 쇄 처 032디자인㈜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 인천연구원 202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인천 정책로드맵 2040

01 인구·생활 활력 도시 인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02 30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도시
03 모두에게 공평한 주거지역 특화정비
04 기후재난 회복력 강화를 통한 시민안전 최우선 도시 조성
05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도시
06 인천대로 및 경인전철축과 연계한 제물포르네상스 전략 확산
07 미래산업구조와 연결한 산업단지 복합재창조
08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09 사람과 바다가 꿈꾸는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 해양도시 브랜딩
10 딥테크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미래형 지역산업체제 구축
11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수소도시 인천
12 재외동포 거점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기본전략 구상

※ '인천 정책로드맵 2040'은 인천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할 지침서로 활용할 연구보고서입니다.

2024. 12. 31.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